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허수경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 연구
- ‘타자되기’ 개념을 중심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뽀마라주 신두라

국문초록

본고는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의 장면을 ‘타자되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먹는 행위가 타자들의 이미지와 결합해서 시인의 여성주의, 언어, 자연 등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자 한다. 허수경의 시는 타자들에 대한 시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시를 ‘타자되기’라는 개념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타자되기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들뢰즈와 가타리가 『천개의 고원』에서 형성한 ‘되기’에 착안하는 한편, 아네메리 몰이 내세운 화체설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타자되기를 주체와 타자를 가르는 경계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허수경의 시에서 이것은 주로 ‘먹는 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허수경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를 세 명제 하에 정리해서 분석한다. 첫째, 배고픔의 문제; 둘째 고기를 먹는 문제; 셋째 카니발리즘적 이미지 사용의 문제이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내재하고 있는 폭력 혹은 권력체계를 살펴보는 한편, 저항의식도 드러내고자 한다. 배고픔의 문제는 허수경의 시에서 노동자의 문제로 펼쳐지는데, 먹음의 ‘부재’는 사회에서 ‘타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또한, 이 타자들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저항의식을 어떤 식으로 발휘하는지를 드러낸다. 둘째로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고기를 먹는 장면들을 검토하면서, 시인이 이에 대해 가진 사상을 밝힌다. 시인은 고기문화가 지닌 문화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이것이 내포한 폭력을 폭로한다. 본고에서는 먹는 행위를 통해 폭력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먹는 행위와 ‘타자되기’를 가능케 하는 ‘어머니’ 인물에 주목한다.

허수경의 시에서는 먹는 행위 이미지에 동반되는 ‘어머니’가 자주 등장한다. 그 의미는 어머니가 먹는 행위와 타자되기를 이루게끔 한다는 점에 있다. 본고는 3장에서 어머니가 자연과 함께 ‘먹이’는 노동을 하는데, 이로써 새로운 시간성까지 형성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허수경의 여성주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어머니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명한다. 어머니와 자

연의 ‘먹이’는 노동을 규명하는 한편, 이것이 타자되기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또한, 어머니는 새로운 ‘시간성’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도 함께 탐구한다. 여기서 본고는 ‘먹이’는 어머니에서 출발하며, ‘먹는 어머니’에 대해 논한다. 허수경의 시간의식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가 초래한 세계의 끝과 再창조의 측면을 드러내는 한편,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입’을 그려낸 장면을 초점화한다. 어머니의 입은 세계의 끝을 초래하는 동시에 세계의 재창조도 야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욕망은 공동체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공동체’를 검토한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공동체의식을 주로 3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언어에 해당하는 공동체이며, 이것은 시인의 고향의식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3.1절에서 고향의 음식들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시인의 언어의식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검토한다. 한편, 언어, 자연과 먹는 행위의 연합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민족주의적인 측면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을 문제화시킨다. 이어서 시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민족 혹은 하나의 언어로만 정의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독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면서 시인이 강조한 각 개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공동체는 각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조명하면서 세 번째 공동체, ‘기억의 공동체’를 도입한다. 허수경의 시는 타자들에 대한 시인 동시에, 기억을 중심으로 한 시이기도 한다. 시인은 타자되기를 통해서 구축하는 새로운 세상과 공동체는 결국 ‘기억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기억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은 앞서 논의한 시간의식과 기억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그는 기억의식을 인간과 모든 생명을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이를 통해서 타자되기를 실행하려 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고는 허수경의 시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는 동시에, 이것이 먹는 행위와 어떤 결합을 이루는지, 또한, 이것을 타자되기라고 규정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핀다.

■ 주요어 : 허수경, 타자되기, 먹는 행위, 모성, 고향의식, 공동체, 기억,
기억의 공동체

■ 학번 : 2018-24958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
1.2. 연구의 시각.....	7
2.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타자되기의 양상.....	18
2.1. 먹는 행위가 내재한 불평등성: 배고픔과 노동착취.....	18
2.2. 먹는 행위와 인간중심주의: 육식에 대한 비판.....	36
2.3. 카니발리즘을 통해서 나타난 ‘주체성 이동’.....	49
3. 어머니의 먹는 행위로서 새로운 세계와 시간성의 고안.....	58
3.1. 자연과 어머니의 ‘먹이는 노동’ 및 새로운 시간성 형성..	58
3.2. 세계의 끝과 再창조의 장소로서 먹는 어머니의 ‘입’.....	75
4. 먹는 행위를 통해서 구축되는 타자들의 공동체.....	83
4.1. 진주 음식과 사투리의 자연적인 연합.....	83
4.2. 먹는 행위와 ‘고독’의 공동체의 구성.....	95
4.3. 먹는 행위와 ‘기억의 공동체’의 창조.....	108
5. 결론.....	122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본고는 허수경의 시에 나타나는 먹는 행위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의 시에서 먹는 행위는 모성, 생명 지탱, 자연, 창조력, 파괴력, 귀향의식, 공동체의식 등의 다층적인 면을 응축하고 있으며, ‘타자’의 이미지와 결합된다. 필자는 이 결합을 ‘타자되기’라고 규정하고 그것의 의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그간 허수경의 시에 관한 연구에서 타자는 노동자, 여성, 아이, 피억압자로 분석되고 있는데,¹⁾ 필자는 이것이 먹는 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한, 시인의 시학에 있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허수경은 1964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며, 그다음 1987년 『실천문학』에 「땡별」 외의 시 4편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그는 1988년에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펴내면서 8~90년대의 시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허수경은 그 이후로 총 5권의 시집을²⁾ 출간했으며 이 외에 2권의 장편 소설, 산문집과 동화까지 발표했다. 그의 시세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현지 시인, 지방시인,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인식되는 동시에 여성 시인, 反전쟁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필자는 시인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먹는 행위’ 혹은 ‘음식’ 이미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시인의 등단시 「땡별」을 주목해보자. 이 시에서는 진주의 농경 생활과 그곳에 대한 향수를 목격할 수 있는 한편, 먹는 행위가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했다. 그의

1) 이해원, 「허수경 시에 나타난 전쟁 표상과 생명의식」, 『문학과환경학회』, 2019. 이하 이 논문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이하 이 논문은 「전쟁 표상」으로 인용될 것이다.

2)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비, 2001.
_____,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_____,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첫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는 1980년대 한국 현황을 재현하면서 이것을 과거의 식민지 한국과 대비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시인은 먹는 행위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시대 상황과 시골생활을 그려냈다. 1991년 허수경은 '21세기 전망'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동인지 제2집 「이탈한 자가 문득」을 발간하기도 했다. 허수경은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 집』(1992년)에서 먹는 행위를 '배고픔'으로 나타냈다. 이 이미지는 세 번째 시집에 이어지기도 했다.

2번째 시집을 발표한 후 허수경은 근동 고고학을 공부하러 독일 뮌스터 대학에 유학을 갔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는 같은 대학 지도 교수와 결혼하여 평생을 외국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는 외국에 살면서도 모국을 늘 시에 재현시켰다. 게다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온 허수경은 2014년에서 『벌어먹을, 차가운 심장』과 장편 소설 『빙하』를 같이 발표하면서 “고국이든, 고향이든, 사람이든 늘 그리웠다”며³⁾ 밝혔다. 즉, 한국이라는 장소가 그에게 크나큰 의미를 지녔다.

2001년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에서 허수경은 독일과 한국 바깥의 세상을 시에 다루기 시작하면서, 고고학적인 시각과 은유까지 시에 등장시켰다. 그는 스스로 “명색은 시인인데, 정규시스템 안에 있는 대학에 너무 오래 있어서 경직되는 것 같았다”며 “대학에서는 떨어져 프리랜서로 활동할 생각”이라고 선언했다.⁴⁾ 즉, 시인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그는 고고학자로서 그것에 맞는 사상을 시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2006년에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에서 ‘먹는 행위’는 인간에게 먹히는 동물의 관점을 드러내는 시편으로 나타난다. 이 시집에 의해 허수경은 제14회 동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의 허위를 무섭게 적발하는 힘을 가졌다”⁵⁾라는 심사평까지 받았다. 그 후로 그

3) 오은, 「나 없는 겨울에도 눈이 내리겠지, 그리움 같은 눈이...」, 『한겨레』, 2018.12.09.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73605.html

4) 강종훈, 『인터뷰』 10년 만에 귀국한 재독시인 허수경, 연합뉴스, 2011.01.19. <https://www.yna.co.kr/view/AKR20110119169200005>

5) 「허수경·김연수씨 동서문학상 수상」, 『부산일보』, 2001년, 08월 07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10807000242>

에게 4년의 공백이 있었으나, 그간 그는 산문집 『길모퉁이의 중국식당』(2003)을 펴냈다.⁶⁾ 산문집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먹는 행위와 음식은 산문집, 또한 허수경의 사상을 지배했다.

허수경의 시집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된 흐름 혹은 테마는 초기의 작품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의 마지막 3권의 시집에서 전쟁의 문제가 주요 흐름으로 작동했다. 허수경은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을 스스로 “반전쟁 시”라고⁷⁾ 규정한 바 있으며,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폭력이 어땠는지 등을 탐색하는 시를 썼다. 그것의 뒤를 따른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에서는 시인이 ‘노래’라는 큰 테마를 통해서 노래가 전쟁과 폭력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는 ‘나비’로 상징되는 시집의 헤맴의 정서를 압축 할 수 있으나 이것만이 비단 이 시집의 주요 흐름은 아니다. 전쟁은 다시 등장하며, 난민, 아이, 군인이라는 인물들이 같이 등장했다. 그러므로 허수경에게 있어 전쟁은 그가 늘 고민하는 문제이자 ‘타자’라는 주제에 해당한다. 이 3권의 시집에서 먹는 행위는 고기 문화 비판, 전쟁 시기 인간이 겪는 배고픔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한편, ‘어머니’ 인물이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암과 긴 투병 끝에 2018년 독일에서 54세에 별세하였다.

그간의 허수경의 시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주의 탐구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권성훈은⁸⁾ 허수경의 시를 7~80년대에서 한국 여성이 당한 폭력에 반박하면서 전개되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허수경은 “역사적 사실 앞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되고 파편화된 기억들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페미니즘을 드러낸다” (220쪽). 허수경의 여성성은 ‘모성’에 맞닿아 있는 사항이기도 한다. 박지해에 따르면 허수경에게 모성성은 “생산성과 치유성

6) 이것은 2018년 『그대는 할 말 두고 어디에 왔는가』로 다시 개정되며 출간되었다. (허수경, 『그대는 할 말 두고 어디에 왔는가』, 문학동네, 2018.)

7) 허수경, 「시인의 말」,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8) 권성훈, 「[여성 시인의 사회와 치유의 플롯] 영원한 제국의 폭력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페미니스트 - 허수경론」, 『계간 시작』, 2019. 이하 이 논문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모두를 포괄한다.”⁹⁾ 이어서 이해원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전쟁과 관련 장면에서 ‘어머니’가 하는 역할에 주목해서 여자들은 “끈질긴 삶의 본능을 드러낸다”고 판단한다.¹⁰⁾ 그는 허수경 시에 나타난 ‘색채’ 구조에 주목하면서, 폭력을 상징하는 ‘군인’ 혹은 ‘전쟁’은 “검은 색”으로(144쪽) 표시되며, “흰색”은 (156쪽) 생명을 긍정하는 ‘어머니’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드러낸다.

이해원은 다른 글에서 허수경의 여성주의는 “독일 이주를 전후하여” 변한다고¹¹⁾ 말한다. 독일 이주 전의 작품들에서 허수경은 전통적인 역할을 보유했으며, 독일 이주 후에 이러한 여성을 보기 어렵다 (20쪽). 이해원은 허수경과 김선우의 시를 대조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시에서 복수의 주체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나들’의 존재론”이라고 명명한다. 그에 따르면 “‘나들’의 존재론은 ‘나’라는 주체의 관점을 넘어서 ‘너’와 공명하는 무수한 ‘나들’을 가능하게 한다” (27쪽). 김신정은 “허수경 시의 여성은 문명이 배출하는 파괴와 혼란, 끝없는 동요의 체험 가운데서 배회하고 있다”고 보았다.¹²⁾

둘째, 허수경의 고향의식과 ‘기억’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광호는¹³⁾ 허수경 시에 나타난 기억은 “사실적인 묘사로 채워져 있기보다는 행위의 상징성이 부각되어 있다”고 본다. 이미예는¹⁴⁾ 허수경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고향에 대한 글을 계속 써나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시인은 고향을 여러 방식으로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고향을 모색하며” (7쪽)

9) 박지해,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모성성의 사적 전개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7. 박사학위논문. 113쪽.

10) 이해원, 「전쟁 표상」 논문 참조. 156쪽.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11) 이해원, 「‘나’의 지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 『계간 서정시학』, 2017. 15쪽.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또한, 이하 이 논문은 「‘나’의 지각」으로 인용될 것이다.

12) 김신정, 「소멸의 운명을 살아가는 여성의 노래 -허수경과 김수영의 시」, 『실천문학』, 2001. 249쪽.

13) 이광호, 「그녀의 시는 오래되었으나—허수경의 오래된 편지」,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001. 797쪽.

14) 이미예, 「허수경 시의 귀향 의식」,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이하 이 논문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이하 이 논문은 「귀향 의식」으로 인용될 것이다.

고향에 대한 상실을 기억과 회상으로 극복했다(9쪽). 방승호는¹⁵⁾ 시인이 자신의 사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며 그만의 시간성을 구축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기억의식과 시간의식은 ‘고고학적인 방법론’에 닿아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독일에 근동 고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간 그는 고고학적인 사유와 은유를 시에 다루면서 그만의 시간의식을 펼친다. 허수경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향과 기억에 대한 사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셋째, 허수경의 언어의식에 대한 연구다. 허수경은 방언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고향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신범순에 따르면, 서정주가 활용한 “구슬리는 말법”을 허수경 시에도 찾을 수 있다.¹⁶⁾ 이와 마찬가지로 비평가 정영자도 허수경이 “농경사회의 노동문화를 배경으로 걸쭉한 경상도의 투박한 가락을 가지고 사회와 민중의 삶을”¹⁷⁾ 묘사한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고향—향수—사투리의 언어는 ‘음식의 언어’들을 취하고 있다. 고향의 음식들은 진주 사투리로 묘사됨으로써 음식과 언어의 밀접한 관계를 표방한다. 또한, 고향의 기억은 과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성을 낳는다. 필자는 이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기존 논의를 통해 허수경 시의 여성주의, 고향의식, 시간의식, 언어의식 등은 한 시인의 다양한 시적 세계를 구명하는 언어들에 해당한다. 본고는 그간 논의되었던 허수경 시 세계의 다양한 국면들이 시인의 ‘먹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구명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기존 논의에서 허수경의 육식과 카니발리즘적 이미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것을 시인의 모성, 생명의식 등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허수경의 시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에서 포착하지 않던 타자와 먹는 행위

15) 방승호, 「허수경 시의 시간의식 연구」, 『어문연구』, 2019. 이하 이 논문은 「시간의식」으로 인용될 것이다.

16) 신범순, 「부서진 육체와 사랑의 공간」, 『문학과사회』, 1992, 1016쪽. 이하 이 논문은 「부서진 육체」로 인용될 것이다.

17) 정영자, 『한국 여성 시인 연구』, 평민사, 1996. 366쪽.

의 연관성을 탐색하며 새로운 관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허수경의 총 6권의 시집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시집을 초기, 중기와 후기로 나누어 본다.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1988; 이하 『슬픔』)와 『혼자 가는 먼 집』은(1992; 이하 『혼자』) 초기,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2001; 『내 영혼』)와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2005; 이하 『청동』)은 중기,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2011; 이하 『빌어먹을』)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2016; 이하 『누구도』)는 후기 작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기 시는 독일 가기 직후 쓴 작품 『내 영혼』과 재독 10년 후 쓴 『청동』으로 구성되며 시인의 생각의 변모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가 시기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주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허수경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의 이미지는 시기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인 흐름을 간과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제별로 먹는 행위와 타자의 이미지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 그것에 맞는 시기적인 상황을 보충하면서 논의를 펼칠 것이다.

음식과 먹는 행위는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역사적 발전주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벨기에-프랑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¹⁸⁾ 명작 「신화학 1: 날 것과 익힌 것」에서 음식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음식에 접근하며, 먹는 행위에 어떤 규칙 혹은 구조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심층구조”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음식을 ‘날 것’, ‘조리된 것’과 ‘익힌 것’의 세 개로 나누어서 이것이 ‘음식의 트라이앵글’을 점유한다고 보았다. 이 3가지의 유형에 따라 음식은 자연과 문화,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그만큼의 비판도 받아왔다.

영국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는¹⁹⁾ 레비스트로스의 사상을 2가지의 면에

18) Lévi-Strauss, Claude. 1969, *The Raw and the Cooked*. New York: Harper & Row, Print.

19) Douglas, Mary, 1972, "Deciphering a Meal." *Daedalus* 101, no. 1

서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레비스트로스는 작은 규모의 사회적 관계들이 음식을 부호화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과했다. 또한, 레비스트로스는 음식의 ‘언어’가 어떤 보편적인 음식습관과 초인류적인 의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둘째, 그가 취한 이분법의 분석틀은 통합 관계를 제외하며, 음식 문화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달리 더글라스는 이분법의 분석틀을 유지하면서도 음식 혹은 먹는 행위의 통합적 의미를 탐구하려 했다.

더글라스는 명작 「Deciphering a Meal」에서 언어와 음식의 각각 유형들이 부호화되어 있으며, 그 부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둘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²⁰⁾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위계관계, 배제와 포용, 경계와 경계들 간에 일어나는 ‘거래’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떤 ‘사회적 행사’를 구성함을 볼 수 있다. 더글라스에 따르면 음식 카테고리는 음식food과 음료drinks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음식은 일반적으로 음료에 비해서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음식과 음료를 가르는 ‘경계’들 때문이다. 음식과 음료를 가르는 경계들은 친밀함 intimacy과 거리 두기distance를 표시한다. 이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동질감을 표상하는 한편, 함께 음료를 마시는 것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즉, 음식의 공유 여부에 따라 동질감과 친밀함이 정의되며, 경계들이 위반되거나 유지된다.

페미니즘에서 철학자 로지 브라이도티는²¹⁾ 먹는 행위의 ‘경계’ 깨기 특징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금기시된 것을 섭취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도달한다. 이 모습은 성적인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를 앞선 모습이며, 또한 인간은 이를 통해서 자신을 타자로서 아니라 ‘자아’로 인식한다.²²⁾ 따라서 먹는 행위는 ‘몸’의 경계를 깨트리면서 ‘나’와

1972): 61-81. Accessed June 15, 2020. www.jstor.org/stable/20024058.

20) Mary Douglas, 위의 논문 참조.

21) 로지 브라이도티, 「페미니즘 여성 주체에 대하여: 혹은 “그녀-자아”로부터 “그녀-타자”로」, 『유목적 주체 :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박미선 옮김, 2004. (이하, 브라이도티, 「페미니즘 여성」로 인용될 것이다)

22) 브라이도티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을 논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작가

‘타자’를 가르는 경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이도티는 먹는 행위를 ‘인간/동물’이라는 이분법을 깨트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의 이미지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모습을 드러냄을 보이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점은, 브라이도티가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에 입각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1980)에서²³⁾ 몸을 새롭게 개념화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몸은 ‘기관 없는 신체’이자 정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체이다. 따라서 몸은 항상 ‘되기’의 과정에 있다. 이어서 몸이 이 ‘되기’를 통해서 밖으로 진화하지 않으며, 안으로 역행한다(involution).²⁴⁾ 철학자 김은주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되기(devenir)는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결합하여 변용하는 방식이다.”²⁵⁾ 즉, 되기란 신체가 다른 신체와의 ‘결합’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 ‘결합’은 ‘퇴행’ 혹은 ‘진화’를 아니라 ‘역행’을 말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에서 가장 돋보

클라리스 리스펙터의 「G.H.의 열정론」의 작품을 빌려 (여성) 주체의 주체화되는 과정에 대해 썼다. 「G.H.의 열정론」의 주인공 G.H는 자신의 주체성을 재획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기시된 행위를 실행하며 여러 경계를 깨트린다. G.H는 바퀴벌레를 먹음으로써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어 인간/동물, 인간/비인간 등의 이분법을 깨트린다. 즉, 그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할 뿐더러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재정의한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는 행위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있는 경계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범주 자체를 비인간화 과정에 착수하게끔 하며 인간중심주의적인 시각을 벗는다. 허수경의 시에서 비인간화에 이르려는 시도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행위와 비슷한 흐름을 찾을 수 있다. (브라이도티, 「페미니즘 여성」)

- 23) 질 들뢰즈, 필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 24) “결국 되기는 진화, 적어도 혈통이나 계통에 의한 진화는 아니다. 되기는 계통을 통해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데, 모든 계통은 상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되기는 항상 계통과는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 되기는 결연(alliance)과 관계된다. (중략) 따라서 우리들로서는 이처럼 이질적인 것들 간에 나타나는 진화 형태를 “역행(involution)”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단 이 역행을 퇴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되기는 역행적이며, 이 역행은 창조적이다. 퇴행한다는 것은 덜 분화된 것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역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선을 따라, 주어진 여러 항들 사이에서, 할당 가능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는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일을 가리킨다.” 들뢰즈, 앞의 책, 453-454쪽.
- 25) 김은주,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과 여성주의적 의미」, 『한국여성철학회』, 제21권, 2014. 95~96쪽.

이는 것은 몸의 ‘유연성’이다. 그들이 드러낸 몸은 고정된 ‘경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몸들과, 다른 개체들과 연합하여 ‘되기’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들뢰즈의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먹는 행위와 되기를 연결시켰다는 점이 필자에게 중요한 시발점을 제공해 준다.

먹는 행위는 몸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행위이지만, 이는 먹는 자를 그의 외부와 관계 맺게끔 하면서 주체를 형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몸과 먹는 행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이 내포하는 안과 밖의 관계 유지와 해체의 가능성, 자기화 과정 등에 대해 말했다. 류정아는 “먹는” 행위가 “산다”는 행위와 “떨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⁶⁾ 그러나 먹는 행위의 역할은 생명 지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주변을 개념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조정한다. 먹는 행위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 중 하나이기에 인간과 세계를 연결시킨다. 필자는 이러한 사상을 확장하면서,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을 세계와 연결시키는 동시에, 먹는 행위를 행하는 모든 존재를 연결시킨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먹는 행위에 대해 이와 같이 접근했을 때의, 이점은 인간을 탈중심화시킨다.

허수경의 시학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그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기 문화의 비판으로서 전개되는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폭력을 포괄한다. 주체-타자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찰하며 고민하던 허수경은 인간이 “타인이데올로기”라는²⁷⁾ 과정을 통해서 다른 존재를 타자화하며, 그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스스로 타자 혹은 “타인”이라는 말이 “나 아닌 다른 것, 사람뿐 아니라 환경 역시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즉, 타자란 어떤 주체가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이것은 인간 서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주체-타자의 관계에 한하지 않으며, 자연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인식해야 한다.

26) 류정아, 「한국 음식문화의 변화양상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1996. 26쪽.

27) 허수경, 『모래도시』, 92쪽. 이하 이 책의 쪽수만 표기.

따라서 고기문화를 비판하는 데에 있어 허수경은 주체가 인간에게 주어
 져 있는 것으로 등장시키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범주 자체를 뒤집는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로지 브라이도티가 제공한 먹는 행위로써 촉발되는
 ‘되기’ 과정에 가깝다. 환언하면, 허수경은 ‘인간’이라는 범위를 고정된 상
 태로서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낸다. 인간 몸의 유연
 성에 대해 페미니스트 이론가 린다 맥도월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우
 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 몸이 “유동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존재이며,
 “변화 가능성”²⁸⁾을 내포한다. 즉, 몸을 유동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개체로
 인식하며, 로지 브라이도티가 드러난 되기의 과정을 이것으로써 비추어 볼
 때 먹는 행위는 몸을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아니라 변모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경시킴을 알 수 있다.

몸의 변모 상태에 대해서는 아네메리 몰의 논의로 대두되는 음식학자들
 의 논의를 살펴봄직하다. 음식학자들은 먹는 행위를 먹는 자와 먹히는 자
 사이에 나타난 주체행위 이동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먹음을 행하는 자
 는 주체로 있으며, 먹음을 실행함으로써 먹을 ‘것’을 타자화한다. 그러나,
 서구 음식 과학자 아네메리 몰(Annemarie Mol의²⁹⁾ 이와 같은 단순한 위
 계 관계에서 떠나, 먹을 ‘것’에도 주체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타자가 없어지는 경우에 주체도 없어
 진다고 강조한다. 즉, 먹는 행위에서 먹는 자가 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은 사실상 또 하나의 주체이자, 먹히면서 그와 곧 결합을 이룰 존재이기도
 한다.

주체는 무엇을 타자화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지만, 먹는 행위는
 그러한 경계를 부순다. 즉, 먹는 행위란 주체와 ‘타자’를 가르며 구분 짓는
 경계를 없어지게 한다. 그 결과, 주체는 ‘타자’가 되며, 타자는 주체가 된
 다. 몰은 이 과정을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라고 일컫는다. 가톨릭
 의 종교에서 ‘화체설’은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가 실제로 임

28) 린다 맥도월, 「장소의 안과 밖」,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7. 76쪽.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29) Mol, Annemarie. 2008, “I Eat an Apple. On Theorizing
 Subjectivities.” University of Twente, Enschede, The Netherlands.

재되어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데, 물은 이를 근거로 먹는 행위를 개념화한다.

그는 먹는 행위를 완성된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먹는 자가 먹을 것을 배설하거나 토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밖으로 그것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먹는 행위는 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추방시키지 않는다. 즉, 먹는 행위는 늘 바깥과 안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먹는 자와 먹히는 것이 늘 되기 과정에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이것에 입각해서 허수경의 시가 이러한 측면을 보이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먹는 자가 먹을 것과 결합하여 서로 간에 ‘화체설’이 진행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이 화체설 과정을 ‘타자되기’라고 재명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신범순이³⁰⁾ 형성시킨 “밀도”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에 따르면 지구의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태피라미드’를 이룬다. 이 생태피라미드는 여러 층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장 밑에 있는 존재들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동한다. 또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행위는 단지 상승 이동을 아니라 ‘밀도’의 향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생태피라미드 꼭지점에 위치한 생명들이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따라 낮은 밀도를 가질 수 있다. 즉, 자연에서 유래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높은 밀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면, 인공식품을 먹는 생명은 낮은 밀도를 지니고 있다. 밀도란 삶의 본질이자 그것의 질을 의미한다. 밀도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문학연구에 있어 음식과 먹는 행위에 대한 논의는 ‘경계 깨기’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김혜순 시에 대해서 음식과 먹는 행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³¹⁾ 김혜순이 스스로 그의 시에 나

30) 신범순, 「강은교의 「자전」 연작과 은갈치, 초록거미의 파동선」, 한국현대시론 강의록, 서울대학교, 2018.

31) “제 시에는 먹는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먹는 관계가 많은데 먹는 관계가 그렇게 맛있게 열심히 즐겁게 먹지는 않는 것 같지요. 다른 사람들이 제 시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외부적인 힘과 저와의 관계를 먹고 먹히는, 또 먹이는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 중에 먹는 일이 참

타난 먹는 이미지는 외부-내부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인지하는 한편, 먹는 행위는 시인 자신에게 있어 사적인 것이자 쾌락을 일으키는 행위라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시에서 몸의 이미지는 먹는 이미지를 왜 동반하는지에 대한 쓰면서 남성-여성의 육체적인 차이에 주목했으며, 그것을 ‘우주적인 구조’물로 규정했다.

따라서 소래섭³²⁾은 먹는 행위가 안과 밖을 연결시킨다고 하며 주체성을 이루는 과정에도 먹는 행위가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외부에서 흡수되는 음식은 육체 안에 들어가며 ‘안’과 ‘밖’을 연결시킨다. 이것은 육체만의 연결이 아니라 이 속에 영혼과 욕망도 포괄되어 있다. 음식은 사회로부터 민족적, 종교적, 성적 등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기에 음식을 흡수함으로써 성취되는 안과 밖의 만남에서 주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허수경 시에 나타난 먹음, 먹임과 먹힘은 안과 밖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계의 해체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래섭은 피셔를 차용해 음식은 “물질, 욕망, 정신·영혼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31쪽)라 한다. 또한, 음식은 사랑과 욕망 그리고 안전까지 포괄하고 있다. 허수경 시도 이러한 측면을 지니며, 음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우정 관계나 연대감, 음식을 통해서 상기되는 과거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과 그 과거에 대한 욕망 등의 이미지들이 가득하다.

한국 시에 나타난 음식 이미지를 살펴보는 이형권³³⁾은 후설을 차용해서 몸이 물질적, 감각적과 의지적의 세 층위로 존재한다고 하며, 그는 음식이 이 세 가지의 층위를 자극시키는 요소로 보았다. 특히, 한국 시에 있어 나

중요하고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저의 일상이니까 그게 나오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남자의 몸하고는 달리 내밀한 거예요. 생리주기가 있고.....남자를 봐요. 얼마나 맛있는 몸인가를. 생리 주기가 있어서 지금 배란기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치 우주적인 구조물이죠. 이 구조를 쓰지 않을 수 없죠.” (김혜순 외 『살아남기 위한 말, 살리기 위한 말』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제9호, 1992. 39쪽.)

32) 소래섭, 『백석의 맛』, 프로네시스, 2009. 32쪽~33쪽. 이하 이 책의 쪽수만 표기.

33) 이형권, 「[기획특집-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음식 이미지] 음식을 감각·사유하는 시편들」, 『시안사』, 시안 제24권, 2004.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탄산 음식 이미지는 “감각적, 의지적 대상으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 현대 시에 있어 음식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실존적 정신의 차원이나 사회적-서정적 의식의 차원을 형상화”하는 전통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37쪽). 허수경의 시는 사회적-서정적 의식을 발휘하지만, 이것은 그만의 귀향의식, 시간의식, 여성성 등을 포괄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신범순은 한국현대시에서 나타나는 음식 이미지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식민지 시기 김기림, 정지용, 이상 등의 시인들이 “빵의 빈곤” 이미지를 시에 다루었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론에서도 주도적인 특징이” 되었음을 지적했다.³⁴⁾ 그러나, 그가 빵의 문제는 사회적 계급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것이 성욕 또한 육체의 본능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빵과 관능적인 육체의 통일은 식욕과 성욕의 복합적 풍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多聲的(다성적)인 장소”를 이룬다. 이에 주체의 문제와 빵의 문제를 함께 보는 데에 사회적인 의미에 국한하지 않으며 그것의 다성적인 의미 탐구가 필요하다. 그는 “주체의 문제는 빵의 생산과 분배 등과 관련된 사회적 결정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미시적이고 복합적인 풍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쪽). 이로써 필자는 허수경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와 음식을 단지 ‘사회적 결정구조’를 통해서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먹는 행위’ 혹은 ‘음식 섭취’는 ‘경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 경계는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경계를 말하는 동시에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을 다른 인간과 구분 짓기 위해서 구축하는 경계를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먹는 행위는 해당 ‘경계’를 깨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 경계란 존재들 서로 간에 ‘미접촉’과 ‘접촉’을 유지하고 조정한다. 예컨대, 인간은 사회에서 규범적인 것으로 판단된 것을 흡수할 때, ‘인간’이라는 범위에 속한다, 즉, 다른 인간들과 ‘접촉’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그는 인간이라는 범위에 속해 있어서 다른 ‘비-인간’적인 것들과

34) 신범순 「원초적 시장과 레스토랑의 시학-야생의 식사를 향하여」, 『한국현대 문학연구』, 2002, 10쪽.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구분되고, 그들과 공유하는 관계에서 ‘미접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금기시되는 것을 먹으면서 ‘비-인간’의 범위에 착수하게 되는 한편, 비-인간적인 존재를 표방하는 동물들과 ‘접촉’하게 된다. 즉, 경계의 위반과 지킴으로서 접촉과 미접촉이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 각 존재는 그에게 주어진 범위에 속하게 남아있거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 몸의 ‘경계’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변하고 있으며, 위반된다. 몰Mol이 지적한대로, 먹는 행위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 간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든다. 먹음을 행하는 과정에서 먹는 자의 경계가 위반되고 있으며, 먹는 행위에 의해 먹는 자 몸의 경계들이 유연하게 변경된다. 따라서 경계의 위반으로써 먹는 자와 먹히는 것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며 개체 서로 간에 ‘되기’가 이루어진다. 인간 혹은 각 존재가 속하는 범위의 경계들도 늘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정체성 또한 변모 과정에 놓여 있다. 필자는 허수경의 시를 해석하는 데 ‘경계’의 위반은 ‘타자되기’를³⁵⁾ 초래한다고 보여주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몰과 로지 브라이도티의 이론에 착안해서 논의를 펼칠 것이다.

몰의 주장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의 다양한 측면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그는 주체-타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사상을 보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그의 화체설 개념을 조정하여 ‘타자되기’를 구축하면서 허수경 시학 탐구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로지 브라이도티가 형성한 ‘몸’과 되기의 대한 사상에 바탕을 두며 논의를 펼칠 것이다. 브라이도티가 말한 몸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필자에게 허수경의 시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준다. 허수경의 시를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먹는 행위가 그의 고향의식, 여성주의, 공동체의식 등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35) 나희덕은 김혜순의 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자되기’라는 용어를 쓴 바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것은 타자외의 만남을 말하면서도 ‘먹는 행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나희덕, 「‘자본세’에 시인들의 몸이 어떻게 저항하는가」, 『창작과 비평』, 180호, 봄 2020.)

지를 충분히 분석할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논의를 3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면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먹는 행위가 허수경의 시에 있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필자는 흔히 볼 수 있는 먹는 행위 이미지에 주목하면서 우선 2장에서 이것을 배고픔의 이미지, 고기를 먹는 이미지 및 카니발리즘적 이미지의 3가지로 나누어 먹는 행위 이미지를 논구한다. 이 3가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허수경의 시학에 나타난 ‘타자’는 먹는 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한 이것은 ‘타자되기’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둘째, 허수경은 사회에서 타자화된 ‘여성’을 중요한 인물로 드러낸다. 따라서 먹는 행위의 장면을 동반하는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먹는 행위를 가능케 하면서 ‘타자되기’를 촉발시키는 ‘어머니’가 자연과 함께 음식을 요리하여 먹이는 인물로서 등장한다. 필자는 시인이 역사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된 여성과 ‘어머니’를 중요한 인물로 드러내면서 ‘먹이’는 장면을 그려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는 ‘먹임’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성을 형성시킨다는 점을 발휘하고자 한다. 그 다음 ‘먹는’ 어머니에 주목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먹는 어머니의 ‘입’에 집중하면서 그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또한, 이는 타자되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함께 드러낼 것이다.

셋째, 먹는 행위는 시인의 세계관에 대한 어떤 것을 밝히는 것인가? 이를 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것들을 정리해서 먹는 행위는 시인의 방언, 여성주의, 고향의식 등에 대한 어떤 특징을 발휘하는지를 밝힌다. 4장에서는 허수경의 먹는 행위와 타자되기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조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인은 진주 방언과 서울 표준어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지, 또한, 이것이 그의 공동체의식과 고향의식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허수경의 특이한 공동체의식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결국 “기억의 공동체”를 내세우는 데에 이르게 된다고 보이고자 한다. 필자는 허수경의 시간성의 주목하여 ‘기억’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준다고 할 때, 그 과정에 먹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살핀다. 이를 통해서 본고에서 허수경의 시에 먹는

행위 이미지는 타자되기를 촉발시키는 요소로 드러내는 동시에 이것을 시인이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작용함을 그 의의로 조명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허수경의 시에서 먹는 행위 이미지를 그의 시간의식, 전쟁론, 여성주의 등의 측면과 연결시켜서 탐구하고자 한다. 본고는 허수경의 시인으로서 가치를 높이면서 먹는 행위를 통해 한국 시를 고찰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타자되기의 양상

2.1. 먹는 행위가 내재한 불평등성: 배고픔과 노동 착취

음식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부재는 어떤 권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³⁶⁾ 음식의 부재는 배고픔, 아사(餓死)와 죽음까지 발생시켜서 생명의 가장 무기력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식량부족은 사회의 차별적인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7쪽). 마르크스는 배고픔이 인간의 계급에 의해 차별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존 벨라미 포스터³⁷⁾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르크스가 음식에 대해 쓰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사실 음식의 생산, 분배와 소비를 분석하여 이것들이 식량체계(food regimes)를³⁸⁾ 구성한다고 본 최초의 사람은 마르크스였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는 음식과 관련된 농업 발전, 기후변화 및 식품생산, 가축 상태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연구하기도 했다.

존 벨라미 포스터에 따르면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영국 의료 총책임자 존 시몬이 19세기 공중위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고찰했다.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마르크스는 공업중심도시에서 노동자들이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버는 돈으로 영양소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식의 불순품(adulteration)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다. 그는 부자가 섭취하는 빵과 가난한 노동자가 먹는 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자들이 먹는 빵은 좋은 빵집에서 나왔지만 노동자가 먹는 빵은 지하에서 생산되며 오염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36) Counihan, M. Carol. 2018. *The Anthropology of Food and Body*. Routledge. 이하 이 책의 쪽수만 표기.

37) Bellamy, John Foster. 2016. "Marx as a Food Theorist." *Monthly Review: An Independent Socialist Magazine*. <https://monthlyreview.org/2016/12/01/marx-as-a-food-theorist/>

38) 식량체계 이론은 식량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마련한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말한다.

들의 식이 상태가 계급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그들을 계속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배고픔은 계급과 연관되어 있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젠더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허수경의 시를 계급의 문제와 1980년대 활발했던 노동운동과 노동문학의 상황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지관은 7,80년대부터 한국사회가 ‘산업자본주의국가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의 수도 증가되었다고 본다.³⁹⁾ 따라서 1980년대는 문학적인 차원에서 리얼리즘과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였으며 ‘노동문학’은 한 장르로서 설립되었다. 노동문학의 근원은 처음 1930년대 카프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을 이어져서 해방기, 산업화시대를 거쳐 내려왔다.⁴⁰⁾ 노동문학은 민중문학의 일부로서 평가되었으며 민중문학을 논함에 있어 민중문학의 주체, 형식 방법론과 운동론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⁴¹⁾

노동문학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학자들은 각각 의견이 다르다. 신승엽은 노동문학은 노동자의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현실의 극복에 목적을 둔 서시를 노동문학이라고 규정하지만 조정환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쓴 모든 문학을 노동문학이라고 말한다 (165쪽).⁴²⁾ 이외에도 노동문학의 정의함에 있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 계급문학으로서” 노동문학에 접근하며 “노동자의 현실 문제를 작품 속에 담아내는” 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허수경은 ‘노동자의 현실 문제’를 그의 시에서 다루었으나 그를 노동문학가 또는 그의 시를 노동문학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당대 노동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시인들 중 박노해, 김해화, 박영근과 백무산을 꼽을 수 있다. 노동시인으로서 그들은 정치 지향을 드러내며 노동

39) 윤지관, 「민중문학과 노동문학」, 『작가 세계』, 1989. 125쪽.

40)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의 정치성 — 연구자의 무의식과 노동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상호학보』, 37. 2013.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41) 박수빈은 여기서 부정기간행물 『노동과 예술』을 차용해서 노동문학과 민중문학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한다. (박수빈, 위의 논문, 167쪽.)

42) 신승엽, 「노동문학의 현단계」,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박수빈, 위의 논문, 165쪽에서 재인용)

현장의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감정을 표출했다.⁴³⁾ 허수경의 시는 노동문제를 다루지만 정치적 지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대 노동시인들과 구별된다. 1960년대 태어난 사람으로서 허수경은 60년대의 산업화와 7~80년대의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중항쟁 등의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했으며, 이것을 자신의 시에서 다룰 수밖에 없었다. 시인은 노동문제를 민중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이것이 국가와 민주주의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식민지 한국의 노동문제까지 논했다.

1989년대 발표된 첫 시집에서 허수경은 노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시 한국이 당했던 강제징용에 주목했다. 그는 스스로 1980년대 말 상황을 떠올리면서 “정치는 어두웠고 청년들은 잡혀갔고 글을 쓰는 것도, 사는 것도 검열과 단속의 시절이었”다고 말한다.⁴⁴⁾ 그는 이 시집에서 ‘조선’을 상기시키면서 일본과 당대 대통령 박정희 및 전두환의 군사 정권을 비교했다. 또한 그러한 억압 하에 수탈된 조선인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1980년대 한국 사회 문제를 드러냈다.

노동문학은 소설, 시, 여러 서사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그중에 일기 형식도 포함되어있다. 문학적 차원에서 일기는 일인칭 서사로 구성되며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형식이다. 허수경의 시에서 노동문제는 ‘수첩’ 형식으로 쓰인 시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전쟁’과 맞닿아 있는 사항이기도 한다. 이 시집의 제2부 「원폭수첩」에서 허수경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에서 피해를 입은 조선인에 대해 쓴다.⁴⁵⁾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떨어트린 원자폭탄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⁴⁶⁾ 그러나 역사에서 널리 기록되지

43) 양광준, 「1980년대 노동시의 수가 기법 연구- 되뇌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8. 2010.

44) 허수경, 「시인의 말」,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2010. 159쪽 (개정판).

45) Adam Taylor. 2016. “The forgotten story of tens of thousands of Koreans who died in Hiroshima.” *Washington Post*. 25 May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6/05/25/the-forgotten-story-of-tens-of-thousands-of-koreans-who-died-in-hiroshima/>

46) 「밀양에서 합천까지, 경남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생각한다」, 『강남피셜』.

않는 것은 히로시마에서 사망 및 실종된 7만 명의 한국인도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피폭자는 대부분 합천 지방의 사람들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합천 사람들은 강제 징용자로 히로시마에 있는 군수공장에서 노동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더불어 매일 공장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조선 식민지인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으로 목숨을 잃었다.⁴⁷⁾

『슬픔』 제2부에 수첩 식으로 실린 시가 주로 두 가지의 제목을 하고 있으며 각각 하나의 통일된 서사를 이룬다. 첫 번째는 ‘원폭수첩’이며 「원폭수첩 1」에서 「원폭수첩 7」까지 히로시마 피폭자 이야기를 전개한다. 두 번째는 ‘남강시편’이며 「남강시편 1」에서 「남강시편 5」까지 전쟁을 빠져나온 남강 민중에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처럼 12편의 시는 전쟁을 초점화하며 그것으로 인한 파멸을 드러낸다. 「원폭수첩 1」에서 피폭자 한국인 화자는 “버섯처럼 달아오르는 죽음의 잠 속으로” “씩어가는” 자신의 육신의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히로시마 지하부품공장/ 씻가루로 날리는 식민지 백성 천대에 묻혀/ 모국도 동포도 외면”했던 그를 기억할 사람이 없다. 역사에서 제외되며 극단적인 고통을 겪는 그에게 “죽음조차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삶은 죽음보다도 고통스”럽다고 선언한다. 또한, 죽음을 앞둔 그는 “죽을 때라도 아란히 취하여/ 양귀비 먹고 취”하고 싶어 한다. 즉, 먹는 행위를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려 한다. 여기서 양귀비의 역사적인 의의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귀비 생산과 소비는 일본 제국에 의해 조선에 들어온 마약 산업은 어둔 역사를 가지고 있다.⁴⁸⁾ 일본제 하에 조선은 양귀비의 생산지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역시 조선

2018. 이하 「말양에서」로 인용될 것이다.

http://www.gyeongnam.go.kr/news/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49&menuCd=DOM_000001603004000000&startPage=1&dataSid=4081525

47) 「말양에서」, 앞의 글을 참조.

48) Jennings, John M. 1995. "The Forgotten Plague: Opium and Narcotics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1910-1945." *Modern Asian Studies* 29, no. 4. Accessed April 28, 2020. www.jstor.org/stable/312805.

인이었다. 1905년 양귀비를 재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조치를 취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문제는 계속되었다. 허수경은 이러한 폭력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식민지 시대 때 한국인 겪었던 아픔을 그려낸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시대 또한 수탈과 착취가 계속되었고, 마약과 술이 음식을 대체했다. 다시 말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이 부재한 시대에 생명유지능력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이 소환되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나면 돌아오지 않으리/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리/ 식민지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끝을 맺는다. 그는 “사람” 또한 “식민지 백성”으로 돌아오는 운명이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으로 어떤 존재든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밀려오는 복통으로 잠 못 이뤄 통통
부은 두 다리 주무르는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 원폭의 밤

칠흑 같은 어둠 저 너머
소녀는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십만 목숨이
일거에 도륙되던 그날
번쩍이는 섬광 눈부신 불길이 오르고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트럭 콩무니에 매달려 애원하던 소녀
온몸에 불을 뒤집어쓰고
남은 숨 모두어
통곡하던 소녀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

허수경은 「원폭수첩 2」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다시금 주목하여 그날의 공포를 그려낸다. 그는 그날에 사망한 수많은 한국인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날을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 원폭의 밤”이라고 부른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십만 목숨이/일거에 도륙되던 그날”에 투하한 폭탄으로 인해 “섬광 눈부신 불길이 오르고” 모든 생명이 끝을 맺었다. “트럭은 시체를 싣고” 죽은 피폭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니지 않고 “원폭의 도륙보다 더 짐승 같은 /도륙”을 시행하여 죽은 자를 “바다에 버리고 불로 태우고” 추방했다. 이처럼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낳는다. 그러나 그 “칠 흑 같은 어둠” 속에도 끝까지 죽음에 예속되지 않는 소녀가 있다. 강인한 민중의 생명을 표상하는 소녀는 죽음과 맞싸우고 있다.

“온몸에 불을 뒤집어쓰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남은 숨 모두” 내고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라고 애원하여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며 강한 생명의식을 드러낸다. 결국 살아남지 못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소녀의 삶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원폭이 아니라 그를 살리지 않았던 일본제국이다. 그 소녀가 그 순간 히로시마에 있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실시한 교육정책에 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벌어진 후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총동원을 1938년 ‘국가총동원법’으로부터 시작했다.⁴⁹⁾

‘강제노역동원’은 일본제국권 지역 모두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본 제국은 곧 노동력을 “근로보국대로” 수렴하고 초등학생들에서부터 대학원생까지 모두를 근로동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일본 제국이 통제하는 국가기구 학교에서 “‘국민’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교육받고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노동자이자 예비 군인이었”⁵⁰⁾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양성교육을 받았다.

49) 전성현, 「일제말기 경남지역 근로보국대와 국내노무동원 학생 노동력 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5, 2015 참조.

50) 3년 걸쳐 연세대학교에서 실행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일본 제국이 교육정책을 통해서 그가 불러일으킨 전쟁에 도움이 되도록 어떤 식으로 변경

그래서 “노동자인 한편 ‘예비군인’으로 양상하기 위해 학교교육이 변화되고 학교가 병영화되었으며, 마침내 수업이 정지되어 학교기능이 마비되었다.”⁵¹⁾

학도보국대 미쓰비시 군수공장 잡역부
검은 몸뻐 목노발
검은 밥에 소금국
눈부신 꽃세월 마른버짐으로 피어나던
조선 소녀여

허수경, 「원폭수첩 2」, 『슬픔』중에서 (부분)

허수경이 말한 “소녀”는 그러한 학생을 표방하며, 시에서 “학도보국대 미쓰비시 군수공장 잡역부”에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일본 회사 미쓰비시는 당대 강제노역에 의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해방 후 21세기에도 미쓰비시 강제노역에 관한 투쟁이 계속되어 간다.⁵²⁾ 미쓰비시는 조선인에게 강제 연행을 시켰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는 것으로 보도된다.⁵³⁾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를 다시 살펴보면 히로시마에 폭탄이 투하된 후 조선인 피해자들에게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피폭현장에 방치했”다는 (86쪽) 사실이 드러난다. 허수경의 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었다. “눈부신 꽃세월 마른버짐

했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상의, 「전쟁과 학교 - 일제강점 말기의 학생동원과 학교교육」, 2012, 연세대학교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참조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37826

51) 이상의, 위의 연구 참조.

52) Lee, Joyce. 2019. “South Korean forced labor victims to seek Japan's Mitsubishi asset sale.” *Reuters*. July 16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japan-laborers-mhi/south-korean-forced-labor-victims-to-seek-japans-mitsubishi-asset-sale-idUSKCN1UB0HO>

53) 송규진,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아시아문화연구』, 46, 2018. 85쪽.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으로 피어나던/조선 소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검은 몸뻐 목노발”을 입고 “검은 밥에 소금국”을 올려다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소녀는 결국 폭탄으로 인생을 잃고 말았다. 배경식에 따르면 “재일 노동자 대부분이 비참한 생활을 했”으며 특히 하루별이를 하는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먹기 고약한 안남미 밥에다가 썩은 단무지 몇 쪽, 그리고 소금국이 변함없는 우리 식사였다.”⁵⁴⁾ 따라서 많은 조선인은 각기병에 걸려 “근육이 마비되거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처럼 인간에게 먹는 행위가 생물학적인 욕구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세계 차별주의적인 체계로 관리된다. 일제강점기 때 생명에 필요한 음식 섭취를 통제하면서 일본 제국은 조선인을 연약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생명을 관리하여 통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생명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민 국가는 인구의 통제, 관리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한다. 그러한 삶과 죽음의 관리, 통제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항의식이 살아남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녀의 “애원”은 그러한 규정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시에서 타자되기가 미완성된 상태를 보인다. 제국에 의해서나 자본주의적 체계에 의해 타자화된 사람들은 먹음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다. 이 둘 사이에 접촉은커녕 타자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자되기는 이 시집의 뒤를 이은 시집에서 발전해 가면서 더 완성한 모습을 보인다.

2번째 시집 『혼자』(1992)에 나온 「마치 꿈꾸는 것처럼」에서 허수경은 여성 성노동자에 주목하여 배고픔의 문제를 탐색한다. 허수경이 드러낸 성매매 여성은 몸보다 “마음”을 섞고 싶어 하는 인물이며 자신의 직업을 “나”와 “너”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는 성노동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보다 이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단지 몸의 주고받음으로서 아니라 “너의 마음 곁에 나의 마음이 눕는다”고 하여 나와 타자와의 마음을 섞으려 한다. 또한, ‘너’와

54)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 대일본 제국의 모던 보이는 어떻게 한 아내국단 제1호가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6.

‘나’는 마음을 섞어야 서로 간의 ‘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결합을 원하는 화자는 현실에 직면한 듯 곧 “인생이 아무려나 병가를 낼 수 있으려고” 라며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의 순환이 “바퀴”처럼 계속되어가 “햇살”도 “술”처럼 느껴져 세상이 어지러운 듯하다. 그는 “대마잎을 말아 피던 기억이 왠지 봄햇살 속엔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여 “마음끼리 살 섞는 방법은 없을까” 묻는다. 마음보다도 돈과 욕망이 세상을 움직여 이제 아픈 여자는 “쌀 한줌”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판다. 화자는 마음에 호소하여 “네 마음은 이미 떠났니? 내 마음아, 너도 진정 가는 거니?”라고 하여 육체보다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마음의 언어가 통하지 못하여 화자는 자신의 몸을 팔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장면에서 화자는 “돌아가”서 밥을 먹는다고 말할 때 분명해진다. 그는 “돌아가 밥을 한술 해놓고 술을 허벅지에 끼고 먹고 싶다”고 말하며 이것을 “마치 꿈처럼 / 잠드는 것처럼/죽는다는 것처럼” 경험된다고 말한다. 그에게 먹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꿈처럼, 잠과 죽음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잠’과 ‘죽음’을 동일시한다.

여기서 돋보인 것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상품화시켜야 생명을 지탱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 내지는 성 노동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자본주의 하에 모두 존재는 손익, 수요와 공급과의 관계에서 정의되며 상품화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상품물신성 commodity fetish”이라고 말했다. 상품물신성이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로서 아니라 상품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여성 몸은 상품이 되어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상품화된 정체성에 반박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조했다. 마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여도 그것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허수경은 성매매 여성에 주목해서 가난을 계급의 문제로서만 아니라 젠더와 관련된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젠더적 차원은 마르크스 이론에서 널리 논의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근대 페미니즘의 시각을 온전히 갖추지 않았으나 그것의 기

들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맥개논에 따르면,⁵⁵⁾ 페미니즘에서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젠더 역할로서 구축된 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마르크스에게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없었다. 여성은 사회로부터 아니라 생물학으로부터 정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성은 사회적 분석이 될 수 없는 산물이었다. 그러나, 계인은 마르크스를 생물학적 결정론에 입각한 사람으로 보는 데 오독이 있다고 반박한다 (169쪽). 『자본』에서 명확히 드러나 듯이 마르크스는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여 각 인간이 점유하는 사회적 위치를 파악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분석했다. 계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여성이 부여받는 사회적 의미를 탐구했다. 사회에서 여성이 주부, 부인, 동산,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시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러한 배치의 이유를 생물학에 아니라 사회구성에 찾았다. 즉, 마르크스가 여성을 생물학적인 존재로서만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노동자를 남성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비판되어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⁵⁶⁾

사회 및 페미니즘에서도 성매매는 늘 부정적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이에 관한 비판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성노동자들은 성노동을 다른 직업과 동일시시켜 동등함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 ‘노동’이란 말은 행위성과 권한을 부여받는 용어가 됨을 볼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스티그마를 없애려 노력해

55) 철학자 필립 제이 계인 Philip J. Kain은 그의 안티-칸트식의 논의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 차용한 논문에서 계인은 미국 급진적 철학자 겸 변호사인 캐서린 맥개논 Catherine MacKinnon의 주장을 빌려 그것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맥개논가 마르크스는 안티-페미니스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인은 이를 반박하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Kain, Philip J. 1999. "Modern Feminism and Marx." *Studies in Soviet Thought*, Vol. 44, No. 3, https://www.jstor.org/stable/20099476#metadata_info_tab_contents). 이하 쪽수만 표기.

56) 마르크스는 여성을 자신의 이론에서 제외시켰다는 고발당한 바 많았으며, 이것에 관한 논쟁이 20세기 말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ohen, Margaret. 1991. "The Most Suffering Class": Gender, Class, and Consciousness in Pre-Marxist France", *boundary 2*, Vol 18, No.2. <https://www.jstor.org/stable/303278>)

왔음에도 사회는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성노동자가 되었다는 오해가 그들의 노동을 부정한다.⁵⁷⁾ 앞서 언급했듯이 허수경의 여성주의는 초기 시에서 전통적인 모습을 갖춘 것으로 그려낸다. 그는 「저무는 봄밤」에서도 배고픔으로 인해 몸을 파는 아이에 대해 썼다.

「저무는 봄밤」에서 화자는 “봉천본동 개나라 누런 바람/ 그해는 유난히 배가 고평”다고 말한다. 배고픔으로 인해 자신의 “하초를 벌린” 애와 “그애 방에 자주 오던 아저씨들”과 “봄밤”과 “그애를 거두어갔다면/ 하수도 치는 늑다리 총각 절룩이는 그의/ 황사 같은 반쪽 다리도” 아프다고 밝힌다. 이 시에서 허수경은 아동 성매매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뿐만 아니라 착취의 순환을 드러냈다. 아이의 배고픔과 착취는 그에 그치지 않고 그를 폭행하는 아저씨와 성매매를 운영하는 “늑다리 총각”에게도 폭력의 흔적이 배고픔으로 나타난다. 그 배고픔은 음식 섭취의 배고픔만 아니라 욕망의 배고픔을 의미하고 있기도 한다. 세계 전체가 배고픔으로 인해 서로 죽이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폭력과 착취에 대한 문제는 『내 영혼』에서 이어진다.

2001년에 출간된 『내 영혼』은 “1992년 허수경의 시인이 작은 배낭 하나만 둘러메고 독일 유학을”⁵⁸⁾ 떠난 후 간행한 첫 시집이었다. 따라서 이 시집에서 고고학적인 시각의 첫 흔적과 전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인은 이 시집에서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시에 그려냄으로써 그가 경험했던 유럽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독일 혹은 외국에 관한 관심이란 시인이 모국을 잊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곳을 늘 시에 다루었다. 또한, 그는 외국에서 접한 것들을 자신이 한국에서 살아온 삶 속에서 보았다. 「베를린에서 전태일을 보았다」는 모국을

57) Overall, Christine.1992. “What’s Wrong with Prostitution? Evaluating Sex Work.” *Signs*, Vol 17, No 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g705-724.

58) 이문재, 「[문학] 아주 그로테스크한 영혼/허수경의 시집」, 『시사저널』, 2001.

통해서 비추어 본 유럽과 그곳의 사람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로 평가될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열사 전태일을 상기시키면서 노동문제와 모국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에, 이 시는 ‘베를린’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모국과 대립되는 ‘외국’을 나타낸다. 그리고 외국과 모국의 이러한 병치는 두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노동문제를 드러낼 것이라는 견해를 시사한다.

여기서 베를린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베를린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두 개로 단절된 도시였으며, 베를린 장벽은 그러한 이념적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지리적으로 그려내는 경계였다. 또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소련 사회주의 몰락과 냉전 시대의 끝을 표시한 장소이자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승리를 상기시킨다.

시의 제목에서부터 시인은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알 수 있으나, 사실상 그는 이 시에서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드러내기도 한다. 2005년 『모래도시』에서 허수경은 90년대 후반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실습생으로 일”했다 (116쪽). 그는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일하다가 목격한 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허수경은 같은 시기 파리에 “논문을 쓰기 위한 밑바탕 연구를 하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동안 체류”(122쪽)했으며, 그 “박물관으로 일을 하러 가는 동안” 매일 어떤 “여자”를 보았다 (123쪽). 이 “여자”는 시에서 등장한 ‘여자’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는 허수경이 두 박물관에서 일하다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시다.

그해 겨울 나는
이 도시의 가장 큰 박물관에 있는
가장 작은 지하방에 있었다

1.

고향에서 강제로 이주된 늙은 신들은 지상 전시실에서 눈동자

없는 눈으로 흉곽을 들여다 보고 있다 세계는 아직 점자가 아니고
눈동자없는 눈으로 살피야 할 세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가자,
가자, 늙은 신들은 발목 없는 말을 재촉한다 지상전시실 입장료는
4마르크이다

허수경, 「베를린에서 전태일을 보았다」, 『내 영혼』 (부분)

위 인용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허수경은 박물관 “지상 전시실”에 전시된 신들의 조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페르가몬 박물관의 ‘지상층’과 ‘지하층’의 차이에 주목하며 지상층이란, “어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즉 보여질 만한 유물들이 모여 있는 곳”⁵⁹⁾이었으며 지하층은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자 박물관이 지상층으로 곧 보낼 물건들을 “소중하고 있”는 (119쪽) 장소였다. 또한, 지상층이 정치적인 힘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한다고 보여준다. 시에서 등장한 신들이 서소아시아에서 1878년 독일인 칼 휴먼에 의해 발견된 “페르가몬 신전을 장식하던 벽 조각들, 신전의 벽을 떼내어 복원한” (117쪽) 조상들이다. 터키에서 발굴된 페르가몬을 독일에 있는 베를린으로 옮기는 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혀진다. 당대 독일 황제였던 빌헬름 2세는 독일을 유럽의 문화적 수도로 알려져 있었던 파리에 앞세우기 위해서 터키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와 상의하여 페르가몬의 조각을 독일로 옮기게 했다 (118쪽). 허수경이 “거대한 유럽 박물관들의 ‘지상층’은 이런 현실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상층에서 보이는 “물건들은 정치 권력의 허깨비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다시 주목해 보면 “고향에서 강제로 이주된 늙은 신들은” 박물관의 “지상 전시실에서 눈동자/ 없는 눈으로 흉곽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으로써 시인은 신들이 본래의 의미와 분열되어서 새로운 장소에 단지 관람하기 위해서 전시되었다고 밝힌다. 즉, 신들이 본래의 장소에서 뺏겨 박물관이란 제국주의적인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소유가 될 수 있는 상품에 불

59) 허수경은 “페르가몬은, 지금은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서소아시아에 있는, 헬레니즘 시대에 강했던 도시이었다”라고 말한다. (허수경, 『모래도시』, 116쪽)

과하게 된다고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허수경은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시인이 박물관에 있는 “신들은 소아시아에 있던 페르가몬이라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 옮겨졌다는 것을 제국주의적인 폭력 혹은 권력적인 행위로 아니라 ‘입양’으로 파악한다. 그가 이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따뜻하고 잘 보살펴주는 유럽가족으로 입양된” 행위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시인이 따뜻한 유럽가족으로 입양된 이들을 “아이들이여”라고 부르며 새 가족 “안에서 행복하기를, 고향을 묻지 말기를” (118쪽) 애원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러한 애원은 시인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주와 온전히 단절된 외국 도시에 있는 허수경은 박물관에 있는 신과 같은 혼돈을 겪는다. 그의 본래의 의미는 고향 진주에서 유래되는데 그러한 의미와 분열되어 외국에서 생활을 그가 정체상실을 경험한다. “고향을 묻지 말”라는 애원은 그가 자신에게 하는 애원이었을 것이다.

2.

러시아에서 온 아낙들이 박물관 앞에서 붉은 별이 선명한
군용 모자를 판다 그리스정교의 성모가 작은 조갑지같은 박분통
안에 들어있다 그들의 사제 중 하나가 성모를 위해 착한 시간을
바쳤다 5마르크에 그 시간을 살 수 있다

3.

덜커덩, 전차가 지나간다
후루룩 국수를 먹는다
월남에서 온 키작은 남자가 노랗게 볶은 국수를 판다 고기를
넣으면 4마르크, 고기를 넣지 않으면 3마르크이다

허수경, 「베를린에서 전태일을 보았다」, 『내 영혼』, (부분)

박물관 안을 묘사했던 화자가 박물관 바깥으로 눈길을 돌린다. 박물관

바깥에 다문화적 인종, 이데올로기와 음식들이 있다. 러시아에서 온 여자들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별이 선명한/ 군용 묘자를” 팔고 있으며 그리스정교의 사제들도 박물관 앞에 모여 있다. 또한, 근처에 “월남에서 온 키작은 남자가 노랗게 볶은 국수를 판다.” 박물관의 바깥 환경이 박물관의 안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밖에서 목격되는 수많은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음식들이 소중한 존재들이며 박물관 안에 복원되는 소중한 물건들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박물관은 “기억”의 장소이다. 여기서 ‘음식’은 중요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허수경은 여기서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며 서구 독일 박물관 밖에 “월남에서 온 키작은 남자”에 대해 쓴다. 월남 남자는 전태일의 분신으로 나타나며 추운 날씨에 “노랗게 볶은 국수를” “고기를/ 넣으며 4마르크, 고기를 넣지 않으며 3마아르크”로 팔고 있다. 월남에서 온 남자는 전태일로 비유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고작 삼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국수를 외국에서 팔면서 돈을 벌리는 노동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마르크는 여기서 자본주의 하에 그 노동자의 가치가 가라앉은 채 모든 것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는 상품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수경은 자신이 파리 루브르에서 일하다가 매일 점심을 먹으러 찾아가곤 했던 초밥집에서 마주치던 여자에 대해 말한다. 가난한 여자는 “작은 가방” 하나 매고 “씻지 못한” 몸을 가진 사람이자 “이 세계를 다 겪어낸 피곤한 얼굴을” (123쪽) 한 사람이다. 허수경은 가난한 여자에게 돈을 건네고 싶어하지만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이유에 대해 시인은 “그 여자에게 그런 표정을 선물한 세계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다”고 밝힌다. 그 여자가 겪고 있는 세상 또는 가난은 체계적인 문제들에 의한 것임을 시인 자신도 알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체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시인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도 자본주의 하에 모두가 어떻게든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전철 안에서 전쟁을 피해온 가수” 겸 ‘난민’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난민이 많이 들어온 나라이다. “입 안

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있는 난민 가수 몸에 전쟁의 기억들이 배어 있다. 또한, “탱크 안에는 목 잘린 태아가 웅크리고 있”으며 “1마르크에/ 태아를 구경할 수 있다.” 즉, 돈에 의해 폭력도 전시될 수 있는 상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입”이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입 안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있다는 표현에서는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입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지게 하는 ‘장치’이자 현재에서 과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이기도 한다. 둘째, 대부분의 동물과 인간에게 “입”이 먹는 행위의 장소이다. 또한, 먹는 행위는 생명 지속과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먹음은 죽음을 낳는다. 다시 말해, 이 시에서 “입”이란 과거에 닿을 수 있는 도구이자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5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수는 과거의 공포에 휩쓸리며 술에 중독되고 곧 죽음을 맞이한다. 먹는 행위의 이미지는 배고픔의 이미지로 확대된다.

4.

도시전철 안에서 전쟁을 피해온 가수는 노래한다 그의 입 안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탱크 안에는 목 잘린 태아가 웅크리고 있다 1마르크에
태아를 구경할 수 있다

5.

그의 얼굴은 희다 입술은 붉다 분주한 아침길 맥주를 들고
버스정류장에 앉아 그는 멀거니 세상을 들여다 본다 바쁜
세상의 아침을 축복할 수 있을까, 맥주가 있는 한 우리는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1마르크 20 페니히이다

6.

병원 문을 두드린다 살려주세요 허연 수술칼을 든 검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7.

장례식이 있는 날은 유난히 맑다 사람들 사이로 배고픈 검은 개가 서성인다
묘지가 있는 공원 앞에서 한다발 꽃을 얻는다 4마르크 50 페니히이다

허수경, 「베를린에서 전태일을 보았다」, 『내 영혼』, (부분)

죽은 가수에게 “한다발 꽃을” 바치기 위해서도 “4마르크 50/페니히”를

내어야 명복을 빌 수 있다. 또한, 장례식에서 어떤 “배고픈 검은 개가 서성인다.” 이해원은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색깔을 분석하며 검은 색이 폭력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⁶⁰⁾ 여기서 검은 개가 폭력을 상징하다고 할 때, 그 폭력은 단지 죽은 자가 과거에서 겪었던 폭력을 의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또는 미래에서 되뇌게 되는 ‘있는 행위’의 폭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배고픔”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앞서 말했듯이 배고픔은 생명적 본능 또한 권력이 통제된 것이다. 이 시에서 드러난 배고픔은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정신적 배고픔이다. 과거의 폭력이 배고픈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수의 생명을 앗아간 후에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영혼이 배고픈 개의 모습을 취하여 다시 돌아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살아있었을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존재인 가수가 이제 배고픈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즉, 어떤 모습을 취하든 그는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은 허수경이 파리 초밥집 근처에서 만났던 여자를 상기키기도 한다.

시인은 그 배고프고 가난한 여자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 검은 개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시인은 초밥집 근처에 있는 가난한 여자를 돕지 못했다. 따라서 음식이 풍부한 초밥집과 그 옆에 앉은 배고픈 여자의 이미지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낸다.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식량부족 때문에 아니라 체계적인 폭력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이 부각된다. 그래서 허수경이 베를린에서 전태일을 보았다고 했을 때 전태일은 그 가난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시에서 전태일은 그 어느 한 명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 월남 남자, 검은 개 또는 죽은 가수까지 포함한다.

전태일은 1948년에 태어났으며 60년대 서울 평화시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당한 착취를 목격하고 그에 반대한 노동운동가였다. 1970년대는 노동운동의 변혁적인 시작의 시기였으며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대 앞선 생각과 사상을 가진 노동가로서 그는 여성 생리휴

60) 이해원, 「전쟁 표상」, 앞의 논문.

가를 요구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슬로건 하에 인간을 기계로 만든 자본주의적 체계에 반동했다. 그는 23살 나이에 1970년 11월 13일에 분신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운동의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1980년대에도 여러 번 실행되었다.”⁶¹⁾ 이로써 노동문제를 조명했으며 이에 따라 평화시장의 청계복노조가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태일 열사는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전태일 열사의 이타적인 삶을 허수경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에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은 시에서 배고픔과 배부름의 이미지 대비시켜서 사람들의 냉정한 무관심을 강조한다. 또한, 이 폭력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먼 옛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박물과 “지하복도에 서서 기침을 하면 개짖는 소리같은 기침소리가 목으로/ 다시 기어들어온다 지하복도에서 빵을 먹는다 80페니히, 건포도빵이다.” 음식이 생명 지탱하는 요소로서 아니라 단지 돈에 의해 그것에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자본주의 하에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음식을 먹는 문제도 사회적 구조와 폭력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배고픔은 허수경에게 중요한 문제였으며, 그는 이를 여러 관점에 입각해서 탐색했다. 그러나, 그에게 ‘음식’ 혹은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중요한 화두가 된다. 그는 먹는 행위를 인간 사이에서 생겨나는 어떤 행동에 국한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에 다른 생명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들이 인간 ‘식사’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검토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다른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문제로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61) 박수빈, 앞의 논문, 179쪽.

2.2. 먹는 행위와 인간중심주의: 육식에 대한 비판

허수경은 먹는 행위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면서 주체-타자라는 문제를 새롭게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기를 먹는 관습에 주목하는데, 특히 자본주의에 의해 육식이 동물을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육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처음 목격되는 것은 세 번째 시집 『내 영혼』으로, 이 시집은 허수경의 재독 10년 후 나온 첫 작품이다. 여기에서 허수경의 시적 세계는 큰 변화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원⁶²⁾은 “역사성과 향토색이 짙었던 그녀의 시는 훨씬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육식 문화에 대한 허수경의 사상도 변화를 보인다.

허수경은 유럽에서 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안들을 알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흥미롭게도, 그가 독일에 처음 들어간 시기는 1990년대로, 이때부터 유럽 연합은 동물권리를 보호하는 강한 규칙을 채택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에 채택한 ‘의정서’가 주목할 만하다. 이 의정서에 의해 동물들은 비로소 재산이 아닌 ‘직각(直覺)과 유정(有情)’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⁶³⁾ 이후 1998년 유럽 연합은 동물 보호 권리를 강화했으며, 2001년 독일은 유일하게 동물들이 헌법의 보호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변화가 허수경의 재독 기간에 일어났던 만큼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이 시에 반영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속도로 위에 새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새의 살을 들고 가서 누구도 삶지 않았다

62) 이해원, 「‘나’의 직각」, 18쪽.

63) Nicholas K. Pedersen, “Detailed Discussion of European Animal Welfare Laws 2003 to Present: Explaining the Downturn.” The Animal Legal and Historical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2009.

우연히 죽은 새는 아무도 먹지 않네

살해당한 새만 먹을 수 있네

허수경, 「우연한 나의」, 『내 영혼』 중에서 (부분)

『내 영혼』에 실린 「우연한 나의」는 죽은 ‘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어떤 대상을 고기로 인식하고 그것을 섭취하는 데 작동하는 ‘논리’를 해체한다. 이것은 ‘우연한’ 죽음과 ‘의도’된 죽음의 대립을 통해 드러난다. 화자는 “내 마을은 우연한 나의 자연/ 내 말은 우연한 나의 자연”이라고 하며 ‘언어’, ‘자연’과 ‘마을 생활’의 삼각 구도를 구축한다. 이렇듯 ‘우연한’ 것들에 의해 인간은 정체성을 부여받지만 먹는 관습에서는 이러한 ‘우연함’이 무시된다. 이 점은 차에 부딪쳐서 죽은 새를 통해 드러난다. 화자는 우연히 죽어간 새를 아무도 “삶지 않”으며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은 “살해당한” 존재, 즉 죽임당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우연하지 않은 존재만 섭취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우연히 죽은 것을 먹지 않는 데에는 자본주의적인 식탐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한편, 로지 브라이도티가 말한 ‘금기’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먼저 자본주의의 논리에 주목해보자. 자본주의는 동물의 죽음에 위계질서를 구축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생산은 필요가 아닌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생산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초월하여 ‘생산 과잉’을 야기한다.⁶⁴⁾ 이것은 식육산업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식육산업은 환경 보호주의자 및 동물권리 운동가로부터 동물에 대한 폭력을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이들에 따르면 과밀한 상태에서 키워지며 강제 사육당하는 닭, 소, 돼지 등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문당한다.

64) Canterbury, Ray E. 1987. “A Theory of Supra-Surplus Capitalism.” *Eastern Economic Journal*. Vol. 13, No. 4. www.jstor.org/stable/40325149

허수경 역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다. 그의 시는 인간이 ‘우연히’ 죽은 새를 먹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식육산업에 의해 고문과 ‘살해’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임을 드러낸다. 만약 새가 ‘우연히’ 죽지 않았고 산업화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인간은 그 고기를 먹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금기의 문제에 주목해본다면, 이것은 ‘경계’의 문제로 전개된다. 세계의 많은 문화에는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 관습이 있다. 고기가 오염되거나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차이’이자, 인간을 ‘인간’이라는 범주로 구분하는 ‘경계’를 이룬다. 만약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을 먹는다면 인간은 그 동물과 ‘접촉’하게 되며, 자신을 자연, 언어와 분리하는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주목할 점은, 허수경이 육식 문화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시인은 다만 ‘의도’적으로 동물을 죽여서 먹는 풍습을 비판한다. 이 점은 시인이 ‘죽음’을 ‘살해’와 차별화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시인은 ‘죽음’을 ‘우연함’의 차원과 연관 짓는 한편, ‘살해’를 ‘의도’의 차원과 연관 짓는다. 이와 더불어 시인은 죽음을 긍정하고 살해를 부정하면서 두 개념을 대립시킨다. 이는 우연히 죽은 것은 먹어도 된다는 견해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죽음’과 ‘우연’의 관계가 대립되면서도 ‘우연’이 ‘살해’에 비해서 저평가되면서 어떤 ‘위계 관계’를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새(또는 다른 동물의 몸에) 역시 어떤 위계 관계를 떠맡게 된다. 새 혹은 다른 동물이 이렇듯 인간에 의해 많은 의미를 잃어지게 되는 이유는 다름아닌 그들의 ‘타자성’에 있다.

동물은 인간에 의해 타자화되기 때문에 먹음의 대상이 된다. 인간이 식인행위를 부정하는 이유도, 다른 인간을 주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우연과 의도라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면, 동물을 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는 ‘타자되기’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토대를 마련한 시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자에게는 먹는 행위가 아니라 ‘살인’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살해를 기초로 하고 있지 않은 먹는 행위는 긍정적인 것을 표방하며, 그것으

로써 인간은 자연에 속할 수 있다. 또한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우연과 의도’,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경계를 깨트리고 이들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그 스스로가 동물이 되어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이 시집은 이러한 사상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시인은 특히 ‘토끼’를 통해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폭력을 탐구한다. 토끼와 동물의 죽음을 탐색하는 시편들은 시집의 제4부를 지배한다.

「누런 달 아래 있는 놀이터」(이하 「누런」)에서 화자는 ‘토끼’가 아이들과 같이 “놀이터에서” 논다고 묘사하면서 토끼를 의인화하고, 때로는 토끼를 아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서 앞서 보았던 ‘새’와 유사하게 ‘죽음’을 당한 토끼가 나타난다. 아이들과 마음껏 놀고 나서 “저녁에” 모두가 집에 돌아간 후 토끼만 홀로 “모래밭으로 간다/ 드디어 모래 속으로” 가지만, 모래 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토끼의 피가 모래밭으로 흘러 “피는 살을 버리고/ 마디마디 끊어진 뼈와 알갱이로 된 피뿐인 토끼”는 모래밭과 하나가 된다. 화자는 토끼를 부르려고 하지만 “토끼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커다란 비닐 위/ 공중에 매달린 둥근 비닐”인 달 위에서 토끼는 아이들과 미끄럼을 타던 것처럼 사후에도 “터엉/ 터엉/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이 시에서 언급되는 ‘비닐’이라는 단어는 이후의 시편에서 비닐봉투에 ‘담아간’ 토끼 고기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만큼, 여기서도 토끼는 그렇듯 죽음을 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누런」에서 시인은 토끼를 아이에 비유하기 때문에, 이후의 시편에도 등장하는 토끼는 아이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토끼가 당하는 폭력은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비행기는 추락하고」에서 시인은 죽은 토끼의 이미지를 일깨우면서 전쟁의 폭력을 드러낸다. 바로 이 과정에서 ‘되기’가 언급된다.

「비행기는 추락하고」에서는 제목부터 폭력의 서사가 암시되며, 전쟁에 의해 죽은 자와 그로 인해 피해 당한 자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지령이 되고 여치 되고 쇠스랑 되”면서 평생을 보낸다. 즉, ‘되기’는 인간이 스스로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성에서 벗어난 비인간적 상태를 나타내

기도 한다. 시인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들을 그려내며, 그들을 “냉동관 안” “얼어 있는” 토끼의 이미지와 대비시킨다. 이렇듯 아동 노동자들을 냉동 토끼고기 식품에 비유하면서 ‘얼어 있는’ 멈춘 시간, 멈춘 삶의 상태가 드러난다. “성에”를 제거하는 것은 그들을 냉동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이자 ‘먹음’을 앞서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먹는 행위는 이 시에서 부정적 의미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 토끼가 걸려 있네
털도 가죽도 다 벗기우고 별걸매 매달려 있네

털과 가죽은 아가들에게로 가서 귀를 덮어 주었지요
고기는 누군가 바구니에 담아갔고요

먼 바다 굴뚝에서 토끼를 제사 지낸 연기가 피어올랐네

오늘은 기름 넣으러 왔어요, 의젓한 척 토끼는 차 안에
앉아 있다 주유소 주인 토끼를 흘깃 보고 혼잣말을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게 거들먹거리네

차 안에 앉아 있던 토끼, 찡긋 웃으며 별건 몸을 가스통
에 던진다

폭발하니 토끼야?
그럼!

그러지 말지...

우는 토끼를 달래네
먼 바다 거북 눈을 껌벅거리며 연기를 바라보네

허수경, 「폭발하니 토끼야!」, 『내 영혼』중에서 (전문)

「폭발하니 토끼야!」에서 시인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순진함과 무죄함을 표상하는 ‘토끼’에 주목하면서 육식 문화를 그려낸다. 시장에 “걸려 있”는 토끼는 “털도 가죽도 다 벗기우고 별걸게 매달려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여기서 ‘벗기우고’라는 단어는 토끼를 의인화하면서 ‘벗긴’ 몸이 당한 ‘폭력’과 ‘수치심’을 드러낸다.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원래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식으로 활용되지만, 허수경은 이 용어를 동물에 적용함으로써 탈인간중심화한다. 이를 인간 수치심shame에 대한 최근의 연구와 연결할 때 흥미로운 측면을 찾을 수 있다.

라캉과 프로이트는 ‘수치심’이란 인간과 동물을 차별화하는 요소라고 보았는데,⁶⁵⁾ 그들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수치심은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칼리 바일Karli Weil은 수치심이란 ‘자의식’과 신체 혹은 개체의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에 기댄다고 주장한다(42쪽). 그는 남아프리카 작가 존 맥스웰 콧시Coetzee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수치심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대감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는 수치심이란 우리 알몸의 사실이며 감추더라도 초월할 수 없는 우리 신체의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수치심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과 공감하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투사project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인간은 자신의 불안, 아픔, 수치심 등을 동물에게로 돌림으로써 그들도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판단하며 연대감을 형성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수치심이 인간의 정서인 동시에,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정서라는 점이다. 「폭발하니 토끼야!」에서도 화자는 토끼의 가죽 ‘벗긴’ 몸을 드러내면서 독자가 지닌 수치심의 기억을 자극하며 토끼와 공감하게끔 만들고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다.

김신정은⁶⁶⁾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타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인이 ‘동

65) Weil, Karli. 2012. *Thinking Animals—Why Animal Studies now?*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병기.

66) 김신정, 「소멸의 운명을 살아가는 여성의 노래 -허수경과 김수영의 시」, 『실

감'을 중요한 도구로 나타내고 사람들 간의 연대를 내세운다고 설명한다. 김신정은 에밀 슈타이거가 명작 『시학의 근본 개념』에서 내세운 “상호 융화” 개념에 착안하여 논의를 펼친다. 그에 따르면 상호 융화는 “‘동감’ sympathie”(246쪽)에 바탕을 둔다. “동감 또는 공감이란 타자와 통합하는 능력이”며, “자아가 타자를 향해 경계를 허물며 소멸해 들어갈 때, 소멸을 전제로 한 서로의 소통이 ‘융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바일과 김신정의 논의 속에서 허수경의 시를 볼 때, ‘동감’은 주체와 타자의 거리를 줄이는 중요한 장치로 나타난다. 인간은 동물과의 ‘동감’을 통해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타자가 되면서’ 동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토끼 시체의 부분 부분이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꼼꼼히 나타낼 때 그것이 내포하는 공포가 자극된다. “털과 가죽은 아가들에게로 가서 귀를 덮”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고기는 누군가 바구니에 담아”가면서 인간에게 수용된다. 즉 토끼의 죽음이 상품화됨으로써 인간은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인간은 ‘죽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끼의 ‘죽음’은 먼 바다에서 토끼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만 의미화된다.

인간에게 토끼는 섭취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토끼도 알고 있다. 토끼는 자신의 주체성을 재획득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 “기름 넣으러 왔”다고 말하는 토끼에게 주유소 주인은 “한 줌도 안 되는 게 거들먹거리”라며 탄식한다. 하지만 토끼는 고작 “쌍극 웃으며” 털 뽑힌 자신의 “별건 몸을 가스통에” 던져 자신을 주체화한다. 이렇듯 인간으로부터 타자화된 먹을거리가 되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인간의 폭력적인 탐욕을 고발한다. 죽어가는 토끼는 “먼 바다 거북 눈을 껌벅거리며 연기를 바라보”면서 죽는다.

허수경은 인간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동물들을 종종 불러온다. 그의 4번째 시집인 『청동』에서는 많이 목격할 수 없으나, 마지막 두 권의 시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동』에서 육식에 대한 비판 혹은 고찰이 부재하는 것은 이 시집이 이라크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추정

천문학』, 2001.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집 전체에서 동물의 먹히는 이미지가 부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묘사들이 전쟁의 공포를 부각하기 위해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시집과 차별화된다. 그에 비해 『빌어먹을』은 허수경의 작품 세계에서 동물을 중심으로 연작된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를 포함하고 있다.

허수경은 「카라쿨양의 에세이」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어미를 잃고 곧 죽임을 당할 어린 카라쿨양⁶⁷⁾의 이야기를, 그 어린 양의 시선에서 그려낸다. 이 시는 육식 문화를 비판하는 동시에, 어미 양의 죽음을 주요한 소재로 삼아 ‘모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탐색한다. 시의 첫 연에서 어린 양은 “나의 어머니는 꼬치구이였다”고 말한다. 어린 양은 “어머니의 육체 한 부위는 꼬치였/고 다른 부위는 갈비였으며 간과 염통과 내장 역시 구이거나 볶/음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미가 사후에 당한 ‘먹힘’의 폭력을 그려낸다. 이러한 묘사는 어린 양이 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한편, 동물의 입장에서 육식 문화가 내포하는 공포를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어미 양의 죽음은 어린 양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며, 어린 양의 ‘미래’는 어미의 죽음에 의해 비추어진다. 미래는 본래 삶을 긍정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양에게 그러한 미래와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삶에 대립되기까지 한다. ‘어머니’에 의해 부여받은 ‘삶’은 결국 인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모순적이다. 여기서 ‘어머니’, ‘삶’과 ‘죽음’이 지닌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산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며, 이를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은 생명을 지탱과 삶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상의 젠더적이며 본질주의적인 측면도 있으나, 삶

67) 카라쿨양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된 거친 털을 가진 양이다. 또한, 신생 어린 양을 ‘카라쿨’이라고 부른다. 카라쿨 양은 그것의 고기와 털로 인해 인간에게 유착을 당한 동물이다. 특히 신생아 양 내지는 태아 상태에 있는 양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양 육체 안에서 꺼내고 죽음을 당한다. 이것은 태아와 신생아 양의 부드럽고 곱슬 무늬 털 때문이다. 신생아 양은 태어난 3일 안에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털이 거칠어진다. 태아 카라쿨의 털을 채취하기 위해서 임신 양에게 유산을 발생하게끔 하거나 어미 양을 죽여 태아를 꺼내서 그 태아 양의 털을 사용한다.

과 죽음이 모성성과 어떤 식으로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자. 인간으로 인해 어미 양의 출산은 죽음의 긍정으로 변경되고, 출산의 장소는 죽음의 공간으로 재정의된다. 동물의 몸은 인간에 의해 재정의됨으로써 죽음과 삶 사이를 해매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언급해야 할 점은, 어린 양에게 어미 양 외에도 또 다른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 양의 두 번째 어머니란 바로 ‘인간’ 어머니다. 인간 어머니는 어미 양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의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 인간 어머니는 양에게 모유를 먹여주며 그를 키워주고 삶을 긍정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양을 먹이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린 양은 젖을 먹이는 인간 여자의 가슴을 “둥근 무덤”에 비유하며 인간 여자가 표방하는 죽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죽음과 삶을 모성성과에 관계에서 탐색하는 한편, 시인은 양의 ‘일상생활’을 그려낸다. 그러나 양의 생활에 ‘일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곧 확인된다. 어린 양은 도축장에 보내지는 동물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즉,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죽음’이 어린 양의 일상을 지배한다. 요컨대 이 시에서 ‘먹는 행위’는 죽음과 삶을 동시에 드러낸다. 어린 양은 먹음을 행하면서 삶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살해’를 향하기 때문에 무의미화된다. 인간에게 타자화된 어린 양과 인간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구축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타자되기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아침 식사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린 인간의 해변까지 헬무트씨를 데리고 왔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붉은 플라스틱 슬리퍼 한짝이 보인다 해물 된장찌개 속 딱딱한 꽃게 다리를 젓가락으로 건드린다 꼴뚜기의 다리도 환각처럼 찾아오는 발도 환각처럼 사라져가는 발도 건드린다 몸통을 날개처럼 팔랑거리며 바닷속으로 날아가는 미역의 영혼도 건드린다

헬무트씨는 길게 한번 운다

현수막 밑 고무 다라이에는 낙지 두 마리 꾸물거린다 그렇게 다리를 꾸물거리면서 아직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와서

밥을 먹고 간 흔적도 고춧물이 든 플라스틱 용기들도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아침식사 되는 해변식당에서 밥 먹고 가고 싶다는 마음도 어디든지 가지 못한다

낙시꾼들은 가까운 바다로 나간다 우력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친다 우리의 가장 다정한 조상 네안데르탈인들이 헬무트씨의 고기를 구울 때, 그 표정으로 낙시꾼들은 우력의 투명한 살을 저민다 인간의 문명에서 시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양념이다 그때에는 빨간 초장 푸른 와사비는 없었다 시간을 달이며 고독해지던 간장도

헬무트씨는 길게 한번 운다

더 달라고 하세요, 모자라면

(...)

헬무트씨는 길게운다 오십만 년전 네안데르탈인에게 잡혀 먹힌 그는 이 해변에서 길게 운다
아침 식사됩니다, 라고

허수경, 「아침 식사 됩니다」, 『누구도』중에서 (전문)

허수경은 그의 마지막 시집에서도 동물의 시선에 입각하여 죽음과 삶의 문제를 되새긴다. 마지막 시집에 실린 「아침 식사 됩니다」에는 “헬무트씨”라고 명명된 매머드가 등장한다. 헬무트씨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 있는 과거를 표상하는 한편 “혼자 여행” 온 여성 화자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소리는 화자에 의해 독자에게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헬무트씨의 목소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의 기억과 정서까지 느끼면서 경험한다. 이것은 어떤 결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에게 된장찌개에 들어간 해산물은 살해당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된

다. 여기에서 화자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음식문화를 관찰하는 헬무트씨의 시선이 드러난다. 헬무트씨와 화자는 된장찌개가 꽃게의 “다리”, “발”, “몸통”과 “미역의 영혼”을 재료로 삼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꽃게와 미역이 의인화되어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리’, ‘발’, ‘영혼’ 등은 인간에 한하여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꽃게’ 혹은 ‘미역’과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단어를 싸용함으로써 된장찌개 안에 어떤 ‘살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같은 관점은 조용히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헬무트씨의 ‘울음’을 통해 강조된다. 헬무트씨는 “길게” 울면서 죽은 이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한편, 그가 과거에 당했던 죽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즉 헬무트씨의 울음은 헬무트씨와 같은 존재들이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인간에게 먹힐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 점은 시의 같은 연에서 확인된다. 헬무트씨는 “가까운 바다로 우력을” 잡고 있는 “낙시꾼들”을 목격하고, 또 하나의 죽음과 살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한편 자신의 죽음을 거듭 기억하게 된다. 여기에서 먹는 행위의 바탕에 작동하고 있는 인간의 ‘윤리’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마릴린 스트라텐 Marilyn Strathern은 먹는 행위를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먹는 행위 혹은 죽이는 행위는 어떤 자를 객체와 달리 능동적인 주체로 설정한다.”⁶⁸⁾ 즉, 먹는 행위는 ‘주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주체는 먹음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주체’로 내세운다. 나아가 스트라텐은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이 자신을 ‘인간’으로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을 인간으로 주체화하기 위해 다른 존재들에 대한 ‘먹음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먹을 것을’ 주체가 아닌 존재, 즉 타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계관계는 「아침 식사 됩니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헬무트씨 같은 존재들을 먹을 것, 즉 일종의 객체로 간주하여 먹음을 행한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헬무트씨가 느낀 공포와 슬픔이 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68) Strathern, Marilyn, 2012. “Eating (and Feeding)”, *Cambridge Anthropology* 30(2), University of Cambridge. 3쪽.

앞서 언급했듯이, 화자는 헬무트씨의 입장을 드러내는 매개로 등장한다. 헬무트씨의 ‘울음’과 인간 욕심에 대한 견해도 바로 이 인간 화자를 통해서 언어화되면서 나타난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화자는 타자화된 헬무트씨나 된장찌개 속 ‘꽃게’와 연합하고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김신정이 말한 ‘동감’과 상호 융화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스트라텐에 따르면 몸은 항상 변모 과정에 있으며, 특히 ‘먹는’ 행위가 그러한 변화에 크게 기여한다. 바깥의 무언가를 몸속으로 삽입하고 소화하는 것은 그 대상을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다. 「아침 식사 됩니다」에서 인간은 해산물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제 몸의 일부로 바꾸며, 그 과정에서 화자와 헬무트씨 및 꽃게 사이에 타자되기가 진행된다. 화자는 헬무트씨를 먹지는 않지만, 그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인 식당(먹음)이 음식이 상기시키기 때문에 먹는 행위와 관계를 맺게 된다.

타자되기를 통해서 화자는 헬무트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고통을 지울 수 없다. 화자는 고대에 “우리의 가장 다정한 조상 네안데르탈인들이 헬무트씨의 고기를 구울/ 때, 그 표정으로 낚시꾼들은 우럭의 투명한 살을 저민다”고 말하며, 다른 존재를 먹으려고 준비할 때 인간의 표정과 태도는 과거나 현재에 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다른 존재를 먹을 것으로 삼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낚시꾼들과 네안데르탈인들을 가리키는 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 또한 그 역사에 속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우리’ 모두를 그 죽임에 속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죽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헬무트씨에게 이 반성은 때늦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허수경은 인간에게 먹히는 ‘동물’들을 소재로 삼아 먹는 행위의 의미를 탐색했다. 그는 특히 동물들의 입장에 입각하여 시를 쓰면서 동물들이 느끼는 아픔을 중요시했다. 또한 먹는 행위를 폭력의 장소일 뿐 아니라 ‘타자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드러내면서 그것의 저항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토끼와 헬무트씨까지, 허수경의 시는 인간의 논리를 전복하며 그것에 맞선다. 시의 마지막에 헬무트씨는 “아침 식사됩니다, 라

고” 울면서 자신이 인간에게 “잡혀 먹힌” 사실을 부각하고, 자신은 그러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로테스크하게 드러낸다. 그는 자신이 인간의 ‘식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신을 ‘식사’라고 지칭함으로써 타자화한다. ‘아침 식사 뵙니다’라는 외침은 그 자신을 타자로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이 동물을 타자화하는 과정을 폭로한다. 이제까지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가 배고픔과 인간에게 ‘먹힘’을 당하는 문제였다면, 다른 한편에는 카니발리즘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먹는 행위가 있다. 다음 장에서 이 점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3. 카니발리즘을 통해서 나타난 ‘주체성 이동’

카니발리즘은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포스트-식민주의 담론에서 카니발리즘은 식민주의 하에 식민지의 문화를 악마화하여 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용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난다.⁶⁹⁾ 이와 달리 음식 학자들은 카니발리즘을 ‘주체성 이동’의 과정에서 본다. 스트라텐에 따르면 와리 사람들은 친족의 시체 일부를 먹으면 그 시체가 지닌 ‘기억’을 물려받게 되면서 자신의 주체가 변경된다고 생각한다.⁷⁰⁾ 한국의 경우, 김현자와 이은정은 1980년대 이후의 한국 여성 시인들이 남성 및 남근중심적인 언어 질서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육체의 언어를 재전유하며 재소유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언어들, 신체를 절단하고 분해하는 카니발리즘의 언어들, 그로테스크한 식욕의 어법 등”을 사용한 것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⁷¹⁾

이러한 경향을 허수경의 시에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성 문학과 예술가들은 카니발리즘적 이미지로써 여성 몸이 겪는 억압을 보여준 사례가 많다.⁷²⁾ 허수경은 카니발리즘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카니발리즘을 수용하기도 한다. 카니발리즘적인 이미지는 앞선 3번째 시집에서 목

69) Wankier, Alisa Marie. 2016. “Consuming Narratives: Food and Cannibalism in Early Modern British Imper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박사학위 논문 참조.

70) Strathern, Marilyn, 앞의 논문 참조.

71) 김현자, 이은정, 김현자, 이은정. 「한국현대여성문학사 - 시」. 『한국시학연구 (5)』, 2001, 80쪽.

72) 수산 구바르 (Susan Gubar)는 여러 문학가 및 예술 수행가의 예를 들어 카니발리즘이 갖고 있는 충격적인 성질을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여성 문학가들은 여성 몸이 받은 억압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니발리즘을 자신의 글이나 예술에서 재현한다. 구바르는 화가 畫家 메레 오펜하임의 그림 「카니발 축제」 (Cannibal Feast)를 차용하고, 이 그림에서 오펜하임은 여성 고기를 먹는 식인종 축제를 묘사하여 실제 세상에도 남성에게 먹히는 여성의 위치를 검토한다. (Susan Gubar. “Representing Pornography: Feminism, Criticism, and Depictions of Female Violation”, *Critical Inquiry*, vol. 13, no. 4, 1987, JSTOR, www.jstor.org/stable/1343526.)

격되는데, 여기서 그는 주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수용했다. 그러나, 돋보이는 점은, 카니발리즘이 그의 ‘독특한 시간성’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토끼를 불러놓고 저녁을 먹었네
아둔한 내가 마련한 찬을 토끼는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늘 요리는 토끼고기

토끼도 토끼를 먹고 나도 토끼를 먹는다
이건 토끼가 아니야, 토끼고기라니까!
토끼고기를 먹고 있는 토끼는 나와 수준이 똑같다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식사가 그렇지 않을까요
풀을 불러놓고 풀을 먹고
추억을 불러놓고 추억을 같이 먹고
미움을 불러놓고 미움을 같이 먹었더랬지요

우리는 언제나 그랬지요
이 세계에 있는 공허한 모든 식사가 그랬지요

「우리들의 저녁 식사」, 『내 영혼』, 허수경

메리 더글라스는 음식은 그만의 시간성을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⁷³⁾ 그는 인간이 음식을 ‘순서’대로 섭취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음식과 시간의 연관성을 나타냈다. 허수경의 시에서도 이러한 시간의식이 드러난다. 「우리들의 저녁 식사」의 제목에서부터 음식에 관련한 인간중심주의가 시간성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저녁 식사’는 인간적인 개념이자 인간이 시간을 의식하면서 만들어낸 사회적 이벤트이다. 또한, ‘저녁 식사’는 인간이 음식을 먹어야 할 ‘시간’을 가리키는 동시에, 총 3끼의 마지막 한 끼를 구성하며, 24시간으로 구성된 하루의 ‘끝’을 표시한다. 이는 인간의 섭취 풍습에 의

73) Douglas, Mary, 앞의 논문 참조.

해 한 ‘하루’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면서, 인간이 구축한 시간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간’의 시간성에 ‘토끼’는 ‘식사’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 시에서 화자가 “우리는” “토끼를 불러놓고 저녁을 먹”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 모두를 가리킨다. 먹음을 행사할 권력이 인간인 “나”와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으로 본다면 토끼는 자신을 먹음으로써 인간이 되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토끼는 자신을 타자화하면서 ‘인간화’하기도 한다. 환언하면, 토끼는 인간의 논리에 기대서 자신을 (타자화하며) “토끼 고기”로 지칭하는 한편, 자신을 ‘고기’와 차별화하면서 인간화한다. 토끼는 “이건 토끼가 아니야, 토끼고기라니까!”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카니발리즘을 정당화한다. 토끼의 이러한 행동은 그를 인간화에 착수하게끔 한다. 화자도 토끼의 ‘인간성’을 인식하여 “토끼고기를 먹고 있는 토끼는 나와 수준이 똑같다”고 말한다. 즉, 토끼는 자신을 먹으면서 화자처럼 ‘인간’이 되며, 화자에게서도 인정을 받는다.

또한 토끼는 자신의 시체를 먹으면서 인간의 시간성에 들어간다. 토끼는 ‘저녁 식사’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시간의식과 식습관 규칙을 따른다. 이 또한, 인간의 시간성을 받아들이는 행위이자, ‘인간’되기를 드러낸다. 즉, 이 시에서 인간되기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발생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타자되기’와 대립되는 것인가? 이 시는 인간의 먹는 행위가 자기-주체화 과정임이 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주체화 과정에서 억압당하고 타자화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중요시한다. 이 또한 타자되기의 과정을 보인다.

인간 화자는 토끼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으며, 이 때 반성을 할 수 있는 이유에는 ‘타자되기’가 있다. 또한, 인간 화자는 ‘먹음’을 행하면서 ‘식사’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심문한다. 토끼의 ‘인간-되기’ 과정을 목격하는 인간 화자는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식사”도 결국 무엇을 “불러놓고” “같이 먹”는 행위를 포괄하지 않은가를 묻게 된다. 또한, 식사는 단순히 ‘식품’만이 아닌 “추억”과 “미움”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음식이 기억을 공유한다는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로써 음식은 생물학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닌 정서와 ‘기

억'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미움”이란 먹힘을 당한 토끼의 감정을 말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화자는 먹힘을 당한 토끼의 “미움”을 인식해서 먹는 행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한편, “이 세계에 있는 공허한 모든 식사가” 그렇다고 주장한다. 환언하자면, 이 시에서 인간 화자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타자가 될 수 있었고, 토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웃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낮선 이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퍼런 큰 새를 타고 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폭탄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다, 나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검은 기름이 솟아났다, 검은 기름 속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들이 끈적거리면서 나타나 오래전에 혈린 집에 대해서 물었다, 그때마다, 그 강변에 꽃이 피었다, 붉거나 흰 꽃들이었다, 바람이 불면 꽃은 지고, 꽃 진 자리에서 열매가 돌아났다, 돌아난 열매는 우는 여자의 눈동자 모양을 하고 있다, 열매를 먹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쟁여둔 슬픔으로 가는 마음이 사라졌다, 자지러지게 웃고 싶어서 강변으로 나가서 그렇게 웃었다, 아이들의 주머니 속에 든 폭탄이 터져 아이들이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웃는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우는 여자의 눈동자 같은 열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허수경, 「그렇게 웃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청동』에서, (전문)

카니발리즘적인 이미지는 허수경의 시집 『청동』에서 다시 등장하지만 이것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수용된다. 위에 인용된 「그렇게 웃는 나날이 계속되었다.」에서 시인은 현

재 “폭탄을” 장난감처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들”을 동시에 그려내며 현재와 과거를 단절된 개념으로서가 아닌 결합된 것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폭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이어져온 것으로 강조된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폭탄 기름으로 과거의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들이 끈적거리면서 나타/나”며 아이들은 “오래전에 혈린 집에 대해서 물었다”고 한다. 그러한 질문을 낼 때마다 “강변에 꽃이 피었”으며 꽃에서 “열매다 돌아났다.” 이 “돌/아난 열매는” 과거의 폭력을 증명해 주는 “우는 여자의 눈동자 모양을”, 즉, 피해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화자는 “열매를 먹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쟁여둔 슬픔으로 가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느낀다. 이것이 “열매”에 있는 여자를 먹으면서 화자는 과거를 검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러나, ‘열매’는 단지 순간적인 행복을 주며 현재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에 끝을 맺는데, 결국 현재의 사람들이 과거를 검토함으로써 현재를 살리는 데에 실패했음을 드러낸다. 즉, 그들은 타자 되기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마지막으로 “우는 여자의 눈동자 같은/ 열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문장이 나타난다.

이 시는 『영혼』에서 연작된 시와 유사하게 ‘시간성’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시인은 먹는 행위가 그만의 ‘시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내세우기 위해 수용한다. 이 과정에서 카니발리즘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행위가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즉, 먹는 행위는 먹는 자를 각성시켜서 ‘과거’의 검토를 요구하며, 현재와 과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드러낸다. 「달이 걸어오는 밤」과 「빛속에서 이를 수 없는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에서도 카니발리즘의 치료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오 오, 달은 속에 든 통증을 다 삼키고
 저 혼자 붉어져 있는데, 통증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
 다시 그 달을 꿀꺽 삼키면
 암소는 달과 함께 내 속으로 들어간다

온 세상을 다 먹일 젖을 생산할 것처럼
통증이 오고 통증은 빛 같다 그 빛은 아스피린 가루 같다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다

허수경, 「달이 걸어오는 밤」, 『청동』에서, (부분)

「달이 걸어오는 밤」에서 ‘나’는 “아스프린 같”은 달을 먹으며 자신의 몸속이 “전구알”과 “크리스마스 무렵의 전나무같이 환해”졌다고 말한다. 여기서 2가지의 흐름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먹는 행위와 카니발리즘의 치료적 능력을 발휘하는 흐름이다. 달은 ‘나’ 속에 들어가 “속에 든 통증을” 삼킨다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즉, ‘나’가 달에게 먹힘으로써 자신 안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카니발리즘의 치료적 특징을 의미한다. 두 번째 흐름은, ‘되기’의 흐름이다. ‘나’는 전구알과 크리스마스 무렵의 전나무같이 변한다. 전나무로 변한 ‘나’는 어떤 염소를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화자는 달을 “삼키”며 염소와 같이 보호한다. 즉, 변함으로써, 되기 과정에 있으므로 ‘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먹는 행위이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달을 자신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며,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즉, 안과 밖의 경계를 깨트리며, 타자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염소와 달은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임신’ 상태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 안의 자연과의 결합을 의미할 수 있는 동시에 여성 몸속의 여럿의 주체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밖의 달과 염소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타인 이데올로기’를 전복하여, ‘나’와 타자를 결합시켜, 여러 주체가 동시에 살 수 있게끔 타자되기를 실행한다. 여기서 모성적인 측면도 눈에 띈다. 염소와 달로 임신된 화자의 몸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화자는 슬프지 않다. 오히려 “온 세상을 먹일 젖을 생산할” 화자는 출산과 죽음의 “통증”을 견딤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카니발리즘적 이미지는 「그때 달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허수경의 ‘기억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때 달 하나 마치 나를 그럴 것처럼 저 혼자 내 속에서 돌아나더니 내 속을 빠져나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나는 그렇게 빛 아래 서게 되었는데 (어찌다가 내 속은 달을 돌아나게 했을까. 일테면 파충의 기억을 내 속은 가지고 있었던가) 후 두둑 까마귀가 날아가는 소리 킁킁 늑대 우는 소리 저 먼 산이 나무들을 제 품속에서 끄집어내어 올빼미를 얼른 품으로 끌어안아 들었습니다 (그때 또 달 하나 저 혼자 내 속 돌아나서는 내 속을 끌고 허공으로 걸어갔습니다) 달을 집어먹은 달은 새로 걸어오는 달과 내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빛 속에서 있던 나는 내 속을 성큼 집어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속에서 돌아든 달과 내 속을 집어먹은 나는 그렇게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허수경, 「그때 달은」, 『청동』중에서 (전문)

「그때 달은」에서 ‘나’인 화자가 달을 낳아주며 “파충의 기억”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화자가 우주의 창조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억 내지는 영혼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이 화자 몸 안에서 탄생되면서 인간과 세상을 연결하는 동시에, 출산의 일반적인 관념을 넘어선다. 또한, 출산은 본래 생명을 긍정하는 것인데, 화자의 몸 안에서 돌아난 ‘달’은 새로 출산된 달을 집어먹으며, 화자도 자신을 먹으면서 어떤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즉, 화자는 자신을 식인화하는 한편, 달도 일종의 카니발리즘을 행한다. 이때 둘의 이러한 카니발리즘적 행위는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재생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 또한, 변모 과정에 있는 화자의 몸은 여럿의 주체를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타자와 나의 결합에 이른다. 환언하자면, 달과 ‘나’는 ‘되기’를 위해서 죽고 재생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각각 자신을 먹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순환을 계속한다. 시에서 죽음은 재생을 동반하고, 이 두 과정은 각각 서로

에게 기대고 있다. 죽음 없이 재생이 가능할 수 없고, 역으로 재생 없이 죽음이 가능하지 않다. 둘은 세상의 자유로운 절차이므로 세상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

또한, ‘나’와 ‘달’은 카니발리즘을 통해서 ‘여럿’의 주체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해원이 언급한 “‘나들’의 존재론”을⁷⁴⁾ 담고 있다. 이해원에 따르면 “‘나들’의 존재론은 ‘나’라는 주체의 관점을 넘어서 ‘너’와 공명하는 무수한 ‘나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우리’와 대비되는 동시에 (26쪽), 복수의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내세운다. 이때 먹는 행위, 특히 카니발리즘은 복수複數의 주체성이 창조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억’과 협력해서 타자되기를 가능케 한다. ‘기억’과 카니발리즘에 대해서 말한 스타르텐의 논의를 상기하자면, 와리 종족은 카니발리즘을 통해서 죽은 자의 기억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견해를 확대시켜 본다면,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카니발리즘은 ‘기억’의 교류를 통해서 복수의 주체들을 낳으며, 이 과정에서 ‘죽음’과 ‘시간성’에 새롭게 접근한다. 카니발리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죽음’은 재생을 앞선 죽음이자, 과거에 일어난 죽음을 포괄하고 있어서 시인의 시간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때 달은」에서도 세상의 창조 및 끝이란 결국 세상의 ‘시간’과 얽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동시에, 세상의 끝과 시작으로 시간의 끝과 시작도 정해지는데, 카니발리즘은 이러한 시간성을 넘어설 수 있게끔 한다. 인간 화자는 나 아닌 타자인 달 및 파충과 결합하여, 또한, 자기 자신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과 결합하며, 모두가 “기억”을 교류함으로써 타자되기를 실행한다.

허수경의 시간성과 카니발리즘적인 이미지가 「빛 속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에서 다시 목격되는데, 여기서 시인은 평행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시인은 “평/행의 우주”에 대해 꿈을 꾸면서 “그 곳에서” 자신이 “다른 부모를 가지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름에 의해 자신의 “육체”도 역시 다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처럼 ‘다른’을 강조하는 시인은, 평행 우주에서 “흰빛 남자들은 검은빛의 여자들에

74) 이해원, 「‘나’의 지각」, 27쪽.

게 먹히고” 있을 것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내가 살던 다른 평행에서는 역으로였”다고 그 뒤에 덧붙인다. 여기서 폭력을 상징하는 ‘흰빛’ 백인 남성은 ‘검은빛’ 흑인 여성에게 먹히면서 그가 가한 폭력이 평행 우주에 없다는 것은 강조된다. 또한, 이 시의 ‘핵심’은 ‘평행의 우주’이기 때문에 시간성과 카니발리즘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카니발리즘은 일반적인 시공간을 넘어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이자 모든 생명을 그것으로써 연결하는 꼬리가 되기도 한다. 시인은 그 평행 우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상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허수경은 ‘상상력’에 기대어서 모든 것이 ‘역으로’ 흐르는 평행 우주에서 카니발리즘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려 한다. 정리하자면, 허수경에게 있어 카니발리즘적 이미지는 기억과 시간성에 맞닿아 있으면서, 모든 생명을 ‘타자되기’에 이르게끔 수용되고 있다. 새로운 시간성을 낳는 한편, 시인은 카니발리즘 혹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먹는 자와 먹히는 자 사이에 기억의 교류가 진행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타자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드러낸다.

3. 어머니의 먹는 행위로서 새로운 세계와 시간성의 고안

3.1. 자연과 어머니의 ‘먹이는 노동’ 및 새로운 시간성 형성

타자되기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주체와 타자의 결합을 의미한다면, 먹는 행위를 가능케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허수경의 시에서 먹는 행위에 동반되는 이미지는 여성의 이미지다. 이때 여성은 ‘어머니’로서 다른 존재들을 지탱하며, ‘먹는 행위’의 생명 지탱 기능을 재현한다. 여성은 아이, 군인 등 다른 존재들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그들을 살려낸다. 이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에게 기대는 생명도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상은 허수경의 첫 시집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기와 후기 시편에서도 목격되지만, 그 양상은 달라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해원⁷⁵⁾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여성주의가 독일 이주를 전후해서 변한다고 본다. 그는 독일 이주 전의 시집에서 여성 인물은 주로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그 사내 내가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사내 물골만 겨우
사람꼴 갖춰 밤 어두운 길에서 만났더라면 지레 도망질
이라도 쳤을 터이지만 눈매만은 미친 듯 타오르는 유월
숲속 갈아서 내라도 퍽하니 피기침 늑막에 차오르는 물
거두어주고 싶었네
산가시내 되어 독오른 뱀을 잡고
백정집 칼잡이 되어 개를 잡아
청솔가지 분질러 진국으로만 고아다가 후 후 불며 먹
이고 싶었네 저 미친 듯 타오르는 눈빛을 재워 선한 물
같이 맛갈 데인 잎차같이 눅히고 싶었네 끝내 일어서게
하고 싶었네

75) 이해원, 「‘나’에서」 논문 참조.

그 사내 내가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사내
내 할미 어미가 대처에서 돌아온 지친 남정들 머리맡
지킬 때 허벅살 선지피라도 다투어 먹인 것처럼
어디 내 사내뿐이라

허수경, 「폐병쟁이 내 사내」, 『슬픔』에서 (전문)

「폐병쟁이 내 사내」는 그러한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남성을 돌보며 간호해주는 여성 화자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에 다쳐 돌아온 남성을 ‘간호’해주는 여성이다. 시에서 여성 화자는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사내”가 전쟁에서 다쳐 고향에 돌아오자 그를 간호하고 살려낸다. 화자는 남자에게 “청솔가지 분질러 진 국으로만 고아다가 후후 불며 먹이”면서 간호해주려 한다. 즉, 화자는 ‘먹임’을 통해서 남성에게 생명을 부여하려 한다. 두 번째 양상은, 여성이 ‘전쟁’에서 다쳐온 남성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과 자신을 대비시킨다는 점이다. 여성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의 ‘타자’가 되면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다. 또한, 역사에서 전쟁은 남성중심주의적인 서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성은 전쟁사에서도 타자화되고 이중으로 소외된다.

따라서 여성은 ‘먹임’을 행사하면서 ‘생명의식’을 긍정하는 한편, 그것을 도구로 삼아 타자화된 존재들(자신도 포함)을 주체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성은 전쟁에 나가서 폭력에 기여하기보다는, 전쟁의 폭력을 초점화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주체다. 「폐병쟁이 내 사내」에서 여성은 스스로를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에 비교하여 “그 사내 내가/ 내 할미 어미가 대처에서 돌아온 지친 남정들 머리맡 지킬 때 허벅살 선지피라도 다투어 먹인 것처럼” 지켜주려는 마음을 밝히면서 ‘보살핌’과 ‘돌봄’을 전쟁에 저항할 도구로 삼는다. 여기에서 화자는 남성을 간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원은 이 시의 화자가 “강인한 여성”을 표방한다고 평가하면서 “통념상 남성은 강인하고 무언가를 보호하고 결정하는 존재인 것에 비해 여성은 연약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며 순종적인 존재라는 젠더 이미지를 갖는다”(17쪽)고 본다.

따라서 생명을 긍정하는 여성의 ‘먹이’는 노동은 타자되기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가부장제에 의해 타자화된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밥을 ‘먹이’면서 다른 타자들을 주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먹임’은 ‘어머니’를 주체화하는 동시에, 어머니에게 다른 생명을 주체화시킬 권위를 준다. 「오래된 사진」에서 여성 화자는 “무척 시래기를 무치며 시금치국을 끓이며 아침상을 물리”면서 할아버지를 돌본다. 한편 그러한 노릇을 할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대평 무밭」에서 등장한다. 아이들의 배고픔은 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 “나라”의 배고픔을 상징한다. “아이들과 무가 함께 자라는 나라/가을로 익어가는 가난한 눈물이/무와 함께 씹히는 아린 내 나라”라고 화자는 시를 끝맺으면서 가난하고 배고파하는 조선 민중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양상을 1980년대 여성이 위임받는 ‘임무’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슬픔』은 1980년의 한국과 조선을 그려냄으로써 억압의 궤적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고픔’과 ‘먹는 행위’는 나라의 가난함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며 배고픔을 해결할 자로서 곧 어머니가 소개된다. 즉, 어머니 내지는 여성은 온 나라의 배고픔을 ‘먹이’는 노동을 통해서 해결해 줄 인물이다. 여성의 이러한 역할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요구된다. 허수경의 시에서 위기는 전쟁을 말하며, 어머니 내지는 여성은 전쟁터에서 먹임과 간호해주는 노동을 함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는 임무를 위임받는다. 허수경이 탐색한 모성의 이러한 관점은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역사의 일환을 이룬다.

1970년대부터 한국 여성 시인들은 모성성의 신화가 구축한 ‘어머니’라는 범주에서 떠나 현실에서 목격되는 어머니에 접근했다.⁷⁶⁾ 그들은 어머니가 “가부장제의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성”(178쪽)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탐구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여성 시인들은 가부장제 언어와 질서에 ‘어머니’의 이미지를 환기시켜 그것에 반박

76) 배옥주,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모성성의 특성 1970년대~1990년대 한국 여성시의 모성시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18.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했다.⁷⁷⁾ 배옥주에 따르면 1980년대 광주항쟁 이후 혁명은 남성중심주의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에 반대하여 많은 여성 시인들은 여성 주체를 재확립하기 위해 ‘어머니’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어머니는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를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켜 남성지배적 문화와 서사를 깨트린다. 그는 특히 전시 어머니의 모습에 주목함으로써 이것을 드러냈다.

1990년대 여성을 모성과 동일시하는 전통 및 여성에게 강요되는 역할로서 모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⁷⁸⁾ 박지해에 따르면 허수경에게 있어 모성성은 “생산성과 치유성 모두를 포괄한다”는(113쪽) 것을 의미한다. 시인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을 희생자로 나타낸다. 그러나 이해원이 밝혔듯이, 시인이 독일로 건너간 이후에 쓴 시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은 사라지고 여성은 저항적인 주체로 확립된다. 여성주의적인 변화를 더불어 독일 이주 후 허수경의 세계정치에 대한 의식도 큰 변화를 이루었다. 전쟁이 중요한 테마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여성의 이미지는 그것을 동반하기 시작한다.

허수경의 두 번째 시집 외에 모든 시집에서 전쟁이 다루어졌다.⁷⁹⁾ 허수경에게 전쟁이란 어떤 하나의 전쟁을 의미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으며 세계 도처의 전쟁을 포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쟁의 이미지를 동반하는 이미지가 여성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전시戰時 여성은 간호사, 세계 창조자, 어머니로 많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군인과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해원에 따르면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반대편에서 어머니들은 생명을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 존재로 그려진다. 먹을 것을 주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생명과 관련된 어머니의 절대적인 역할을 표상한다.”

앞서 밝혔듯이 1980년대에는 노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여성노동과 여성운동가에 관한 시선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

77) 김혜순, 「1990년대의 시적 현실, 어디에 있는가?」, 『“근대”, 여성이 가지 않는 길』, 김영옥 엮음, 또 하나의 문화, 2001.

78) 박지해, 앞의 논문.

79) 이해원, 「전쟁 표상」 참조.

태였다.⁸⁰⁾ 김현미는 노동의 젠더화된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부터 그 과제를 시작한다.⁸¹⁾ 그에 따르면 한국의 근대화는 “유교적 부형 지배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화적 과정이며, 성별 권력에 기반한 경제적 변혁 과정이었”(44쪽)다. 김현미는 근대화 프로젝트의 시작이 1960년대에 있다고 보았다. 당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서로 결합하여 남성은 새로 “핵가족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의무를” 담당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의 “감성적 동반자”(45쪽)로서 가사 노동과 육아에 대한 독점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60~70년대의 근대화가 “초남성주의적 발전주의 국가(hypermale state developmentalism)”로⁸²⁾ 알려지면서 강력한 남성성은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강력한 남성성에 대하여 무력하고 예속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졌으며, 그 대상이 곧 사회였다. 사회는 무력한 대상으로 “초여성화”되었다(49쪽)고 평가된다. 경제, 국가, 사회, 산업 등은 유교에 기반을 둔 가족주의적 형태를 취하게 되고, 국가는 “아버지와 남편의 이미지로서” 재현되며, 사회는 “여성” 내지는 “모성”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장자로서의 재벌과 기업, 딸로서의 노동자의 위계적 메타포를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유교적 가치가 산업에서 활용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가족주의적인 가치를 부여받았다.

정현백은 “‘자신이 아니면 가족들은 굶어 죽는다’는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은 또한 한국 여성 특유의 전통적인 자기 희생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50쪽)⁸³⁾ 보았다. 즉 여성이 맡게 되는 역할은 ‘먹임’의 노동이었으며

80) 이것은 특히 386세대로 알려져 있는 작가들의 소설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여성 후일담의 이중적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 2018.

81) 김현미, 「근대의 기획, 젠더화된 노동 개념」, 『“근대”, 여성이 가지 않는 길』, 김영옥 엮음, 또 하나의 문화, 2001.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82) 김현미는 한과 링(Han and Ling, 1998)을 차용하면서 그들이 말한 초남성주의적 발전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를 받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근대화 과정을 추구할 때 서구의 제국주의적이며 강력한 남성성을 모방하면서도, 자국의 내적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반동적이면서 강력한 남성성을 발전의 이데올로기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미, 위의 책, 48쪽.)

83) 정현백, 『노동운동과 노동문학』, 한길사, 1991, 411쪽. (김현미, 위의 책, 50쪽에서 재인용)

생명 지탱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 특히 허수경의 성장기인 1970년대에 한국 여성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이제까지 말한 여성 노동자이고 다른 한 그룹은 “새여성”으로 불린 지식 여성들이자 “현모양처”(53쪽)이다. 특히 후자의 새여성은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유신 헌법을 지지하는 인간상이었으며, 현모양처는 여성을 남성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람으로 재정의했다. 이러한 역할들을 맡으면서 여성이 남성에게 해 줄 수 있는 “감정적 노동”이 중요해졌다. 허수경의 시에서 여성은 감정적이며 육체노동을 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은 ‘먹임’을 통해 다른 생명들의 ‘주체화’가 진행될 수 있게 보조한다.

과수원 가까이에는 통조림 공장
과수원 가까이에는 마을

한때 마을에는 사람의 아들에게 연애편지를 쓰던 호랑이가 살았네
우편배달부는 지난날 전쟁으로 살해되고
편지가 든 가방만이 과수원 나무에 매달려 있네

과수원 가까이에 사는 여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했네
머리카락이 떨어질 새라 흰 머릿수건을 쓰고

여자들은 밤에도 낮에도 일을 했네
물과 피로 이루어진 생산기계
공장은 삶은 과일들의 자궁
여자들의 흰 손이 양수 속을 헤엄치고 다니네

과일에 박힌 씨앗을 도려내고
토막토막 잘라서 끓는 설탕물 속으로 집어던지네
거대한 화덕 위
씨앗없는 과일들이 설탕물 속으로 쏘다니고
우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과수원 나무에 매달린 주인없는 가죽가방 속에서
오래된 문자로 쓰여진 편지가 지상으로 떨어지네

내 짐승의 자궁을 받아주어요 누군가 공장의 그늘
아래에 멈추어 서서 늙은 연인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네

공장이 문을 닫은 지도 오래되고 이곳이 훗날 바다가 될른지
바다가 생겨서 물고기들이 낡은 공장의 들보 사이를 걸어다닐는지 알 수 없네

허수경, 「그 옛날 공장은 삶은 과일들의 자궁」, 『내 영혼』중에서, (전문)

허수경이 독일로 건너간 이후 여성에 관한 그의 시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독일 이주 후에 쓴 『내 영혼』에 반영된다. 「그 옛날 공장은 삶은 과일들의 자궁」에서 시인은 여성을 남성의 애인으로 등장시키는 동시에 공장에 일하는 자로서 여성노동의 문제를 초점화했다.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모습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남성에게 대비되고, 여성도 남성에게 못지않게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머리카락이 떨어질 새라 흰 머릿수건을” 쓴 채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열악한 환경에서 “밤에도 낮에도 일을” 하면서 온몸이 “물과 피로 이루어진 생산기계”가 되어 버린다. 공장은 여성의 몸을 전유하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삶은 과일들의 자궁”을 표방한다. 즉, 공장은 자궁과 유사하게 ‘출산’을 하며, 그 안에서 출산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여성의 얼굴을 한 어떤 “생산기계”일 뿐이다.

화자는 통조림 식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길게 묘사하는데, 이는 자본주의하에서 변경 없이 되풀이되는 생산의 절차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통조림 식품의 역사를 본다면, 이것은 20세가 초반에 일어났던 전쟁과 유일한 관계를 지닌다. 통조림은 본래 17세기 유럽에서 유래되었지만, 전쟁 시 군인들이 쉽게 휴대하고 소화할 수 있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용되었다. 처음에는 미국 남북 전쟁(1861~1865년)에서 군인들에 의해 소비되었고,⁸⁴⁾ 한국에서는 6.25 전쟁 때 미국에 의해 도입되었다.⁸⁵⁾ 이

렇듯 통조림의 역사는 전쟁사와 연결되는 한편, 삶을 긍정하는 통조림이 죽음을 표상하는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용되었다는 모순이 드러난다. 여공女工의 역사도 바로 여기에 깃들여 있다.

문학 비평가 김은하가 말했듯이 중산층 여성, 특히 여대생들은 공장에서 일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해방되는 한편, 정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⁸⁶⁾ 또한, 그들은 남성과 못지않게 “역사의 책임을” 짊어지면서 “여성/시민의 평등주의적 비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함인희가 지적했듯이, 한국전쟁은 여성에게 “금기시되었던 유급노동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성 지위를 향상시켰”다.⁸⁷⁾ 이것은 여성에게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위기 상황이 강조됨으로써 가족,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성차별적 가치 및 관행이 더욱 강하게 지속됨에 따라 여성 지위의 하락을 초래했다 할 수 있다. 즉, 여성에게 있어 전쟁은 일정한 해방을 의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젠더에 기반한 역할을 요구했던 것이다.

함인희는 당대 여성이 “조국과 가족을 지켜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습은 허수경의 시에 반영된다. 「폐병쟁이 내 사내」, 「오래된 사진」과 「그 옛날 공장은 삶은 과일들의 자궁」 등은 여성의 전통적인 모습과 ‘근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강한 생명 의식을 강조한다. 또한, 전쟁에 의해 타자화된 인물들을 간호해주고 먹인다는 점에서 그들을 타자가 아니라 주체로 재설정한다. 달리 말해서, ‘먹이’는 노동은 여성들에게 타자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어머니 홀로 이러한 역할을 위임받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와 동일하게

84) Busch, Jane. 1981. "An Introduction to the Tin Can." *Historical Archaeology* 15, no. 1. Accessed April 28, 2020. www.jstor.org/stable/25615391.

85) Lucy Williamson, 2019, "Why is Spam a luxury food in South Korea?", *BBC News*, 13 September 2019, Accessed April 28,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24140705>

86)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2017, 40쪽

87) 함인희, 「한국전쟁, 가족 그리고 여성의 다중적 근대성」, 『사회와이론』11, 2006, 184쪽.

타자화된 ‘자연’도 있다.

자연은 인류가 대면해야 했던 최초의 그리고 아마도 최후의 타인일 것이다. 타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어 위협적이고, 위협적이어서 어찌해서든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타인이 바깥에만 있을 때,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중략) 타인, 견성과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

허수경, 『모래도시』(92-93쪽)

위에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허수경에게 타자란 인간을 포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연이 인간의 “최초의 그리고 아마도 최후의 타인일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이 자신의 중요성을 자연을 타자화시켜서 확립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허수경은 자연이 인간에게 당한 착취를 단지 ‘자연-인간’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이 당한 억압과 연관지어서 드러낸다. 따라서, 자연을 여성에 비유하여 둘의 ‘주체화’ 과정을 같이 그려낸다고 볼 수 있다. 배옥주에 따르면 한국 여성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자연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모성성으로 형상화”⁸⁸⁾한다. 즉, 자연을 모성적인 양상으로 모색한다. 허수경의 첫 시집에서부터 자연과 어머니가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게 목격된다.

백일을 갓 지난 조카의 이름 같은 꽃 잔설이 선밭처럼
쭈뼛거리는 야산 둔덕에 피었습니다
제 어미 빈 젖같이 아직 찬 햇살을 받고 일찍 피어 있었
습니다
혈육 같은 꽃 속으로 들어가
얼른 봄이 되고 싶었습니다
딱 찬 젖을 맘껏 빨리고 싶었습니다

88) 배옥주, 앞의 논문, 178쪽.

허수경, 「조카의 이름 같은 꽃」, 『슬픔』중에서 (전문)

위 인용된 시에서 먹음-자연-모성의 삼각관계가 눈에 띈다. 시인은 자신의 백일 넘은 조카를 자연의 일부인 꽃에 비유한다. 시에서 잔설이 “선밥 처럼” 생기고 있으며, 아직 덜 익은 밥의 은유는 덜 자란 조카를 가리키며, 둘은 자연과 가까운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카와 꽃이 “제 어미 빈 젓같이” 일찍이 피어 있다고 말할 때 꽃과 조카, 각 생명은, 똑같이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인은 조카가 강한 “혈육 같은 꽃”처럼 열린 자랄 수 있게 “꼭 찬 젓을 맘껏 빨리고 싶었”다고 하며 모성적인 측면을 보인다. 화자는 모유를 주는 것을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내면서, 조카의 나이까지 꽃의 삶에 비유하여 자연의 아이로 나타낸다. 즉, 시인은 먹는 행위, 자연과 모성을 연결하여 이들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계는 그의 다른 시에서도 확인된다.

「강」에서 화자는 자신의 “땃줄이” 강에 위치하며 자신이 강의 아이로 “자랐다”고 밝힌다. 또한, 그렇게 자라온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배냇기억”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강은 진주를 표상하는 한편, 생물학적인 ‘어머니’로 등장한다. 또한 이는 화자의 ‘기억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화자는 자기 정체성의 근원을 진주의 강과 자연에 위치시키면서 스스로를 자연의 아이로 나타낸다.

그 잎 여릴 적, 우리 만나 잎 따서 삶아 밥해주던
할머니 집에 앉아 여린 잎에 하얀 밥 싸 먹으며 병그러
지는 입술 오므리며 깔깔거리다가 어머 어머 할머니
설거지 많겠네, 어찌나, 그때 그 잎 여러 할머니의 아
가같은 손힘으로도 푹 푹 꺾이는 것을,

그 잎 커다랗게 자라 그늘 만들고 그늘 아래 비 그
으며 수박 오이가 익는 것 들을 때까지 기다리자, 하
며 할머니가 떠오른 설거지물에 마치 오랜 시간 씻듯
양은 밥주발 씻으며 할머니가 잎 옆에 달린 꽃 머리에

꽃으며 병그렇게 웃는 것 보며 그래, 그래 저 앞 더
무성해져서

산 덮고 그 산, 잎 그늘 아래 축축한 땅의 수줍은 곳
열어 버섯 돌아 오르면 그때 또 할머니가 지어주는 버
섯밥 먹자, 좋겠네, 저 잎 여릴 때 만나무성하게 산
그늘 될 때까지 붙어 있다가 그래 그래 할머니 머리에
꽃힌 저 붉은 꽃 좀 봐, 무슨 열대 섬 사는 아씨
같은 할머니 좀 봐, 그때까지 설거지물에 담긴 양은 주발
새로운 시간처럼 씻으며, 그래 그래, 저 잎

「그래, 그래 그 잎」, 『청동』에서, (전문)

『청동』에서 허수경은 어머니와 자연의 관계에 다시 주목한다. 「그래, 그래 그 잎」에서 화자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을 때 먹었던 음식들을 회상하면서 할머니, 자연과 음식의 삼각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시간성’을 형성한다. 시의 첫 문구 “그 잎 여릴 적”에서 알 수 있듯이, 「조카의 이름 같은 꽃」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화자는 세월 내지는 자신의 나이마저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계절, “잎”과 “꽃”과 같은 자연에 속한 생명들의 상태로 파악한다. 자신의 어린 모습을 회상하던 중 시인은 그 “잎”이 어렸던 시기를 상기시킨다. 이는 곧 자연과 시인이 갖는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과 함께 자라난 시인은 할머니가 자연에서 받아들인 것을 “잎 따서 삶아 밥해”내며, 아이들이 “여린 잎에 하얀 밥 싸 먹”을 수 있게 준비한다. 여기서 밥이란 자연 및 모성과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향수’와 시간성에 맞닿아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아/가같은 손힘으로도 푹 푹 꺾”고 그 잎이 “커다랗게 자라 그늘 만들고 그늘 아래 비 그/으며” 마술사같이 잎에서 수박과 오이를 생기게 한다. 할머니는 시간성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자 그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할머니가 떠오르는 설거지물에 마치 오랜 시간 씻듯

/ 양은 밥주발 찢”는다. 즉, 할머니는 일반적인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창조하고 오이와 수박을 익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요리하는 사이에 읽은 “더/ 무성해”지고, “산”이 “똥고 그 산”에서 “버섯 돌아 오르”면서 마치 할머니가 자연과 함께 온 채소밭을 문득 생겨나게끔 하는 것처럼 보인다. 채소밭은 할머니와 자연의 독특한 시간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먹는 행위를 그러한 과정의 목표로 드러내기도 한다. 환연하자면, 자연과 어머니는 결국 ‘먹임’을 행사하기 위해 새로운 시간성을 창조하며 요리를 한다.

어머니는 자연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먹임’을 통해 다시 자연의 일부로 변화시키고 이로써 자신의 주체성까지 발휘한다. 이는 일정하게 타자되기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어머니와 자연의 타자되기는 그들의 주체화 과정을 말하는 한편, 그들이 직접 실행하는 ‘먹음’과 유일한 관계를 맺는다. 허수경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먹음을 행하면서 타자되기를 이루게끔 하지만, ‘어머니’는 이 점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머니는 ‘먹이’는 역할을 하지만, ‘먹음’을 단지 자신의 생명 부여 및 긍정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그는 다른 생명과 차별화되는 동시에,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을 더 탐색하기 전에, 자연과 모성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 모성의 상관적인 구조는 역사적으로 수용되어 왔으며,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린다 맥도웰은 여성과 자연의 관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⁸⁹⁾. 흔히 자연을(임신한) 여성 몸과 동일시시키는 경향이 있다. 맥도웰은 셔리 오트너 Sherry Ortner의 작업을 중심으로 그러한 결합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여성을 자연과 대비나 동일시시키는 보편적 경향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여성과 유사하게 열등한 자리에 놓여 있는 존재가 자연이다. 이렇듯 여성과 자연은 열등한 자리에

89) 맥도웰은 시몬 데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캐럴린 머천트(Carolyn Merchant)의 글을 차용하여 여성은 세계적으로 자연과 동일시되는 존재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여 이것의 문제성을 드러낸다. 머천트는 『자연의 죽음』(1980)에서 이 말을 했다.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연구회, 한울아카데미, 2017. 91쪽-98쪽.

놓이면서 남성의 지배를 받아 왔다. 이에 양자는 세계적으로 비유와 대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달리 남성은 문화culture와 결부되어 왔으며 여성 및 자연과 상관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⁹⁰⁾ 이에 페미니즘에서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은 강렬한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최근 에코페미니즘에서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을 긍정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이란 생태계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이론과 운동을 말한다.⁹¹⁾ 이것은 많은 학자들에게 여성과 자연의 이분법을 유지하는 본질적주의적인 운동과 이론으로 오독되어 왔다. 에코 페미니스트 그레타 가드Greta Gaard는 “에코페미니즘이 기후 정의, 식량안정보장, 야생동물의 멸종, 발육불량, 서식장 손실, 산업 고기 생산, 등은 사회적이며 생태계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생태계적이며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였다(인용자 번역).⁹²⁾ 또한, 에코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하나의 동일하고 통합된 범주로 간주하기보다는 여성들 간에 있는 차이를 인식해서 그것을 ‘여성들’로 구성한다. 허수경의 시 세계는 다양한 여성들을 나타내며 폭력으로 인해 생기는 이사, 폐허, 타자화, 처벌체계 등의 문제들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90) 맥도월은 셔리 오트너(Sherry Ortner)를 차용하여 남성-문화 그리고 여성-자연의 이분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여성과 자연의 연관 또는 자연의 여성으로서의 재현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1974년에 인류학자인 셔리 오트너(Sherry Ortner)는 자연을 문화로부터 분리하는 것, 그리고 자연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을 연관시키는 것이 초문화적 또는 보편적 남녀구분이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여성성이나 여성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데도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논증한다.

91) Gaard, Greta, “Gaard, Greta. “Ecofeminism Revisited: Rejecting Essentialism and Re-Placing Species in a Material Feminist Environmentalism.” *Feminist Formations*, vol. 23, no. 2, 2011, pp. 26-53. JSTOR, www.jstor.org/stable/41301655.

92) “The global crises of climate justice, food security, energy justice, vanishing wildlife, maldevelopment, habitat loss, industrial animal food production, and more have simultaneously social and ecological dimensions that require both ecological and feminist analyses.” (Gaard, Greta, 앞의 논문, 32쪽)

나희덕은⁹³⁾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로⁹⁴⁾ 시대에서 지구의 타락해가는 상태에 대한 염려를 허수경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2000년 이후부터 “지배적 감각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윤리를 모색하는 전환기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배적 체계를 극복하는 시를 쓰는 허수경은 이러한 시인들에 속했다. 허수경의 시는 “타자의 상황을 살피고, 안부를 묻고, 타자에 대한 기원과 고백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며, “청자 중심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허수경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을 통해 남성지배적인 사회에 타자화된 두 존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한편, 인류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심각한 태도와 책임성을 독자에게 전한다.

아이들 자라는 시간 청동으로 된 시간
차가운 시간 속 뜨겁게 자라는 군인들

아이들이 앉아 있는 땅속에서 감자는
아직 감자의 시간을 사네

다행이군요,
땅속에서 땅사과가 아직도 열리는 것은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땀을 역청처럼 흘리네

물 좀 가져다주세요
물은 별보다 멀리 있으므로
별보다 먼 곳에 도달해서
물을 마시기에는
아이들의 다리는 아직 작아요

언젠가 군인이 될 아이들은 스무 해 정도만 살 수

93) 나희덕, 「‘자본세’에 시인들의 몸이 어떻게 저항하는가」, 『창작과 비평』, 180호, 봄 2020.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94) 인류세란 인류가 지구 환경과 지구 생태계에 끼치는 지나친 영향의 지질 시대를 말한다.

있는 고대인이지요, 옥수수를 심을걸 그랬어요 그랬
더라면 아이들이 그 잎 아래로 절 숨길 수 있을 것을
아이들을 잡아먹느라 매일매일 부지런한 태양을 피할
수도 있을 것들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 푸른 마스크를 쓴 이는 누구의 어머니인가,
저 어머니들의 얼굴에 찍혀 있는 청동의 총,
저 아이를 끌고 가는 피곤한 얼굴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어머니인가
원숭이 고기를 끓여 아이에게 주는 푸른 마스크의
어머니에게 제발 아이들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그 청동의 시간도, 그 뜨거운 군인이 될 시간도

허수경, 「물 좀 가져다주세요」, 『청동』중에서 (전문)

『청동』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문구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은 「물 좀 가져다주세요」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 시는 『청동』 전체 시집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군인이 될 아이를 걱정하면서 그들을 숨기기 위해서 안전한 정소를 표상하고 있는 “감자”와 “땅속”에 들어가라고 한다. 따라서, 땅속의 시간, 감자의 시간은 아이들의 시간을 가리키며 안전한 시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은 폭력을 가리킨 청동의 시간(군인의 시간)에 대립된다. 어머니와 땅은 아이들의 보호자로 나타나며, 어머니는 그 땅을 안전한 장소로 변경시킬 수 있는 유일한 행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또 다시 음식, 자연, 어머니의 삼각관계로 ‘안전한 장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상을 볼 수 있다.

1980~90년대 시인들의 시에도 모성과 자연의 연관성 그리고 어머니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배옥주는 고정희 시에 나타난 어머니를 분석함으로써 “자연을 관장하는 무한한 힘을 가진 어머니는 가난하

거나 부자이거나 생명이 있는 모두에게 공기와 햇빛과 비와 바람 같은 소중한 사랑을 고봉으로 담아 나눠주는 존재”⁹⁵⁾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생명근원”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을 해방시키고 폭력이 존재할 수 없는 “평화로운 곳”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허수경이 드러냈듯이 이 장소는 절대적인 안전을 줄 수 없다.

자연과 어머니는 아이들을 폭력에서 보호해줄 수 없다. 화자는 “옥수수를 심을걸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아이들이 그 잎 아래로 절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후회한다. “물 좀 가져다주세요”라는 애원은 전시 기본적인 필수품의 부족을 드러낸다. “물을 별보다 멀리 있”는데, 그 “먼 속에 도달해서/ 물을 마시기에는/아이들의 다리는 아직 작”다. 즉, 어른이(여기서 어머니) 물을 가져다 줘야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생존할 수 있다. ‘물 좀 가져다주세요’라는 문구는 허수경 첫 시집에 나타난 「폐병쟁이 내 사내」와도 비슷하다. 「폐병쟁이 내 사내」에서 화자는 전쟁에서 돌아온 애인에게 “물 / 거두어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애인을 돌봐 주려는 마음을 드러낸다. 「물 좀 가져다주세요」는 여성노동과 어머니노동을 시사한다. 아이들은 아무 보호 내지는 돌봄 없이 아사와 갈증으로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연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아이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듯하다. “언젠가 군인이 될 아이들은 스무 해 정도만 살 수 있는 고대인”들이라는 시구는 아이들의 이른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말한다. 고대인들이 일찍 죽은 이유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근대의 아이들은 의학의 발달과 상관없이 전쟁에 의해 죽는다. 한편 이것은 과거에서 벌어진 전쟁이 현재에서도 다름없이 반복되어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과거 고대인들이 죽임당한 상황과 현재 아이들이 당한 죽음 간의 차이는 인간이 시간성을 파악하는 데에만 있다. 그러나 시인에게 두 시간은 차이가 없다.

시인은 과거와 현재라는 범주에서 떠나 시간을 “청동의 시간”과 “감자의 시간”으로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동의 시간은 폭력을 말하며, “감자

95) 배옥주, 앞의 논문, 185쪽.

의 시간”은 어머니와 자연의 평화로운 시간, 사랑의 공간을 말한다. 두 시간은 대립되면서도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은 아이들을 “땅속”에 있는 감자의 시간으로 보내고 안전하게 남겨지기를 바라지만, 폭력을 표상하는 청동의 시간은 그 아이들을 앗아간다. 청동의 시간에서 전쟁은 폭력적인 태양으로 상징되며 ‘먹는 행위’를 통해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아이들을 “잡아먹느라” 부지런한 태양은 자연과 어머니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삼키면서 군인으로 변하게 한다.

이제 청동의 시간으로 들어간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 푸른 마스크를 쓴” 어머니들이 나타난다. “저 어머니들의 얼굴에” 폭력의 시간, “청동의 총”이 “찍혀 있”음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끌고” 간다. “피곤한 얼굴”을 한 어머니와 자연은 아이들을 폭력에서 보호해줄 수 없지만 끝까지 아이들을 살려주려 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원숭이 고기를 끓여 아이들에게” 먹여준다. 요컨대 이 시에서 어머니들은 자연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시간성을 구축하는 한편, 아이들을 먹이는 역할도 한다. 허수경의 시에서 “타자와 세계를 끌어안으려는 욕망은 온몸의 감각을 통한 접촉의 열망으로 확대된다.”⁹⁶⁾ 어머니와 자연은 먹이는 노동과 새로운 시간성을 구축하면서 이러한 ‘접촉의 열망’을 확대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시간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인은 곧 새로운 세계 재창조의 장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96) 이기성, 「재난」, 309쪽.

3.2. 세계의 끝과 再창조의 장소로서 먹는 어머니의 ‘입’

아이들을 잘 낳던 여자들이 우리 마을에는 있네
아이를 낳고 버리고 아이를 낳고 버리고
열쫂 버리고 짐승을 낳아 키우네 버린 아이들이 퍼런 감처럼
감나무에 매달려 있네
감나무에 매달린 아이들이 울면
까마귀가 날아와 아이들을 쫓아대네

말우리에서 잠을 자다가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다가
개집 옆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다가
수탉이 잠든 옆에서 잠을 자다가
여자들은 꽃밭으로 가네
꽃밭에는 지렁이가 살고
여자들과 상관한 지렁이가 낳은 자식들도
우리 마을에 살고 있네

홍수가 나고 돼지들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 근처에 있는 바다로
가서 갈치밥이 되고 더
멀리 떠내려가서는 산등성이에 던져져 산더덕의 먹이가 된다

슬픔이 자주 풀로 나무로 스며들었다 남자들은 아파서 보건소를
드나들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거나 대륙철도를 타고
먼 곳으로 기차여행을 해보고 싶었던 여자들은 풀을 씹으며
울었다 먼 나라에 가고 싶어요 먼 나라에

먼 곳에서 벌어진 전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모깃불을 안고 퍼런 전파를 보다가 진짜 전장으로 가버린 남자들
남자들을 따라 전장으로 나간 여자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추었다

춤을 추다가 가끔 아편을 맞기도 했다
들판에서 단내가 녹진하게 나는 풀을 맞은 여자들은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끄러움은 여름 민물풀처럼 우거져
울어도 되는 일이 없는 세월이 스며들어와 마음에 거칠 것 없는 들판을 만든다
작은 아이들이 무더기로 몰려다니며 노래를 부른다
가슴이 무덤에 들어간 아이들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세월을 몰라 다리에 힘이 돌아 걸어도닐 만하면 집을 나갔
다
먼먼 등성이를 술 취해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많았다
못을 들고 제 가슴을 찌르며 남의 고행을 흉내내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 검은 어머니 노란 곡식 속에 사는 메뚜기를, 메뚜기가 파놓은 세계를 먹어주
세요

스민 슬픔은 아물지 않고 어디론가 가고
그 자리에 검은 군인이 우리 마을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다

허수경, 「검은 노래」, 『내 영혼』 중에서 (부분)

『내 영혼』과 『청동』 두 시집에서 어머니는 세계의 구원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어머니에게 삼켜지면서 재창조되는 세계가 등장한다. 「검은 노래」에서 전쟁에 몰입한 세계는 “어머니”에 의해 섭취되면서 구현된다. 시인은 특히 1990년 벌어진 걸프 전쟁과 1950년 한국 전쟁에 대해 말하면서 이 재창조를 그려낸다. 그는 여성을 단지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저항의 영혼을 지닌 존재로 나타낸다. 폭력의 순환에 갇혀 있는 여성은 “낮선 곳에서 낮 모르는 많은 남자들과 잠을 자”고 있지만, 여자들은 폭력에 “웃”음을 통해서 항거한다. 여자들은 어떤 억압을 당하든 늘 “순진하게 웃”으

면서 겪어낸다. 그들은 웃다가 “노인들에게 책망을” 들어도, “흠뻘 야단을 맞고도”, “나무에 매달려다” 죽고 있으면서도 계속 웃는다. 즉, 여자들의 ‘입’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저항의식을 지닌다. 첫째는 앞서 드러낸 ‘웃음’이며, 둘째는 ‘삼킴’을 통해서이다.

화자는 마을에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버리고 아이를 낳고 버”린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퍼런 감처럼/ 감나무에 매달려 있”으며 “울”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6.25 전쟁 이후 한국 여성들에 의해 버려진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 1950년대 한국에서 혼혈아는 특히 버림당했으며, 그 시기만 해도 만천 명의 아이들이 국제 입양된 것으로 기록된다.⁹⁷⁾ 아이들의 버림과 입양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2000년대에도 하루에 두세 명의 아이들이 국제 입양되었다.⁹⁸⁾ 버림받고 고아가 된 아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도 포함한다. 전쟁 초기부터 요구호 아동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⁹⁹⁾ 허수경은 한국전쟁의 이러한 면을 시에서 보여준다.

아이를 버리는 여자들의 모습은 유교의 가족주의적인 어머니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더 급진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허수경이 여기서 그려낸 모성의 모습은 어떤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체계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급진적이며 오히려 현실적인 여성에 가깝다. 또한, 이혜원이 주장한 것과 달리 여성은 ‘죽음’을 표상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보인다. 가난하고 사회에서 버림당한 여성은 “말우리”와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다가 지렁이만 상관할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터무니없는 현상이자 또 다

97) Burwell, Stacey N. 2018. “Child Abandonment and Adoption in South Korea: A Post-Korean War and Present-Day Analysis.” *New Visions for Public Affairs*, Volume 10, Spring.

<https://cpb-us-w2.wpmucdn.com/sites.udel.edu/dist/a/7158/files/2018/12/Child-Abandonment-and-Adoption-in-South-Korea-A-Post-Korean-War-and-Present-Day-Analysis-2eblcrw.pdf> Accessed April 28, 2020.

98) Kim, Eleana. *The Origins of Korean Adoption: Cold War Geopolitics and Intimate Diplomacy*. US-Korea Institute at SAIS, 2009, www.jstor.org/stable/resrep11137. Accessed 29 Apr. 2020. 4쪽.

99)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018. 321-351쪽.

시 버림당할 아이들이다. 그 다음 갑자기 세상의 끝이 다가온 것처럼 시인은 “홍수가 나고 돼지들은” “바다로/가서 갈치밥이 되고 더/ 멀리 떠내려가서는 산등성이에 던져져 산더덕의 먹이가 된다”고 말한다. 즉, 돼지는 세상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은 폭력의 순환을 나타내는 동시에 먹음과 먹히는 이미지로써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먹히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듯 보인다. 그 슬픔에 온 세상이 흠뻑 적시며 “슬픔이 자주 풀로 나무로 스며들었다.” 그 다음 시인은 남성이 전쟁에서 맡은 일을 묘사하면서 여성이 맡은 일과 차별화한다.

남성은 “아파서 보건소를/ 드나”들며 여자들이 “해보고 싶다면” 모든 것들,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거나 대륙철도를 타고/ 먼 곳으로 기차 여행”과 같은 일을 한다. 이와 달리 여성은 우리로 물어넣은 금기처럼 “풀을 씹으며/ 울”고 있다. 이것은 전시戰時 여성의 행위성이 그에게서 흠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원이 지적했듯이 전쟁은 주로 남성을 중심주체로 설정해서 기록되는 데 비해, 허수경의 시는 “약자들이 겪는 전쟁의 양상에 더욱 면밀하게 접근한”다.¹⁰⁰⁾ 그의 시에서는 버림당하던 아이들이 “등성이를 술 취해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와 같이 “못을 들고 제 가슴을 찌르며 남의 고행을 흉내”낸다.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은 죄 없는 그리스도와 비슷할뿐더러, 그리스도처럼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고문을 당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허수경은 아이들을 아니라 ‘어머니’를 구원자로 드러낸다. 시인은 “검은 어머니”에게 “노란 곡식 속에 사는 메뚜기를, 메뚜기가 파놓은 세계를 먹어주세요”라고 애원한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창조신화와 관련을 맺으면서 신화를 변경시킨다. 원래 신화에서 미륵이 물과 불의 근본을 찾다가 마주치게 된 “곡식 속에 사는 메뚜기”는 사소한 역할로 등장한다. 그러나 허수경의 ‘재작업’에서는 거룩한 존재 미륵이 아니라 메뚜기가 창조 신화의 중심이 되어 세계를 “파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러한 세상의 구원자로서 어머니는 미륵을 대체한다. 시에서 어머니는 세계를 먹음으로써 살려준다. 이것은 세계가 어머니에게 먹힘으로써 구원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입’이 창조와 파괴의 장

100) 이해원, 『전쟁 표상』, 147쪽.

소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대 메소아마리카의 창조신화는 세계파멸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며 허수경이 그려낸 창조-파멸의 구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특히 데이비드 카라쑈(David Carrasso)¹⁰¹⁾ 따르면 메소아마리카의 창조신화는 파멸의 신화이기도 하다. 그는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 이전의 메소아마리카 창조신화에서 지구가 '원시적인 입' primordial mouth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 신화에 따르면 신 탈테쿠히틀리의 몸이 파편화되면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세계가 창조된다. 카라쑈는 탈테쿠히틀리의 찢어지고 열려진 몸이 '지구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입이 된다고 보았다 (440쪽). 즉, 지구에서 얻어먹는 것들이 탈테쿠히틀리의 몸의 파편이며, 탈테쿠히틀리가 먹는 열매들이 그의 몸에서 생산된 것으로 어떤 카니발리즘을 구성한다. 여기서 엮보이는 창조와 파괴의 순환은 허수경의 '어머니'에게서도 목격된다.

허수경이 그려낸 '창조신화'에서는 어머니의 '입'으로 세상이 끝을 내며 재창조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먹는 행위는 배고픔, 착취, 살해 등의 여러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먹는 행위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해주는 인물로서 어머니가 나타난다. 어머니는 '먹는 행위'를 도구로 삼아 세계의 끝을 맺으면서 모든 생명을 '해방'시킨다. 따라서 시인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세계의 끝을 맺지만, 파괴는 창조와 관련되기에 '폭력'과는 차별화된다. 폭력은 나와 타자의 구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타자되기를 추구하고 있는 어머니의 먹음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어머니의 먹는 행위는 세계를 타자화시켜서 나타내지 않으며 타인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머니 내지는 모성의 창조적인 면을 강조한다.

1980년대부터 한국 여성 시에서 모성이 탐구되기 시작됐으며, 그 탐구가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계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 시에 나

101) Carrasco, David. "Cosmic Jaws: We Eat the Gods and the Gods Eat U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3, no. 3 (1995): 429-63. Accessed April 29, 2020. www.jstor.org/stable/1465087.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표기.

탄난 “창조적 모성”에 대해 쓴 박지해¹⁰²⁾는 모성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담론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루어졌다”(106쪽)고 본다. 여성 시인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설정해 온 모성의 의미를 거부했다. 그는 특히 허수경, 나희덕과 김선우 “모성의 치유성을”(108쪽) 공통적으로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박지해에 의하면 당대 여성 시인들은 여성이 자신을 남성과 다른 존재로 강조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모성성을 통해 스스로를 재탄생시”키고자 했다. 여성 시인들은 모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때 모성의 가치는 “치유성으로 갈무리된다. 세계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모성의 치유성이 그것을 화해시키고 통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수경은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만 여기에 모성의 ‘파괴력’이 추가된다. 허수경의 모성성이 창조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 창조의 첫 단계는 파괴다. 세상은 파괴되어야 다시 창조될 수 있다.

『내 영혼』의 뒤를 따른 『청동』에서 허수경은 세계 창조를 다시 나타낸다. 「흰 부엌에서 끓고 있던 붉은 국을 좀 보아요」에서 시인은 세상의 탄생을 부엌에 위치시킴으로써 여성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눈이 먼 사제의 딸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요리 장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¹⁰³⁾ 여성이 제거된 주류의 역사에서 허수경은 우주의 재생을 부엌에 위치시켜 여성을 역사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이와 더불어 그는 세계 창조의 과정을 요리하는 과정에 비유한다. 사제의 딸은 소고기를 사와 “다져서 볶”고, “고춧가루 마늘에다 은밀한 산그늘에서/ 가지고 온 고사리를 넣고 끓”이며, “세계를 국솥에/ 두고 끓”인다. 그러나, 갑자기 “귀 먼 용”은 사제의 딸을 “납치”한다. 이에 방치된 ‘국솥’ 안에서 폭력이 이루어진다. 국이 “끓”어지고 “세계가 화덕에서 검게 졸아”들게 되며, 이제 “붉은 아픈 국”이 된다. 여기서 허수경은 여성을 세계 창작의 요리사로 내세우려 하지만, 이야기는 비극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세계를 자

102) 박지해, 앞의 논문, 105쪽.

103) 조강석은 눈이 먼 사제의 딸은 세계를 요리하고 있는 듯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강석, 「또 다른 레시피-허수경론」, 『문학과사회』 2005.)

신의 ‘흰’ 부엌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눈 먼 사제의 딸은 폭력을 당하고, 세상이 망하여 붙어진다. 이기성¹⁰⁴)은 시인의 후기 시에 대해 말하면서 허수경이 ‘먹는 행위’를 세상의 끝을 드러내는 데 활용했다고 본다. 그는 허수경의 후기 시 「오후」에서 황무지의 입으로 세계가 “삼켜”지면서(309쪽) 끝을 맞이하는 이미지에 주목한다. 여기서 “황무지의 ‘입’은 삶과 존재를 집어삼키는 문명의 폭식성을 환기하고 있다.”

『청동』의 제4부 ‘저 물 밀려오면’에서 시집은 세상의 끝을 묘사하면서 어두운 분위기를 품게 된다. 「폭풍의 밤」에서 화자는 세상의 끝이 다가올 수록 광란 상태에 빠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어느 날, 그 숲 속에는 작은 다람쥐들이 하늘로 올라가/ 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까 걱정하며 “잘못 보았다고,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보았다고요” 애원한다. 「배」에서 화자는 “해그늘/ 하늘그늘/ 맑은 그늘”로 인해 어둠속으로 감추어진 세상에서 “멸칠국물에 만/ 흰빛국수 먹고/ 오래서 있다, 마치/ 오늘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느낀다.

「여름 내내」에서 사과나무 아래 책을 읽고 있는 화자는 세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사과나무의 사과가 책 안에 들어가면서 책 안의 타자는 사라지고, “사과나무도 구름도/ 해도 하늘조각도 사라지는 자리에서” 화자만 남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 이 기다림은 세상의 재생에 대한 기다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쁨이여」에는 “슬픔의 껍데기를 쓴 기쁨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나는 바라본다, 마치./ 잘 차린 식사가 끝나고/ 웃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가족 같은/ 기쁨이여”라는 구절이 나타나며, 식사를 ‘제사를 지내는 것’과 대조하여, 끝의 다가움을 인지한다. 그러나, 이 끝은 ‘슬픔’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기쁨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

『청동』의 마지막 시 「저 물 밀려오면」에서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고 물 밀려온 후에 화자는 “그 물 위 뒤 모래밭에서 깨어난 새 마늘 짙을까,/

104) 이기성, 「재난을 예감하는 무녀의 언어 -허수경의 시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창작과 비평』, 2011. 이하 이 논문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말까./ 그 물 위 햇고추 말릴까 말까”하고 고민한다. ‘사과’, ‘멸칠국물’과 ‘햇고추’ 등은 일상생활을 상징하는 반면에 세계의 끝은 일상에서 떠난 끔찍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상적 상황과 비일상적 상황의 대립적인 배열은 허수경이 전쟁 직전의 바그다드를 묘사할 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허수경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바그다드 시에는 수박과 바나나, 오렌지를 가득 실은 마차와 갖가지 빵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작은 소년도 있었다. 물담배를 느긋하게 피고 있는 노년은 설탕이 많은 든 차를 앞에 두고 저물어가는 저녁을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고 한 바 있다.¹⁰⁵⁾ 그는 음식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쟁 직전의 바그다드의 평화와 일상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이러한 일상적 상황과 비일상적 상황의 대립적인 배열은 특이하다.

음식에 내재하는 생명력은 세계의 끝을 의미하는 죽음과 또 하나의 대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면서 허수경은 이 두 과정이 우주 재생에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한다. 세계가 끝을 맺어야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다. 환연하자면, 허수경이 그려낸 어머니는 자연과 협력해서 새로운 시간성을 만들어내며, 이에 어울려 새로운 세계의 창조까지 성취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의 ‘입’으로 삼켜지면서 옛날의 체계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어머니가 이러한 세상을 창조해나가는 것은 주체와 타자를 가르는 경계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는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105) 허수경, 『모래도시를 찾아서』, 현대문학. 2005. 10쪽.

4. 먹는 행위를 통해서 구축되는 타자들의 공동체

4.1. 진주 음식과 사투리의 자연적인 연합

프랑스의 문학 이론가이자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는 음식이 의사소통의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음식은 언어와 유사하게 자기만의 기호를 가지면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음식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러스도 언어와 음식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필자는 언어의 ‘부호’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살펴보아야 진정한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허수경에게 있어서 음식은 언어처럼 하나의 부호와 기호로서 작동하고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바르트는 자본주의하에서 생산 유통되는 음식 광고의 ‘언어’에 관심을 가졌다면, 허수경은 음식이 지니는 고향의식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여성주의에 더욱 주목했던 것 같다.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주로 방언과 표준어의 갈등, 한국어와 외국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우선 허수경의 시에 등장한 방언에 주목해보자.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방언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고향의식과 여성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먹는 행위가 암시되고 있는데 언어와 함께 생명 전체가 상호 타자화되는 요소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타자되기’는 허수경의 시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의 첫 시집에서는 비록 완전히 성숙된 개념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되기’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기다림이사 천년갈제 날이 저물세라
강바람 눈에 그리매 지며 꺾불 불과하게
망경산 오르면 잇몸 드러내고
휘모리로 감겨가는 물결아

지겹도록 정이 든 고향 찾아올 이 없는 고향

문디 갈아 반푼 갈아서 기다림으로 너른 강에 불씨 재우는
남녘 가시나
주막이라도 차릴거나
승냥이와 싸우다 온 이녁들
살불이보다 현출한 이녁들

거두어나지고
밤꽃처럼 후두둑 피어나지고

허수경, 「진주 저물녘」, 『슬픔』중에서 (전문)

진주의 사투리와 풍경은 그의 첫 시집에서부터 등장한다. 이는 고향의 식과 향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허수경 시학에서의 자연에 대한 의의도 내포하고 있었다. 「진주 저물녘」에서 시적 화자는 방언을 활용하여 그리운 고향을 그려내고 있다. 화자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천년갈제” 기다려도 기억으로만 다가갈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었다. 이에 대해 서영채는 허수경의 고향이 “찾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찾아와야 할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고향은 ‘기억’을 통해서 접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화자는 ‘기억’을 통해서 진주의 “강바람”을 생생하게 再경험함으로써 “눈에 그리매 지며 꺾불 불과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고, 진주의 풍경을 육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자연 풍경과 조화를 이룬 화자의 몸은 “망경산 오르면 잇몸 드러내고 휘모리로 감겨가는 물결”을 목격하면서 자연도 여럿의 몸으로 구성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즉 화자는 강, 바람, 산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동물도 자연에 속해 있음을 부각했던 것이다. “강에 불씨 재우는 남녘 가시나”와 “승냥이와 싸우다 온” 모두를 유일하게 자연과 관계를 맺도록 하였는데, 이는 각 존재들을 언어에 침투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상호간의 ‘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

은 이 되기가 ‘언어’ 혹은 ‘방언’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첫 시집이 나올 때 허수경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서울 말을 직면하게 된 그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이 그리움에는 고향뿐 아니라 현지의 말도 포함이 된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언어’란 진주 사투리라는 점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허수경은 방언을 활용하여 자기만의 시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허수경의 이러한 방언을 활용하는 ‘말법’은 미당 서정주로부터 계승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신범순은 허수경의 시에서 “세상의 어떠한 곳에도 정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터득한 지혜라고 할 만한 것이 옛보”였는데, “그러한 지혜는 서정주가 주로 전라도의 민중적인 생활담론과 그들의 노랫가락 속에서 찾아냈던 것이”¹⁰⁶⁾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서정주가 현실을 견디기 위해 말속에서 내세운 “‘공간의 여유’”를 주목하면서 그러한 “현실을 데리고 노는” 말법과 “구슬리는 말법”이 허수경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허수경의 시가 ‘현실을 데리고 노는 말법’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말법은 방언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허수경은 모어를 선택 이전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¹⁰⁷⁾ 그러므로 모어란 인간의 ‘선택권’을 넘어 ‘자연’에 속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투리의 사용이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시각에서 다시 「진주 저물녘」을 살펴본다면, 언어는 자연과 관계를 맺고 모든 생명은 그 안에 포괄하게 됨으로 상호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시에서 방언은 강, 산, 인간과 동물을 연결함으로써 각 존재 간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모든 생명이 협력하도록 만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끔 한다. 이 시에서는 음식이나 먹는 행위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되기에 필요한 언어와 자연, 그리고 음식의 삼각관계의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흥미로운 점은 먹는 행위도 언어와 비슷하게 선택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106) 신범순, 「부서진 육체」, 1016쪽.

107) 허수경, 『가기 전에』 참조.

모든 생명에게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어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우리는 언어를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듯이 먹는 행위 역시 자연의 일환으로서 언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언어와 먹는 행위는 필수적인 조건이자 자연의 부분으로서 되기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되기와 관계에서 언어와 먹는 행위의 구조는 「땡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인의 여성성에 닿아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소나무는 제 사투리로 말하고
콩밭 콩꽃 제 사투리로 흔드는 대궁이
김 매는 울 엄니 무슨 사투리로 일하나
김 매는 울 올케 사투리로 몸을 터는 흙덩이

울 엄니 지고 가는 소쿠리에
출렁출렁 사투리 년출
울 올케 사투리 정갈함이란
갈천 조약돌 이빨 같아야

허수경, 「땡별」, 『슬픔』 중에서, (전문)

이 시에서 허수경은 방언을 여성과 연관지어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어머니가 특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어머니의 언어를 부각함으로써 억압당한 여성과 무시 받던 방언을 전면에 내세운다. 「땡별」을 보면 자연의 일환으로서의 “소나무”와 “콩밭 콩꽃”을 “사투리”로 말하면서 “김 매는” 화자의 “엄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머니는 김을 매면서, 그러니까 농사를 하면서 자연과 유사한 언어로 소통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세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입’은 먹기와 언어의 장소로서 모성과 연관되어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허수경의 시에서 나타난 입은 어머니의 입을 의미하면서도 종말론적 의미도 함께 지닌다. 일반적으로 종말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전의 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등장한 입은 그러한 종말을 뜻하기보다 오히려 생명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성과 연관지어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환언하면,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방언은 모성과 자연의 언어이기도 하면서 특이한 생명의식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사투리는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인간과 자연은 상통하면서 하나의 몸을 갖게 되는데, “김매는 올 올케 사투리로 몸을 터는 흙덩이”라는 시구에서도 김과 흙덩이는 사투리로 몸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을 언급하면서도 시인은 각 객체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으로 보이면서 ‘되기’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주저물녘」과 같이 시에서는 되기가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되기의 흔적은 자연과 어머니를 연결해주는 ‘사투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는 먹음의 장소인 ‘입’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먹음보다 앞선 행위인 ‘김’에도 배어 있다. 언어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먹음을 암시하고 되기의 장소를 마련한다.

셋째, 사투리는 ‘농사 노동’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자연의 한 부분을 이루는 행위로 나타난다. 즉 언어는 사람과 자연뿐 아니라 농사 노동까지 ‘되기’의 장 속에 끌어들었다. 따라서 “김 매”는 행동과 “소쿠리”를 “지고 가는” 농사 행동은 자연과 어머니를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모성과 생명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 한편, 어머니가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는 중심축으로 표상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서, 어머니는 사투리를 통해서 자연에 속할 뿐 아니라, 그 사투리로 인해 어머니의 모든 행동까지 자연에 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타자되기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어떤 공동체를 내세우고 있던 것이다. 자연과 먹음, 그리고 방언의 관계는 시 「우연한 나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수경의 타자되기가 첫 시집에서 초보적 단계에 머물렀다면 세 번째 시집부터는 거의 완성된 상태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언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 영혼』에 수록된 「우연한 나의」에서는 우연한 것을 자연적 차원의 일환으로 나타냈다. 앞에서는 죽은 새에 주목했다면 이 장에서는 시의 언어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자는 “내 마을은 우연한 나의 자연/ 내 말은

우연한 나의 자연”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마을”과 “말”은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즉 화자는 고향과 현지의 말이 자연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화자 역시 자연에 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밝혔듯이, 「우연한 나의」에서 화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먹히는 것의 주체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창문에 부딪혀 죽어가는 새를 아무도 안 먹는다고 언급하면서 ‘우연’과 ‘의도’를 대조시킨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연히 죽은 새는 자연에 속하지만 인간의 의도(intention)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즉 인간은 우연히 죽은 새를 거부하면서 자연도 함께 거부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의도적으로 행하여야 비로소 먹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우연과 의도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입’이다.

시에서 비록 ‘입’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입’이 언어와 먹음의 장소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입은 언어의 장소이자 ‘우연’을 표상하는 자연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먹음도 우연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했지만, ‘의도’에 내포된 갈등으로 인해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입은 의도적으로 먹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연과 멀리하여 자연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그 자연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입은 오직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표출되는 언어도 자연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되찾을 수 있다. 환언하면 언어와 자연의 조화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와 ‘사랑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타자와 주체의 위계 관계는 사라지면서 타자되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어와 자연의 분리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타자화시킨다.

‘입’이라는 장소에 다시 주목해보자. 먹음은 무언가(먹을 것)를 입으로 삼키거나 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의사소통은 무언가(소리)를 내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뱉고 삼키는 과정은 음식물과 입 사이의 경계들을 모호해지게 한다. 이것은 몰(Mol)이 주장했던 먹음의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몰은 먹는 자가 먹음을 행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뱉거나 토할

수 있는 한편, 먹은 후에서도 그것을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자와 음식물의 경계를 깨트린다고 하였다. 개체들의 경계가 서로 뒤섞이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이 현존하는 환경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환경의 일부는 공기로 구성되어 있기에 먹는 과정에서 공기가 입안으로 들어가면서 먹는 자와 음식물은 뒤섞이게 된다. 그러나 허수경과 달리 물은 자연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이론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사상을 시인의 시 세계에 비추어 본다면, 물이 해명한 ‘되기’가 자연의 일환으로서만 진행될 수 있다. 즉 자연과 분리되거나 대립되는 것들이 그것에 속하지 못한 채 타자되기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언어적 분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방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서 구축된 공동체는 ‘진주’의 ‘사투리’로써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진주’라는 곳의 의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허수경의 첫 시집을 훑어보면 ‘진주’라는 말은 시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1부의 제목은 시집의 첫 시와 유사한 ‘진주 저물녘’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진주가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미에는 그의 시세계를 통시적으로 나누어 각 시집에서의 고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¹⁰⁸⁾ 첫 시집은 “고향 진주의 삶과 고향에서 바라본 세계를 담고 있다”(1쪽)고 하였고 그 후의 시에서도 진주에 대한 “회상”과 “국외자로서 공간적으로는 재독(在獨) 동방의 이방인(異邦人)의 위치에서 살고 또 시 쓰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허수경은 그의 시에서 고향을 거듭하여 소환했던 것이다. 2011년은 시집 『벌어먹을』과 장편 소설 『빙하』를 발표하면서 “독일에 살아도 온전하게 독일어로만 사는 게 아니”¹⁰⁹⁾기 때문에 독일인이 되지 못했음을 밝힌 바 있는데, 허수경은 이처럼 향수가 담긴 모습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허수경의 언어에는 이런 회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서 논의되는 언어란 어머니와 자연의 언어이자 ‘민중’

108) 이미예, 「귀향 의식」 논문 참조.

109) 오은, 앞의 글 참조.

의 언어를 지칭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집은 한국 백성을 중심으로 쓰인 것이며 시인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방언’으로 표출해냈다. 이상규는 방언을 “민중들의 언어”라고¹¹⁰⁾ 규정하면서 “민중들의 언어는 삶 속에 살아있는 생동한 언어라는 점에서 민중성과 변두리(지방)성을 그리고 현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즉 민중의 언어로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데 가장 적합한 언어가 방언이라는 얘기겠다. 또한 문학 작품에서 방언은 “향토적 특성, 심미성, 민족(부락)의식 등 정서적 층위를”¹¹¹⁾ 표출하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지역 방언(regional dialect)으로 나타나는데, “향토적인 인물의 개성적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문학적 차원에서 방언은 지역적 차이 및 향토적인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는데 허수경도 민중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방언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어디멘가 마을 복사꽃들 사이 저 포크레인
가네 꽃들 연한 살을 순하게 따먹는
저 포크레인

마치 봄두렁에 황소 한 마리
노랑나비 달고 다복다복 가드끼.....
강을 넘어
산을 넘어
경계를 허무니 저 또한 건달 아닌가

그 어디멘가 포크레인 진경을 그리며
산수의 담담함 속을

담담히 허물어지는 저 진경!
살을 이겨져 냄새만 독헌디

110) 이상규,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새국어생활 제13권 제4호, 2003.

111) 이상규, 위의 논문, 45쪽.

저 또한 건달 아닌가, 별것 아닌 것거치

마치 환한 노랑나비달고
싸묵거리는 황소거치.....

허수경, 「산수화 -그 어디멘가 포크레인은」, 『혼자』,중에서 (전문)

두 번째 시집에서도 ‘되기’는 미완성된 상태였지만 ‘먹는’ 행위는 그 등과 함께 성적인 이미지도 함께 나타냈다. 우선 먹는 행위에 주목해보면, 「산수화-그 어디멘가 포크레인은」에서 자연과 “포크레인” 각 존재 간에 타자되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포크레인은 “꽃들 살을 순하게 따먹”으면서 그들과 연합하였는데, 먹음을 행함으로써 포크레인은 그의 개체를 벗어나 경계를 위반하는 “노랑나비달고” 혹은 “싸묵거리는 황소거치”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포크레인은 먹음을 행함으로써 나비와 황소의 정체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몸의 유연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되기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을 수 있다.

또한 포크레인은 논이나 밭에 경계를 이루는 “봄두렁”을 무너뜨리는 “황소 한 마리가” 되어서 자연과 그것을 분리하는 경계를 “강을 넘어/ 산을 넘어”서 허물어 가고 있다. 때문에 “포크레인”은 경계를 허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재구축하는 힘도 지니고 있다. 즉 “진경을 그리며/ 산수의 담담함 속”에 들어가는 포크레인은 “진경”을 “허물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는 경상남도 사투리로 쓰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되기’는 방언에 의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음식과 결합하여 개체 간에 되기를 가능케 한다. 진주의 ‘산’과 ‘강’, 그리고 ‘소’를 연결시키는데 현지의 말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환언하면 이 시에서 방언은 되기가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셈이다.

낮을 가져다
내 허리를 짚어라
찍힌 허리로
이만큼 왔다
낮을 가져다
내 허리를 또 짚어라
또 찍힌 허리로
밥상을 챙긴다

비린 생피처럼
노을이 오는데
밥을 먹고
하늘을 보고
또 물을 먹고
드러눕고

허수경, 「詩」, 『혼자』중에서 (전문)

「詩」에서도 먹는 행위와 방언은 자연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 시에서 “낮을 짚”으면서 농사하는 행위는 한편으로 자연과 연관을 맺고 다른 한편으로 농사를 통해 먹음을 행하고 있다. 또한 먹는 행위는 자연을 지배하듯이 “비린 생피처럼/ 노을이” 음식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화자의 생활은 “밥을 먹고/ 하늘을 보고/ 또 물을 먹고/ 드러눕고” 일어나는 반복적 행위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화자의 생활은 어떤 순환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 자기의 정체성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름과 주어의 부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노동, 먹는 행위, 사투리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만 화자의 정체성이 부여받는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인이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각 개체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상호적으로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 시의 제목에 주목해보면 시인에게 있어서 ‘시’란 방언, 진주, 먹는 행위와 자연의 연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사를 하는 사람과 시골 생활 자체가 하나의 시임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시인이 구축한 진주의 공동체에는 자연, 인간, 동물 및 농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진주의 언어, 즉 경상남도 방언은 모든 개체들을 연합시켜 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방언은 먹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되기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진주의 공동체가 이야기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민족주의’로 일컬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허수경은 스스로 ‘민족 집단’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문을 드러낸 바 있다.¹¹²⁾ 그는 “민족이라는 말을 할 때 망설”였다고 서술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말은 인종이나 국가나 하는 말처럼 정치에 오염”되었기(55쪽) 때문이다. 즉 민족이라는 말은 ‘인종’과 ‘국가’와 같이 어떤 공동체를 지칭함과 동시에 다른 집단을 타자화시키면서 확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인도 민족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실토했고 “다만 혼돈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허수경이 민족이라는 말을 국가와 인종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집단’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시에 나타난 동질감과 연대는 ‘집단적’ 또는 ‘체계적’인 연대가 아니라 개개인의 연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내 영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듯싶다.

몸의 눈을 닫고 마음의 눈으로 나는 다양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낯선 종교와 정치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나라는 한사람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한국인이라는 나와 나라는 나, 그 사이에 섬처럼 떠돌아다니던 시간들.

그러나 시를 쓰는 나는 한국어라는 바다에서만 머물고 있었다.

허수경, 「시인의 말」
『내 영혼』, (부분)

112) 허수경, 『모래 도시』. 이하 이 책의 쪽수만 병기.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수경은 스스로 “다양한 세계”를 찾아 보려고 했고 “나라는 한사람이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연과 인공적인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교착되었는지 살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과 “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변별할 수 있는 경계를 탐구하려고 했다. 이때 그는 본인 스스로 “한국어라는 바다에서만 머물고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모어에 속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모종의 의미에서 한계로도 비춰질 수 있겠지만, “시를 쓰는” 자신이 “한국어”를 통해서만 시 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유의 근거도 제시해주고 있다. 즉 허수경은 민족이란 말을 부정하고 그것을 불편해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본인은 한국인이란 점을 늘 의식하면서 창작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허수경만의 독특한 공동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고독’의 공동체라고 이름할 수 있겠다.

4.2. 먹는 행위와 ‘고독’의 공동체의 구성

그 양반 생각만 하모 지금도 오만간장이 다 오그라붙제
무정한 양반 아니여 유정한 시절 꽃 분분 가슴살에 꽃힌
바람 된통부를 꽃물 듣는 아린 날 눈뜨면 멀어질새 눈감
으면 흠어질새 부러 감은 듯 마는 듯 다소곳 숨죽인 듯
화들짝 불에 데인 듯 떨며 떨며 천지간에 둘도 없이 초승달
떼구름 흰 옷고름 개켜 넣으며 설핏허니 굴참남게로 넘
어가면 이년 눈이 뒤집혀 병든 애비 버려두고 꺼짐부리
살림 접어두고 고만 밤도망질 치고 말았제 무정한 양반
대처살이 모질새 애먼년 눈 맞춰 나 버려두고 간 뒤 그 밤
만 생각하모 불쌍한 울 아버지 쿵쿵 가래 기침에 얹어지
며 끓여 먹을 냄비밥 간장종지가 더 애달데이 더 목매인
데이

「입맞춤」, (전문)

옆집 앓은뱅이 총각 밤 몰래 끌려가 앓은뱅이 되어 돌아오더니담 돌이 포개앓은
이웃집 처자 내게 고데 말 없이 소월 노래깨나 적어 보냈지 심심한 한낫 배고픈
햇발을 이고 살그머니 담장으로 전해지던 소월 노래는 이른봄 아린 입술 들이밀
던 개나리 되어 옆집 앓은뱅이 총각 상여에 가서 피었네 내 무슨 황진이라고 속
곳 벗어 시린 상여 위에 얹어두고 싶었네 진눈깨비 내리던 상여길 남 몰래 눈물
흘리며
따라가며

허수경, 「상여길」, 『슬픔』, 중에서 (전문)

허수경은 그의 시에서 공동체를 등장시키는데 이는 특징적이게도 개인
적 공동체이다. 비평가 정영자는 허수경이 “설화적 끈적거림을 통하여 대
담하게 남녀관계의 적나라한 욕정과 가출의 불량성, 시대의 방황과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¹¹³⁾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고독’을 노래하는 시
인 허수경은 인간 개인의 삶을 찬양하지 않을 리가 없다. 따라서 그는 이

런 과제를 방언을 통해 진행하였기에 방언이 차지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 첫 시집에서 시인은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고독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여기서 보여지는 먹는 행위나 음식물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입맞춤」에서 화자는 “밤도망질 치고 말았”던 “무정한 양반”인 애인에 대해 탄식한다. 그 “양반”은 “이년 눈이 뒤집혀 병든 애비”와 화자를 버려두고 ‘도망’치는데, 버림받은 화자는 아버지를 돌봐주는 일은 홀로 도맡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끓여 먹을 냄비밥 간장종지가 더” 애달프게 느껴지는데 냄비에 지은 밥이 그들의 가난과 무력함을 더욱 생동하게 보여준다. 즉 시인은 고독으로 그려진 진주에서 사랑의 공간과 공동체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여길」로 이어지게 된다.

「상여길」에서는 “얕은뱅이 총각”과 그의 애인 “처지” 사이에 주고받은 연애편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시는 1980년대 학생운동과 민중항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들도 폭력에 억압당하는 상징인물로서 나타난다. 시에서는 “얕은뱅이”가 된 이유가 “밤 몰래 끌려가” 고문을 당한 것임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두 애인은 직접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며 얕은뱅이 총각의 옆집에 사는 화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처자가” 화자에게 “말없/이 소월 노래깨나 적어” 주며 화자는 “심심한 한낫 배고픈 햇발/을 이고 살그머니 담장으로 전해”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자’와 ‘배고픔’이다.

그 사이에서 피어난 “개나리”를 보면서 편지를 전달해주던 화자가 두 사람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지만 결코 사랑을 이루내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낀다. 이름 없는 화자는 두 애인에 의해서 정체성을 부여받지만 막상 자신은 고독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화자의 ‘배고픔’은 개인의 고독이자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화자의 배고픔은 두 애인의 ‘배고픔’이기도 하다. 늦은 밤에 끌려간 ‘얕은뱅이’가 고문으로 죽게 되면서 애인인 ‘처자’와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해 살고 있는 화자를 홀로 남겨놓았다. 그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애인 사이에서 피어났던 “개나리” 꽃이 “상여길”에 “가서

113) 정영자, 앞의 책, 366쪽

피”고 있는데, 화자도 그 상여길과 같이 떠나려 한다. 화자는 자신의 몸을 “황진이라”서 “속곳 벗어 시린/ 상여 위에 얹어두고” 싶다는 마음을 밝힌다.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몸을 ‘황진이’에 비유하면서 ‘속곳을 벗어’ 죽은 자에게 접촉하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말하자면, ‘옷을 벗긴’ 몸, 즉 알몸의 상태는 죽은 자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한편 몸의 ‘유연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화자는 제 몸 기운으로 “시린” 상여를 따듯하게 해주면서 죽은 애인과 같이 “남몰래 눈물 흘리며/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접촉’은 음식물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식물은 ‘경계’를 내세우는 일을 한다. 이 경계들이 인간을 ‘인간’이라는 범주 속에 구속시키는 한편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만든다. 이 시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보다 사람지간의 관계가 보다 중요시된다. 그렇다면 접촉이란 이러한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먼저, 배고픔이란 ‘미접촉’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인지하여야 한다. 화자는 두 애인의 사랑을 직접 받지 못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남겨지지만 두 애인의 편지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사랑에 간접적으로나마 ‘접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촉은 간접적인 것이므로 그렇다고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화자는 접촉과 단절 사이를 오가면서 경계 깨기에 앞장섰던 것이다. 이 경계들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깨졌고 되기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

정리하자면 위의 두 시에서 진주의 사람들이 겪는 고독은 아름다움과 아픔을 모두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먹는 행위와도 연관성이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먹는 행위는 ‘먹임’과 돌봄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경우는 ‘배고픔’으로 그려진다. 고독과 먹는 행위는 각 시에서 다르게 전개되면서도 인간 고독과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존재마다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각자로서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인이 추구하는 타자되기는 결코 각 개체의 정체성을 지워버림으로써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유고집 『가기 전에』에서 서술한 바 있다.

내 세대는 아직도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또 어떤 의미에서 내 세대는 '적'과 오랫동안 대치하면서 '적'의 얼굴을 닮아갔는지도 모르겠다. 내 세대는 유감스럽게도 '개인'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신이 당한 억압을 통하여 내면을 해방하는 것에 실패한 세대인 것이다 ('내 세대라'고 적었지만 이건 나만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시인이어서 시를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내 안에 든 수많은 나와 타자, 다양한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정의되지 못하는 '인간의 시간'을 보고 싶었다.

허수경, 「시인이라는 고아」, 『가기 전』중에서 366쪽

위의 인용문에서 허수경은 민족과 집단이란 말에 대해서 염려를 드러낸 이유는 집단이 개인에게 가한 억압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집단은 개개인의 정체성을 흡수함으로써 그들을 오직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한다고 하였다. 특히 80년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대의 노동운동, 학생운동에 대해서 허수경은 모를 리가 없었다. 그는 그들의 희생을 인식함과 동시에 집단에 속해 있기에 독재적인 체계를 재현해 갔었다고 밝혔다. 즉 그는 자신의 시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의 얼굴을 “닮아갔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따라서 개인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만의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나와 타자,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고로 허수경은 체계적인 구속을 벗어나 자기만의 공동체를 내세우려고 했다. 시인은 “유감스럽게 '개인'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타자를 의식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타자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공동체는 『청동』에서는 방언과 표준어의 갈등으로 전개된다.

허수경은 『청동』에서 방언과 표준어의 대립을 보여주었다. 방언은 민중 목소리의 표현뿐 아니라 시인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청동』의 1부는 '진주의 말로 혹은 내 말로'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는데 시인은 여기서 먼저 진주 방언으로 연작한 다음 표준어로 변경하였

다. 이는 시인의 언어가 다성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걸 보여주며 또한 시인이 진주의 말을 “내 말”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표준어는 그의 “말”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그는 진주 방언을 사용하여 고향을 회상하고 진주 음식물을 그려내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성은 “이 글로벌한 시대에 ‘고향’이란 부재하는 기원을 은폐하는 허구적 상상물이며, 수시로 환기되는 음식의 이미지 여깃 고향이라는 텅 빈 공백을 대신하는 씩씩한 기호들로만 출현하게 되는 것”¹¹⁴⁾이라 하였다. 조후종¹¹⁵⁾은 한국 음식을 ‘곡물음식’, ‘고기음식’, ‘생선음식’, ‘채소음식’과 ‘기호식품과 한과류’의 5가지로 나누었는데,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음식은 곡물음식과 고기음식인데, 이들은 일반인들이 평소 자주 찾아 먹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비 내리는데 노천식당 앉아 밥 먹는데 여기는 작은 항구마을 조갭지 배들 채소찬 많은 밥상처럼 들어와 있는 곳 굴 내음 사무치면 서먹하게 해초무침 뒤집던 손 자꾸 물결로 가게 되는 곳 물결 건너 작은 섬 하나 있어 오십 년 전 전쟁 때 눈동자 없이 죽은 이 그 눈동자가 먼 꽃에 든다	비님 나리시는데 노천밥집 안조로미 밥 드는데 이데는 자근 항구말 조갭데기 배드리 푸성귀소 많은 밥상드림 들어와 있는 데 서과내 사무드멘 서더먹케 싱경이무침 뒤더기던 손 들썹 들썹 물화리 가게 되는 데 물화리 너머가리 자근 섬 한 도두 이서 반백 허리 전장 적 눈동자 거이 없이 두어 두리머리 간 녀
--	--

114) 이기성, 「재난」, 310쪽.

115) 조후종, 「우리 음식 이야기」, 한림출판사, 2001. 15쪽.

<p>그가 다시 볼 수 있다고 말하지 마오</p> <p>비 내리는데 노천식당에 앉아 지나가는 새 보는데</p> <p>「항구마을」, 허수경, 『청동』, (전문)</p>	<p>그넛 눈동자, 먼 꽃 드누나</p> <p>그넛 다신 볼 수 있다 말하지 말아여</p> <p>비뼀 나리시는데 노천밥집 안조로미 드나가는 새낭구 보 는데</p> <p>「항구마을—진주의 말로 혹은 내 말로」, 허수경, 『청동』, 『가기 전』중에서 (전문)</p>
--	--

위에서 인용된 두 시 「항구마을」과 「항구마을—진주의 말로 혹은 내 말로」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시인의 시간의식과 먹는 행위에 관한 의식도 엿볼 수 있다. 시인은 표준어와 방언을 위와 같이 구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갈등을 털어놓는다. 따라서 그는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규정하면서 자신을 자연의 일환으로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어는 자연적이지 않은 인공적인 것으로 정립하게 된다. 허수경이 드러낸 이와 같은 표준어와 방언의 대립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20세기 초에 근대문학의 형성과 매체의 발전은 언어에 대한 논쟁을 유발한 적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문투와 국한문혼용체가 지양되었으며 순언문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임무를 위임받았다.¹¹⁶⁾ 그러나 순언문의 확립이 곧 방언과 사투리의 지양을 의미하기 시작했다.(340쪽) 이처럼 방언은 1920년대부터 표준어에 비해 낮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런 대립은 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허수경은 이러한 대립을 의식하면서 이를 시에 반영했던 것이다. 『청동』에서 보이는 표준어와 방언의 갈등은

116) 김도경, 「표준어의 이념과 ‘사투리’의 탄생 - 1920년대 문학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 『한국어문학학회』, 2012. 339쪽. 이하 이 논문의 쪽수만 병기.

이러한 변증법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허수경은 “어떤 말은 어떤 말보다 정치적인 힘이 커서 다른 말을 쫓아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말이 모어인 사람들에게 모어는 짐이기까지 한다”¹¹⁷⁾고 말한 바 있다. 현시대에 영어는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살고 있던 허수경에게는 아마도 영어보다 독일어의 위협이 더 컸을 것이다. 강세를 보이는 독일어가 소수 언어를 먹어버릴 듯이 작동하고 있는데 시인도 그의 언어가 빼앗기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그는 의식적으로도 모어로 글을 쓰는 걸 높이 평가했으며 스스로도 모어로 계속 글을 썼다. 즉 허수경은 독일어와 영어의 위협적인 힘에 맞서서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을 통해 대항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방언을 자신의 말로 스스로 규정하며 이것을 ‘개인화’하기 때문에 어떤 소수문학을 내세울 수 있었다.

이점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¹¹⁸⁾ “소수 문학 *kleine Literatur*” 개념을 빌려 해명해보자. 그들에 따르면 소수 문학이란 “소수 언어의 문학이 아니라 거대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의 문학”이라고 한다. 즉, 주류의 언어를 가지고 비주류에 속한 작가가 자기만의 의미를 삽입함으로써 거대 언어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허수경은 비록 소수 민족에 속하지 않지만 여성으로서 그리고 방언을 씀으로써 어떤 소수성을 획득하게 된다. 즉 방언을 활용하는 여성시인인 그는 그만의 소수문학을 내세운 것이다.

언어와 자연의 연결성은 그만의 사상을 보이면서 거대 언어와 대립한다. 언어라는 것은 모두가 어떤 의미에 함께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이지만, 허수경은 이것을 개인화하며 아무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소수문학을 구성하였다. 즉, 앞에서 살펴보았던 언어와 자연, 그리고 먹는 행위의 삼각관계도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재작업은 허수경에게만 있는 문학 활동이 아니었으며 이것을 한국 여성 문학의 역사의 ‘재작업 과정’에 있어 언어 탈영토화는 그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117) 허수경, 『모래 도시』, 26쪽.

118) Deleuze, Gilles, et al. “Kafka: Toward a Minor Literature: The Components of Expression.” *New Literary History*, vol. 16, no. 3, 1985, pp. 591-608. JSTOR, www.jstor.org/stable/468842.

다.

한국여성문학사에서 여성 시인들은 가부장적 언어의 억압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시도는 새로운 언어 창조하려는 요구에 의해 출현하였다. 김현자와 이은정은¹¹⁹⁾ 1980년대로부터 한국 현대 여성 시에서 “또 하나의 역사 (herstory)” (81쪽)를 쓰려는 전략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들에 의하면 여성 시인들은 역사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서 ‘자매애적인 선사’를 구사하고 이것으로 기존의 고정된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호모소셜적 흐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 했다. 즉 거대 언어에 기록되지 않은 여성 서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내세우려는 시도인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바로 “경계 깨기” (82쪽)라는 것이다. 김현자와 이은정에 따르면 이 경계 깨기란 “시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남성적 언어와 여성적 언어의 경계 깨기”도 의미한다고 했다. 허수경의 시에서 나타난 언어적 경계 깨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항구마을」에 나타난 먹는 이미지에 주목해보자. 이 시에서 시인은 표준어와 방언을 대립시키면서 먹는 행위를 ‘회상’을 유발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화자는 “비 내리는” 날에 “노천식당 앉아 밥 먹”으면서 “항구마을”에 들어오는 “채소잔 많은 밥상처럼 들어”오는 “조갯지 배들”을 보았다. 즉, 화자는 음식 섭취를 하는 동시에 항구마을에 들오는 배를 “밥상”에 비유하면서 먹는 행위의 풍부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 식당 안의 장면과 바깥에 있는 항구의 장면을 대조시키면서 “해초무침”을 “뒤집던 손”에서 바다의 “굴” 냄새가 나고 바다의 “물결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화자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음식 그 자체이거나 음식을 소환하는 장치로 탈바꿈되었다.

따라서 화자에게 굴의 냄새와 밥상처럼 생긴 배들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앞선 것이자 그것을 촉발시키는 것이기도 한다. 환연하면, 시인이 화자와 바다에 있는 배, 멀리 있는 섬, 과거에 죽은 사람 등을 음식과 먹는 행

119) 김현자, 이은정, 「한국현대여성문학사 - 시」, 『한국시학연구』, 2001. 81쪽

위와 연관지어서 드러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허수경은 음식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온다. 식당에 앉아 ‘밥 먹’는 화자는 “물결 건너 작은 섬”에서 “오십 년 전” 일어났던 전쟁과 그 전쟁으로 “눈동자 없이 죽은 이”를 ‘기억해내면서’ 현재로 소환한다.

화자는 음식을 통해서 암시되는 현재의 ‘풍부함’과 ‘평화’를 즐기면서도 그 풍부함에 앞선 고통과 폭력을 기억하고 과거와 현재를 단절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그는 전쟁의 폭력을 초점화하면서 그만의 시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시 「대구 저녁 국」은 앞서 보았던 표준어와 방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개인’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p>대구를 덤병덤병 썰어 국을 끓이는 저녁 이면 움파 조곤조곤 무 송덩송덩 붉은 고춧가루 마늘이 국에서 노닥거리는 저녁이면</p> <p>어디 먼 데 가고 싶었다 먼 데가 어딘지 몰랐다</p> <p>저녁 새 벗나무 가지에 쪼그리고 앉아 국 냄새 감나무 가지에 오그리고 앉아</p> <p>그 먼 데, 대구국 끓는 저녁, 마흔 살 넘은 계집아이 하나 저녁 무렵 도닥도닥 밥한다</p> <p>그 흔한 영혼이라는 거 멀리도 길을 걸어 타박타박 나비도 달도 나무도 다 마다하고 걸어</p> <p>오는 이 저녁이 대구국 끓는 저녁인 셈</p>	<p>대구 덤더병 국 끓이는 저녁 움파 조곤 무시 송송덩 불근 고춧가루 마늘 국에서 노닥 눈 헛 파는 저녁이면</p> <p>어디 먼 데 가고 자파 먼 데 어느 먼지 몰로라</p> <p>저녁 새 벗나무에 쪼그리고 대누어 국 냄새 감나무 가대에 오그리고 대누어</p> <p>그 먼 적 대구국 기리는 저녁. 마흔덩이 가시나 한 것 저녁 적 도다닥 찬데리여</p> <p>그 흐저다한 혼이라는 길이 말종이 먼저 도 길 타서 타박타박 나배도 달녁도 낭 구도 마다코 걸어다미는 이 저녁 새 대구 국 기리는 저녁센데</p>
---	--

<p>인데</p> <p>어디 또 먼 데 가고 싶었다 먼데가 어딘지 몰랐다</p> <p>저녁 새 없는 벗나무 가지에 눈님 들고 국 냄새 가진 감나무 가지에 어둠님 자 물고</p> <p style="text-align: right;">허수경, 「대구 저녁국」, 『청동』중에서, (전문)</p>	<p>어디 먼 데 먼 데 어딘지 몰라라</p> <p>저녁 새 벗나무 가지에 눈님 새우고 국 냄새 간 감나무 가지에 어둠님 눈구 구 감고</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 저녁국—진주의 말로 혹은 내 말로」, 허수경, 『청동』중에서 (전문)</p>
--	---

「대구 저녁국」에서는 멀리 떠나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는 “마흔 살 넘은 계집아이 하나”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여 “대구를 덩빙덩빙 썰어 국을 끓”이거나 “붉은 고춧가루 마늘이 국에서 노닥거리”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녀는 “어디 먼 데 가고 싶었”지만 꿈을 나눌 사람조차 없어 꿈을 이루지 못한 고통을 남몰래 조용히 겪고 있었다. 「항구마을」에서도 보여주듯이 여기서도 밥 냄새는 세계를 몰두한 듯 ‘새’와 ‘나무’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구국이 끓는 것을 보고 “저녁 새 벗나무 가지에 쪼그리고 앉”으면서, “국 냄새”는 “감나무 가지에 오그리고 앉아” 음식 냄새가 자연을 지배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대구국의 냄새에 매혹되어 “나배도 달녘도 낭구도” 걸어오는 이 저녁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음식으로 인간, 자연(동물도 이에 포함)이 연결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에 등장한 여자는 그 공동체를 두고 “그 혼한 영혼이라는 거 멀리도 길을 걸어” 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자가 고향을 두고 멀리 가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독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는 자연과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고독

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 먼 데/ 먼 데 어딘지 몰라라”처럼 먼 곳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고독은 진주의 말과 결합되면서 그곳의 자연까지 포괄한다. 허수경은 방언과 진주의 풍경을 ‘고독’과 연결시켜서 드러냈는데, 이에 대해서 비평가 정영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허수경이 미당의 “설화적 끈적거림을 통하여 대담하게 남녀관계의 적나라한 욕정과 가출의 불량성, 시대의 방황과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¹²⁰⁾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수경은 고독의 고향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칫 진주를 고독의 장소로 설정하고 기타 지역 또는 독일을 고독을 극복하는 장소로 잘못 드러낼 위험이 있다. 이는 허수경 스스로가 인간 고독이란 장소와 무관하게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음식 혹은 먹는 행위는 그러한 고독의 극복을 의미하는 한편, 그것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는 『청동』에 실린 「기차역 앞 국 실은 차」에서 “파리 동부역/ 밤 스물세시/ 서둘러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이라는 시구를 통해 인종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음식 앞에 하나가 된다고 말했다. 파리 동부역 앞에 “붉은십자가를 새긴” 밥차가 “황급히 멈추고 문열자/ 화들, 떠는 국 내음”이 사람들을 끌어온다. 그는 “다만 공평하다 어떤 피붓빛을 가졌더라도/ 고깃국앞에 서면 배고프다”고 말하며 음식은 피부 색깔의 조건에 의해 차별화되는 인간을 ‘배고픔’으로 연결시켜준다.

또한, 음식은 사람 서로 간에 접촉을 가능케 해서 그들을 가르는 경계를 극복하게끔 한다. 이 극복은 각 인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워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인은 모든 인간을 하나로 잠시 묶었지만, 이 ‘하나가 되는 것’을 “피붓빛” 때문에 당한 억압의 역사를 지우거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배고픔이란 모든 인간에게 피붓빛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본능이자 이로써 자발적이며 일시적인 공동체 이면서 ‘배고픔’에 의해 구축될 수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시인이란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면서도 자신의 정체

120) 정영자, 앞의 책, 366쪽

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허수경은 자신의 모국어(한국어)를 적극 활용하였고 그것을 중요시하였다. 허수경의 비-집단적인 사상은 그의 시 쓰기의 바탕이 되었는데 특히 「시론」에서 자신의 ‘비-집단적인’ 사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편”이라는 개념에 반대하면서 “어떤 편이라는 것이 문학에 있다는 것을 거부했다.”¹²¹⁾ 따라서 어떤 집단에도 속해 있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고아”로 지칭하였던 것이다.

시인으로서 내 존재는 고아이다. 누군가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홀로 남겨진 고아. 고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기대면 전통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아니라 그 전통이라는 것에 기대면 스스로를 베끼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태껏 누군가가 써오던 시를 쓰면서 시인으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전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재자이다. 독재자는 ‘혼자 말하는 사람’이다. 전통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일방통행일 때 그것은 인간을 억압한다. 그래서 나는 내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기억’이지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무엇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허수경, 「시론」, 『가기 전』, (부분), 353쪽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허수경은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고아로 지칭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고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면 어떤 집단의 ‘전통’을 짊어지게 될 부담도 피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집단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미 구축의 과정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전통”을 억압적인 “독재자”와 비교하면서 그러한 전통에 “기대면 스스로를 베끼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는 자신 “속에서 돌아다니는” 전통 말고 “기억”에 기반을 두면서 시를 쓴다고 했다. 이로써 허수경이 사적인 경험과 기억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허수경은 집단적인 공동체를 부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그는 공동체 개념 자체를 거부하지 않

121) 허수경, 『가기』, 352쪽.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란 그의 시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독으로 떠난 ‘개인’의 공동체로 드러난다. 언어로써 자신의 소속감을 찾는 시인은 고아로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모어”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마지막 시집인 「지구는 고아원」에 담아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지구를 고아원이라고 하면서 지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고아로 살아간다고 말한다. 즉, 그는 고아로서 소속감의 상실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그 소속감을 언어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적 이중성은 언어에 의해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과 언어, 그리고 인간의 관련성은 단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만 이런 공동체는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종국적으로 언어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 갈등은 ‘기억’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은 개인적 공동체는 고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전통이 부여한 정체성에 의거하지 않고 기억에 기대어 구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4.3. 먹는 행위와 ‘기억의 공동체’의 창조

고고학을 공부했던 허수경에게 세계의 모든 것들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탐구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여기서 주목될 점은, 그가 고고학적인 시각을 통해서 구축한 시적인 시간의식이다. 앞서 보았듯이, 허수경은 ‘기억’을 기초로 해서 시 쓰기를 실천했다. 따라서 ‘기억’은 그의 시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억은 허수경의 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것이 ‘먹는 행위’와 이루는 구조의 의미 탐구 작업이 중요해진다.

허수경은 ‘기억’에 대해서 주로 전쟁과 관련하여 논구했다. 그의 산문집 『모래도시』에서 그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 도시들의 역사 등을 되살리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도시의 ‘죽음’은 잊혀짐으로 인한 것이며,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 기억의 발굴이 필요하다.¹²²⁾ 또한, “폐허의 도시는 누군가 오래된 잊혀짐에서 그 도시를 불러내면서 그 도시를 새롭게 태어난다. 도시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으나 폐허 도시라는 이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허수경이 잊힘과 기억이 죽음과 삶과 맺고 있는 연관성을 볼 수 있다. 고고학적인 발굴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잊혀진’ 것을 다시 ‘불러내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되살리게끔

122) “이라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그곳에 있던 많은 폐허 도시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전쟁 당시에 폭격을 피할 수는 있었으나 전쟁 후의 도굴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있는 그 많은 폐허 도시들은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기억을 우리에게 전제 주지 못한 채 영원한 잊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누구든 잊혀진다. 공룡도 그러했거니와 인간이라는 종도 언젠가는 잊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잊혀지는 것은 어두우며, 어둠은 견디기 힘들다. 우리는 잊음이라는 불길한 딱지를 지니고 이곳 지상으로 왔으나 잊음, 혹은 잊혀짐에 저항하는 존재도 우리가 아닌가. 공룡들은 그들의 종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인간이라는 종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잊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역사를 기록하는 존재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존재보다 약하다. 그 약한 존재인 나는 기록되지 않고 잊혀질 폐허 도시 앞에서 있다. 그러나 브레히트의 말대로 누가 그렇게 수없이 파괴당했던 바빌론을 다시 건설하는가.” (허수경, 『모래도시』, 15쪽.)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발굴은 일종의 재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 지탱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작동하는 ‘먹는 행위’는 재생을 가능케 하는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90년대 초, 기형도의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의 해설 속에서 김현은 한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두 단계를 그린 적이 있다. 첫 번째는 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죽음. 두 번째는 죽은 이를 기억하는 모든 인간들의 생물적인 죽음. 그러나 기억을 기록한 자취가 이 지상에 남아 있는 한, 누구도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신의 역사 역시 인간의 역사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인간이 있는 한 신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

무덤을 방문하는 자에게 무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무덤을 방문하는 자들은 무덤을 앞에 두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뿐이다. 결국 과거를 들여다보는 자의 내면에는 미래를 점치고 싶은 내면이 있으며 미래를 점치려는 내면은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려는 내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왜, 현재인가? 그 시간, 현재라는 시간만을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 현재라는 인간의 시간만이 나와 너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감히 고대인을 이해하려고 하다니, 어쩌면 그 생각마저도 가소로운 일이 아닌가 싶다. 유적터에서, 고대인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쓰던 물건들이나 집터를 발굴할 수 있으되 그들의 마음은 발굴할 수 없었다. 과거는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나란, 다만 나와 시대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¹²³⁾

허수경, 『모래도시』중에서, (부분)

123) 허수경, 위의 책, 65쪽.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은 ‘기억’이란 죽음을 극복하며 삶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인간에게 ‘현재’만이 있으며 ‘현재’를 어떤 한계로 드러낸다. 그는 “결국 과거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미래를 점치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며, “미래를 점치려는 내면은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려는 내면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과거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가르침이 되며, 미래에 대한 관심은 현재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검토를 통해서 미래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시인은 미래 혹은 현재를 과거의 질곡에서 벗기기 위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변화를 ‘타자되기’로 일컬을 수 없을까. 타자되기라는 것은 타자와 주체의 연합을 말한다면, 시인은 이러한 연합을 시간성의 논의에서도 모색하고 있으며, 이것은 먹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먹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 생명의 현재가 ‘미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돕는다. 이렇게 볼 때, 먹는 행위는 생명에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편, 이것(먹는 행위)의 부재는 ‘시간의 빼앗김’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먹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어떤 생명은 몸에 안 좋거나 위험한 것을 섭취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먹는 행위가 생명의 ‘유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시간을 ‘관리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먹는 행위는 시간의 관리와 생명 부여 여부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생명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도 “현재형”인 우리에게 단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자, 앞서 밝혔듯이, 허수경 시에서 먹는 행위는 과거까지 포함한다. ‘먹음’을 행사하면서 현재에 있는 존재들은 과거의 존재들과 통할 수 있다. 과거의 존재들과 먹는 행위 혹은 음식을 매개로 통하는 것의 의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식은 점심을 먹고 황동빛 손가락으로 담배를 만다 미술

관 저 너머에는 지하땅굴이 있고 그 속에 차가운 짐승 하나가 사람들을 지상으로 길어올린다 담뱃진 속에 끈적거리는 죽음은 갓 태어난 아가처럼 신선하고 외롭다 식은 점심을 먹고 노인들은 미술관 앞에 앉아 지난 세기의 광인을 관람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물 흐르듯 바라본다 마치 지난 세기와 지금을 연결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노인들은 한적하고 지상으로 사람을 길어올리는 짐승은 노인들의 엉덩이 20미터 밑을 지나가고 있다

허수경, 「미술관 앞에 노인들은 물 흐르듯 앉아」, 『내 영혼』중에서, (전문)

「미술관 앞에 노인들은 물 흐르듯 앉아」에서 등장하는 노인들은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키는 매개로 묘사된다. 미술관이란 본래 과거의 사물을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노인들은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관 안에 보관되고 있는 “사물들”과 통과하고 있다. 이에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는 노인들은 미술관의 “짐승”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짐승’은 물론 미술관에 전시한 고대 짐승의 조각 혹은 그림일 수도 있으며, 매일 미술관을 방문하는 노인들과 ‘안면’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짐승이 “지상으로 사람을 길어올리고 있음에도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노인들은 미술관 또한 그 속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시에서 언급된 “짐승”도 그러한 사물일 것이며, 노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노인들은 미술관 앞에 앉아 “식은 점심을 먹”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물 흐르듯 바라본다 마치 지난 세기/와 지금을 연결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즉, 노인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과거와 현재를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허수경은 우리가 단지 “현재형”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늘 “현재”를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그는 과거, 현재와 미래를 각각 분리된 것으로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먹는 행위와 과거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간성’이다. 과거는 흘러가

는 시간의 '지나간 순간들'을 의미한다면, 먹는 행위는 시간에 의해 순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만의 시간성을 지닌다.

메리 더글라스는 먹는 행위가 내재한 '순서'에 대해 말한 바 있다.¹²⁴⁾ 그에 따르면 먹는 행위가 지속적이며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빗 E. 서튼은 음식과 추억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음식이 일상생활 및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중요한 관습으로 자리매김하기에 기억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¹²⁵⁾ 또한, 음식에 관한 추억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 (26쪽). 이와 같은 측면이 허수경의 시에서도 드러난다.

음식은 진주의 추억들과 연결되어 있는 한편, 과거에 일어난 전쟁과 위기를 상기시키면서 학습이 된다. 서튼은 음식이 신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감각을 자극시키는 요소로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음식의 인공적인 특징들이 일상생활을 '총체성'을 표방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추억과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즉, 음식은 '추억'과 공동체의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수경의 시에 음식은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만 아니라 자연, 동물 또한 모든 생명을 연결시키면서 '기억의 공동체'를 이룬다.

허수경의 기억의식은 그의 시간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드러냈듯이, 허수경은 새로운 시간의식을 구축하면서 여성주의적인 측면을 발휘한다. 「물 좀 가져다주세요」에서 앞서 드러냈듯이 '청동'과 '감자' 각각은 '전쟁'과 '평화'를 표상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자'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면서 먹을 것이기도 한다. 즉, 시인은 먹을 것과 시간성을 연결시켜서 드러낸다. 따라서 「그때 달은」의 시에서도 화자는 타자되기를 행함으로써 화자는 '파충의 기억'을 얻어 그와 일치한 개체를 지닌다. 이에 화자는 달을 낳을 수 있으며, 달은 또 다른 달을 낳을 수 있다. 이 시에서 등장한 출산-죽음의 이미지는 기억의 공유함을 강조한다.

124) 메리 더글라스, 앞의 논문 참조.

125) Sutton, David E. *Remembrance of Repasts: An Anthropology of Food and Memory*. New York: Berg Publishing, 2001. 이하 이 책의 쪽수만 표기.

이어서 「그래, 그래 그 옆」에서 밥을 먹여주는 할머니는 “떠오는 설거지 물에 마치 오랜 시간 씻”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치 새로운 시간을 물 안에 씻고 창조하는 듯 나타난다. 여기서 허수경은 요리와 설거지하는 것을 시간의식과 연결시켜서 드러낼뿐더러 이것을 여성성과 자연을 포함하면서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인간-음식의 구조를 구축한다. 이에 대해서 방승호는¹²⁶⁾ 시인이 보통의 남성중심적인 질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개념에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시간의식이란 “서정적 자아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특정한 의식이”라고 규정했으며 따라서 그는 허수경이 서정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발굴하며 “단절된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고 (190쪽) 주장한다. 여기서 허수경이 먹는 행위와 시간성을 연결시켰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시간의식은 과거의 ‘회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과 맞닿아 있다. 「그렇게 조용했어,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려」에서 시인은 화자가 자신의 “텅 빈 예금통장”을 걱정하는 동시에, 어디 먼 나라에서 “고동물/ 학자”들이 발견한 얼음 속에 얼어 있는 “맘모스”와 인연을 맺는다. 여기에 사적 서사가 공적 서사에 흘러 들어가며 공적 서사와 사적 서사가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허수경은 이 시에서 두 가지의 고립된 사례를 연관 지어서, 역사가 분리된 사건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보인다.

따라서 타자되기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타자의 시간, 타자의 기억, 타자의 역사는 ‘나’와 ‘타자’ 사이에 있는 거리를 줄이면서 또 하나의 재생을 요구한다. 허수경의 마지막 시집에서는 기억과 먹는 행위의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기억의 공동체’가 구축된다. 또한, 「그렇게 웃는 나날이 계속되었다」에서 보았듯이, 먹는 행위는 기억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된다. 따라서, 「아침 식사 됩니다」에서도 화자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헬무트 씨’의 기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그와 공감할 수 있다. 즉, 허수경은 그의 시에서 늘 먹는 행위를 ‘기억의 교류’와 ‘교체’를 가능

126) 방승호, 앞의 논문 참조.

케 하는 도구로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바지에 묻어온 벌레를 털어내었다
언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털어낸 적이 있었다
털리면서도 나의 바짓단을 누군가는 무작정 붙잡았다
나는 더 모질게 털어내었다
서늘하고 아팠다
벌레여 이 바지까지 온 네 삶은 외로웠나
이렇게 말하는 건 나, 중심적임을 안다네,
사라져가는 생물들이 쉬는 마지막 숨을
적어본 적이 없고
모든 살았던 것들의 눈동자 역사를
적어본 적도 나는 없었으므로

벌레가 떨어져나간 자책의 자리
오늘은 뭘 먹을까
흰밥에 붉은 기러기발 같은
무말랭이의 오후를 먹을까
내 바지에서 떨어져나간 날개 달린 벌레가
아직 날지 못할 때
내가 한사코 털어내던
그날의 발길을 잡던 당신과 한 상 같이 먹고 싶다
푸른 벌레가 점심 걱정을 하는 오후가 되어
들판이 점심 걱정을 하면서 푸르러지는 오후가 되어
벌레가 나를 벌레적으로 생각하며 푸르러지는 오후가 되어

허수경, 「푸른 들판에서 살고 있는 푸른 작은 벌레」, 『누구도』중에서 (전문)

위 인용된 시에서 화자는 “바지에 묻은 벌레”에 대해 말한다. 벌레는 화자가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데, 화자는 그 이유가 그것이 외로워 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면서, 벌레와 어떤 연대를 내세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화자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인간 “중심적”이지만, 화자는 벌레의 입장을 취하려 노력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 노력에 의해 내세운 연대는 ‘먹음’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동시에, 회상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화자는 벌레와 같이 ‘무말랭이의 오후를 먹을까’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는데, ‘시간’은 저무는 날을 통해서 가리켜지는 한편, ‘회상’을 통해서도 표시된다. 여기서 먹는 행위는 벌레와 연대를 내세우는 동시에 기억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먹는 행위는 이와 더불어 그것만의 시간을 다시 드러낸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시간을 연결하는 것은 인간 화자 및 벌레 사이의 연대의식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말랭이의 오후를 먹을까”를 생각하는 인간 화자와 “점심 걱정을 하는” 푸른 벌레는 먹는 행위가 지닌 시간성을 드러내면서, 서로 그러한 시간의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중심적”인 화자는 자신의 시간의식에 따라 벌레의 식습관을 바라보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벌레도 화자에 못지않게 자신의 시간성을 통해서 인간 화자를 보고 있다.

화자가 말했듯이, “벌레”도 화자를 “벌레적으로 생각하며 푸르러지는 오후가 되어” 간다. 즉, 이 시는 화자의 관점만 아니라 벌레의 관점도 중요시한다. 이로써 인간 화자와 벌레와 연대를 내세운다. 「내 손 잡아줄래요?」에서도 화자는 인간 아닌 “쥐”와 “기억의 공동체”를 내세운다. 화자는 나아가 자신이 “쥐와” “같은 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음을 말하며, 연대를 강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인은 이러한 연대의식을 통일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가 아니라, 다양성을 찬양하면서 구축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스스로 자신을 ‘고아’로 지칭해서 ‘전통’과 자신을 구별시켰다.¹²⁷⁾ 무엇보다도 그는 억압적이고 “일방통행”을 표방하는 전통에 맞설

127) 허수경, 『가긴』, 353쪽.

수 있는 것으로 “기억”을 든다. 즉, 기억의 공동체는 허수경이 모색하는 대안적 공동체인 한편, ‘전통’에 반대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다. 또한, 기억이란 시인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한다고 밝힌다. 이로써 허수경은 자신 속에서 비롯되는 ‘기억’에 기반하고 있는 한편, 기억은 그의 ‘속’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내 손 잡아줄래요?」에서도 화자는 ‘기억’을 통해서 연대를 내세우는 동시에 기억의 교류는 그들의 신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을 타자되기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쥐가, 쥐는 화자가 되어 간다. 쥐와 “기억의 공동체”를 내세운다. 또한, 화자가 쥐와 똑“같은 별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밝히면서 ‘같은 고향’을 지닌 생명끼리 존재하는 어떤 연대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시인은 ‘기억의식’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은 채, 동물, 벌레와 자연까지 포괄한다. 이 시에서 화자의 애인은 “어떤 독약을 먹으며 시간을 완성할지 곰곰이 생각”한다. 달리 말하자면, 화자의 애인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죽음’을 또한 시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낸다. 그러면, 삶이란 시간의 미완성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다면, 시인은 삶 혹은 미완성된 상태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타자되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에 착안해보자면, 되기란 완성된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¹²⁸⁾ 몸은 늘 변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을 표상한다. 이와 유사하게 허수경이 미완성을 표상하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되기를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 되기는 인간 서로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삶을 긍정하는 과정에서 그는 ‘공동체’를 내세우려 한다. 되기를 벗어나고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공동체’란 다른 존재들과 연대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이자, 타자되기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화자는 죽음을 택할 애인을 부정하여, 오히려 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

128) 질 들뢰즈, 필릭스 가타리, 앞의 책, 453쪽.

화자는 자신을 “쥐”와 차별하지 않는 채, “쥐의 당신”과 자신의 “당신”을 차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 나와 쥐의 공동체” 속은 타자되기의 장소이자 연대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그의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거나 타자화된 존재가 없다.

기억의 공동체는 허수경의 ‘고독’의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다. 상기하자면, 고독의 공동체는 각각 존재 사이의 연대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내세우지만,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없애지 않는다. 기억의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를 말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독’을 초월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기억의 공동체’는 모든 존재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면서 타자되기를 촉발시킨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 아니라, 각자 ‘나’의 공동체를 표시한다. 타자되기도 ‘우리’라는 공동체에 반대해서 구축된다. 본래 되기란 “본질적이며 단일한 ‘우리’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운동하여, 지금의 상태에서부터 다르게 되기를 모색하는”¹²⁹⁾ 과정이다. 이에 어울려 타자되기는 ‘우리’의 통일시키는 경향에서 떠나 그만의 자유로운 되기를 말함을 알 수 있다. 「우산을 만지작거리며」에서 그는 죽음, 삶, 그리고 ‘되기’에 대해 말한다.

우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삶과
연애 중이라고 생각하라고 심리상담사는 말했다 우
산을 만지작거리며 나가볼까 생각한다 생계를 위해
서라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는 것보다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심리상담사는
말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
더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가끔심리상
담사를 죽이는 꿈을 꾸다가 그가 내 얼굴을 달고 있
는 장면에서 꼭 잠을 깬다 내 얼굴을 향하여 내가 칼

129) 김은주, 「여성되기」, 95~95쪽.

을 들이밀고 있었으므로

그때 그 어느 날 심리상담사에게 죽은 허 씨에게 ,
라고 시작되는 편지를 보여주지 말아야 했다 얼어
죽은 국희에게 , 라는 편지도 맞아 죽은 은행에게 , 우
주로 납치된 악몽에게 , 달에 있는 나의 거대한 저택
에게 , 라고 시작되는 편지도 어떤 편지도 , 아니 내가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식물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편
이 나왔다

나는 동물의 말을 하는 식물입니다
나는 희망의 말을 하는 신입니다
나는 유곽의 말을 하는 관공서입니다
나는 시계의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개가 꾸는 꿈입니다
등등의 고백도 하지 않는 편이 나왔다

하지만 고백하고 말았다 (물론 나는 그걸 강제된 고
백이라고 부르고 싶기는 하다) 나라는 나쁜 인간을 방
어할 무기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나를 공허하게 버려
줄 무기가 너에게는 필요하다

우산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오후에 있는 그와의 약
속을 생각한다 불투명한 유리가 끼워진 대기실도 대
기실에 붙여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일곱 가
지 특징에 대해서도 내가 읽어보면 그들은 다 살지
못해서 안달한 사람인데 심리상담사의 꼬임에 혹은 그
의 인턴이 건네주던 하얀 줄이 박힌 푸른 사탕 때문
에 나처럼 고백을 한 사람들일 뿐인데

우산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웃는다 울 일이 없어서 심란한 아이 같다

허수경, 「우산을 만지작거리며」, 『누구도』중에서 (전문)

위 인용된 시 「우산을 만지작거리며」에서 화자는 심리상담사를 찾아간 장면을 회상하면서 삶과 죽음의 괴리를 고려한다. 심리상담사의 의견에 갈등되는 견해를 지닌 화자는 “먹는 것”을 “사는 것”과 동일시시키는 한편, “죽는 것”이 “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 갈등의 원인은 심리상담사가 화자를 단지 ‘환자’ 또한 ‘인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환자/화자는 자신의 속마음에서 정신의학에서 밝혀지지 않는 ‘정체성’의 새로운 면을 시적 차원에서 탐구해서 실천한다. 화자는 자신의 속마음 밝히는 “편지”를 쓰는데, 여기서 자신이 단순한 ‘인간’만 아니라. “식물”, “동물”, “신” 등의 존재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로써 화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연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되기’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낸다.

화자는 자신을 “나쁜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데, 그 이유가 ‘인간’은 본래 자신을 다른 생명들과 차별화하며, 다른 존재들을 타자화하면서 정체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허수경의 시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그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입장을 밝힌다는 점이다. 그는 인간과 다른 생명을 차별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존재들 사이에 존재하는 ‘타자되기’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예컨대 허수경은 「우리들의 저녁 식사」, 「폭발하니 토끼야!」 등의 시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을 가르는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들과 연대를 내세우려 하는 화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다니게 되지 않았을까.

인간 화자의 ‘공동체 세우기’ 과제는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비정상’을 표방하는 ‘환자’이다. 푸코는 비정상과 정상을 표시하는 것들은 결국 권력관계들이 교착되는 지점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¹³⁰⁾ 그는 정상이란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반영

130) Foucault, Michel. 2003. Ed. Valerio Marchetti and Antonella Salomoni. *Abnormal :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4-1975*. Verso: London.

하는 것이고, 비정상은 그러한 사상에 반대인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우산을 만지작거리며」에서 화자도 지배 지식이 파악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것을 표방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 화자는 식물, 시간, 꿈같은 추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것을 ‘되’는 과정에서 현재 정신과학이 이해하지 못한 ‘환자’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회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화자는 정신과의사를 찾아갔을 때 받았던 느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하게 되면서, 의학에 의해 타자화된 자신을 재주체화한다. 이 재주체화 과정은 바로 ‘타자되기’다. 화자는 회상하면서 자신 안에의 복수의 주체를 알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타자화된 존재들을 주체화하는 동시에, 타자화된 자신까지 주체화한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자신을 “시계의 말을 하는 시간”이라고 규정하면서 시간 안에 포함하고 있는 주체로 아니라,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주체로 나타낸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화자는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신과의사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 존재이자, 삶을 부정하는 존재이기도 한다. 화자는 비정상을 표상하고 있는 환자일 뿐이기 때문에 의사의 “인턴이 건네주던 하얀 줄이 박힌 푸른 사탕”을 먹어서 자신을 환자로 타자화해야 한다. 시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하는 동시에, 환자 “처럼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게 된 사실을 폭로한다. 환언하자면, 화자에게 ‘현재’가 있지만, 미래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회상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로써 허수경은 사상의 차원과 공동체의식을 부정하는 치료방식들을 비판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드러내고 있다.

허수경은 자신의 시학에서 기억의 공동체의 창조를 통해서 존재들 서로 간에 있는 연대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 연대의 가능성은 우리가 타자되기를 실행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인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포함한 과정이다. 따라서 그는 ‘기억’이란 것이 모든 생명에게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내세울 수 있음을 드러낸다. 허수경이 구축한 공동체는 회상과 기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이 공동체는 타자되기의 장소이

기도 하기 때문에 권력관계에 앞선 장소이다. 먹는 행위는 생명들의 시간 성과의 논의에 맞닿아 있어서 기억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위임받는다. 허수경은 그의 삶에서 늘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었는데, 공동체 의식은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의 다양한 측면들이 ‘타자되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허수경의 여성주의, 고향의식, 전쟁론 등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였다.

우선 먹는 행위가 지니는 다양한 측면을 주로 세 가지의 명제 하에 정리해서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는 ‘배고픔의 문제’, ‘육식 문화 비판’, ‘카니발리즘적 이미지’이다. 첫째, 먹는 행위를 배고픔의 문제로 파악하여 음식의 불평등성을 드러냈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하에 착취적인 제도를 분석하여 이것은 인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무는 봄밤」과 「베를린에서 전태일을 보았다」 등의 시에 주목하면서 허수경이 아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대해 갖는 사상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먹는 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었다. 배고픔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건인데, 이를 행사하지 못한 자들은 굶어 죽는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안으로 타자되기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먹는 행위의 문제는 인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육식 문화를 비판함에 있어 시인의 복합적인 사상을 발휘했다.

허수경은 고기 먹는 문화를 비판하는데, 이것은 특히 인간중심주의 비판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필자는 먹히는 ‘것’이 아닌 ‘자’의 음식이 되는 과정을 그려냈다. 이 과정에서 먹는 행위가 지닌 폭력을 드러내는 한편 이것의 저항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음식 섭취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타자되기를 의미한다고 보여주었다. 이것을 「우리들의 저녁 식사」와 「폭발하나 토끼야」와 같은 시편을 분석해서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접촉’과 ‘미접촉’의 관계에서 ‘인간’이 속하는 ‘범주’를 탐색하며,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밝혔다. 또한,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며, 타자화된 동물들과 연합하는 과정을 ‘타자되기’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타자되기를 특히 동물들의 입장을 취하면서 드러내고 있음을 보이면서 이것이 시인의 시간의식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보여주

었다. 시간성에 해당하는 논의는 과거의 고찰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존재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또한, 타자되기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카니발리즘적 이미지를 분석했다. 허수경이 드러낸 카니발리즘은 단순히 식인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어떤 생물은 자신과 동일한 종의 생물을 먹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달과 달을 먹는 이미지, 인간이 자신을 먹는 행위를 포괄한다. 필자는 카니발리즘적 이미지가 권력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이 지닌 저항의식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카니발리즘적 행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타자되기는 주체성의 이동을 통해서 진행되는 한편, 시간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또한, 이 되기는 인간과 다른 생명뿐 아니라, 자연까지 포함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것은 허수경의 시간의식과 중요한 구조를 이루며 주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타자되기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는 것은 먹는 행위이다. 본고는, 이를 가능케 하는 인물인 ‘어머니’를 탐구했다. 어머니는 자연과 함께 ‘먹이’는 노동을 하면서 타자되기를 촉발하는 한편, 새로운 시간성을 형성해 나간다. 필자는 자연과 어머니를 함께 드러내는 사유의 젠더적인 문제점을 탐색하는 동시에, 이것이 지닌 주체행위성을 강조했다. 어머니는 타자화된 존재들을 먹이면서, 주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의의를 드러냈다. 또한, 이에 연이어서 어미는 새로운 시간성도 구축하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시간성은 타자와 주체를 가르는 경계선을 없애면서 타자되기를 포함한 시간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시간성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 앞선 것임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세계를 재창조하는데, 특히 그의 ‘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대 창조 신화에 착안해서 어머니 입에서 표출되고 창조되는 것의 의미를 밝혔다. 이로써 ‘먹는 어머니’가 창조하는 세계는 새로운 시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되기가 이루어진 세계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허수경은 먹는 행위와 타자되기로써 추구하고자하는 공동체를 조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허수경의 언어의 다양 측면을 구명했다.

그는 모어와 방언을 분리시켜 각 언어 형식에 있어 둔 비중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방언과 진주를 찬양하는 데에 있어 강한 고향의식을 보이는 한편, 이것이 자연과 여성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인이 내세우려는 공동체는 집단적인 공동체 아니라, 개인의 ‘고독의 공동체’임을 주장했다. ‘고독의 공동체’는 개인의 공동체이므로 타자들 사이의 공동체를 말한다. 또한, 이 공동체는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없애지 않은 채 구축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의 한계를 함께 밝히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억의 공동체’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허수경이 “기억의 공동체”를 내세우려 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것이 타자되기로서 성취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허수경의 시간성에 주목하여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준다면, 그 과정에 먹는 행위가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보여주었다. 시인은 인간이란 범주에서 벗어나, ‘기억’과 먹는 행위의 유일한 결합을 통해서 생명들 서로가 통할 수 있으며, 어떤 ‘기억의 공동체’를 내세울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공동체는 기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먹는 행위는 그것의 기반을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죽음’과 ‘삶’이란 자연적인 현상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타자되기와의 관계를 탐구했다. 그 결과, 타자되기는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완성’의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허수경은 이러한 미완성된 상태를, 되기의 상태를 추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 “기억의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에 대립되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내부의 위계관계 혹은 ‘타자-주체’를 가르는 경계선들이 없으며, ‘타자되기’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즉, 본고에서는 허수경의 시에 나타나는 먹는 행위의 이미지를 타자되기를 촉발시키는 요소로서 드러냈다. 먹는 행위가 내재한 민족의식, 모성, 인간-동물 이분법 깨트리기 등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허수경의 시가 지닌 저항의식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품들로 그 가치를 의미화했다. 타자되기는 결국 ‘나’와 ‘주체’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허수경의 시에 있어 이것은 먹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양하게 탐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 문헌

1. 기본자료

- 허수경,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리라』, 실천문학사, 1988.
_____, 『혼자 가는 먼 집』,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 창비, 2001.
_____,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_____,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_____, 『모래도시를 찾아서』 현대문학, 2005.
_____, 『그대는 할 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 난디, 2018.
_____, 『가기 전에 쓰는 글들』, 난디, 2020.

2. 국내논저

- 김은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김혜순 외, 『또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문화, 1992.
김현미 외 『“근대”, 여성이 가지 않는 길』, 김영옥 엮음, 또 하나의 문
화, 2001.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제: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
차의 문제』, 박미선 옮김, 2004.
류정아, 「한국 음식문화의 변화양상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1996,
린다 맥도웰, 「장소의 안과 밖」,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7.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대일본 제국의 모던 보이는 어떻
게 한인애국단 제1호가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6.

소래섭,『백석의 맛』, 프로네시스,2009.
정영자,『한국 여성 시인 연구』,평민사,1996
조후종,『우리 음식 이야기』,한림출판사,2001.
질 들뢰즈,필릭스 가타리,『천개의 고원』,김재인 옮김, 새물결,2001.

2) 학위논문

김소희,「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2015.

박지해,「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모성성의 사적 전개 양상 연구」,한국의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

방소현,「허수경의 시 이미지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석사학위논문.

이미예,「허수경의 시의 귀향 의식」,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2017.석사학위논문.

3) 학술지논문

「밀양에서 합천까지,경남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생각한다」, 『갱남피셜』, 2018.

「허수경·김연수씨 동서문학상 수상」,『부산일보』,2001년, 08월 07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10807000242](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10807000242)

권성훈,「[여성 시인의 사회와 치유의 플롯]영원한 제국의 폭력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페미니스트- 허수경론」, 『계간 시작』,2019.

김도경,「표준어의 이념과‘사투리’의 탄생-1920년대 문학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한국어문학학회』, 2012.

김신정,「소멸의 운명을 살아가는 여성의 노래-허수경과 김수영의 시」, 『실천문학』,2001.

- 김은주,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과 여성주의적 의미 새로운 신체 생산과 여성의 정치」, 『한국여성철학회』 2014.
-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2017.
- 김현자, 이은정. 「한국현대여성문학사 - 시」, 『한국시학연구』, 2001.
- 밀사, 「성노동자 권리운동의 방향」, 『진보평론』, 2013.
-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의 정치성 — 연구자의 무의식과 노동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상호학보』, 37, 2013.
- 방승호, 「허수경의 시의 시간의식 연구」, 『어문연구』, 2019
-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3, 321-351쪽.
- 송규진,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아시아문화연구』, 46, 2018.
- 신범순, 「월초적 시장과 레스토랑의 시학-야생의 식사를 향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2집, 2002,
- _____, 「부서진 육체와 사랑의 공간」, 『문학과사회』, 1992, 5(3).
- 양광준, 「1980년대 노동시의 수가 기법 연구-반복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8, 2010.
- 유동훈, 「항일 독립군가의 분석 및 영향 연구」, 사명대학원, 석사논문, 2015.
- 윤지관, 「민족문학과 노동문학」, 『작가 세계』, 1989.
- 이광호, 「그녀의 시는 오래되었으나—허수경의 오래된 편지」,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001.
- 이기성, 「재난을 예감하는 무녀의 언어-허수경의 시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창작과 비평』, 2011.
- 이문재, 「[문학]아주 그로테스크한 영혼/허수경의 시집」, 『시사저널』, 2001.
- 이상규,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새국어생활 제13권 제4호, 2003.
- 이상의, 「전쟁과 학교- 일제강점 말기의 학생동원과 학교교육」, 2012, 연세대학교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이은영,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양상」, 『여성문학연구』, vol 45, 2015.

이형권, 「기획특집-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음식 이미지」음식을 감각·사유하는 시편들」, 『시안사』, 시안 제24권, 2004.

이혜원, 「‘나’의 지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 『계간 서정시학』, 2017,
_____,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전쟁 표상과 생명의식」, 『문학과환경학회』, 2019.

전성현, 「일제말기 경남지역 근로보국대와 국내노무동원 학생 노동력 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5, 2015.

조강석, 「또 다른 레시피-허수경론」, 『문학과사회』18, 2005.

함인희, 「한국전쟁, 가족 그리고 여성의 다중적 근대성」, 『사회와이론』 11, 2006,

허수경, 「허수경의 시인, 몇천년 후 우리 삶은 몇 센티의 흔적으로 남을까?」김수영, 인터뷰.채널예스, <http://m.ch.yes24.com/Article/View/18911>

나희덕, 「‘자본세’에 시인들의 몸이 어떻게 저항하는가」, 『창작과 비평』, 180호, 봄 2020.

3. 국외논저

“South Korean forced labor victims to seek Japan's Mitsubishi assetsale.”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japan-laborers-mhi/south-korean-forced-labor-victims-to-seek-japans-mitsubishi-as-set-sale-idUSKCN1UB0HO> Last Accessed April 28 2020.

Barthes, Roland. 2013. “Toward a Psychosociology of Consumption of Food” In *Food and Culture: A Reader* edited by Counihan, Carole and Penny Van Esterik. New York: Routledge.

Bellamy, John Foster. 2016. “Marx as a Food Theorist.” *Monthly Review: An Independent Socialist Magazine*.

<https://monthlyreview.org/2016/12/01/marx-as-a-food-theorist/>
Last Accessed April 28 2020

Burwell, Stacey N. "Child Abandonment and Adoption in South Korea: A Post-Korean War and Present-Day Analysis." *New Visions for Public Affairs*, Volume 10, Spring 2018.

<https://cpb-us-w2.wpmucdn.com/sites.udel.edu/dist/a/7158/files/2018/12/Child-Abandonment-and-Adoption-in-South-Korea-A-Post-Korean-War-and-Present-Day-Analysis-2eblcrw.pdf>

Busch, Jane. 1981. "An Introduction to the Tin Can." *Historical Archaeology* 15, no. 1. Accessed April 28, 2020.

www.jstor.org/stable/25615391.

Canterbury, Ray E. 1987. "A Theory of Supra-Surplus Capitalism." *Eastern Economic Journal*. Vol. 13, No. 4.

www.jstor.org/stable/40325149 Last Accessed April 28 2020

Carrasco, David. 1995. "Cosmic Jaws: We Eat the Gods and the Gods EatU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3, no. 3. Accessed April 29, 2020. www.jstor.org/stable/1465087.

Cohen, Margaret. 1991. "The Most Suffering Class": Gender, Class, and Consciousness in Pre-Marxist France", *boundary2*, Vol 18, No.2. <https://www.jstor.org/stable/303278> Last Accessed April 28 2020

Cooke, Miriam. "War, Gender, and Military Studies." *NWSAJournal* 13, no. 3(2001): 181-88. Accessed April 29, 2020. www.jstor.org/stable/4316850.

Counihan, M. Carol. 2018. *The Anthropology of Food and Body*. Routledge.

Deleuze, Gilles, et al. "Kafka: Toward a Minor Literature: The Componentsof Expression." *New Literary History*, vol. 16, no. 3, 1985, pp. 591-608. JSTOR, www.jstor.org/stable/468842. Last

Accessed April 28 2020

Burwell, Stacey N. "Child Abandonment and Adoption in South Korea: A Post-Korean War and Present-Day Analysis." *New Visions for Public Affairs*, Volume 10, Spring

2018. <https://cpb-us-w2.wpmucdn.com/sites.udel.edu/dist/a/7158/files/2018/12/Child-Abandonment-and-Adoption-in-South-Korea-A-Post-Korean-War-and-Present-Day-Analysis-2eblcrw.pdf> Last Accessed April 28 2020

Douglas, Mary, 1972, "Deciphering a Meal." *Daedalus* 101, no. 11972): 61-81. Accessed June 15, 2020.

www.jstor.org/stable/20024058. Last Accessed April 28 2020

Foucault, Michel. 2003. Ed. Valerio Marchetti and Antonella Salomoni. *Abnormal: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4-1975*. Verso: London.

Jennings, John M. 1995. "The Forgotten Plague: Opium and Narcotics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1910-1945." *Modern Asian Studies* 29, no. 4. Accessed April 28, 2020.

www.jstor.org/stable/312805.

Kain, Philip J. 1999. "Modern Feminism and Marx." *Studies in Soviet Thought*, Vol. 44, No. 3, pp159-192.

https://www.jstor.org/stable/20099476#metadata_info_tab_contents

Kim, Eleana. *The Origins of Korean Adoption: Cold War Geopolitics and Intimate Diplomacy*. US-Korea Institute at SAIS, 2009, www.jstor.org/stable/resrep11137. Accessed 29 Apr. 2020.

https://www.jstor.org/stable/resrep11137?seq=1#metadata_info_tab_contents.

Lévi-Strauss, Claude. 1969, *The Raw and the Cooked*. New York:Harper & Row, Print.

Lucas, Sheri. "A Defense of the Feminist-Vegetarian

Connection." *Hypatia*, vol. 20, no.1, 2005, pp. 150-177. JSTOR, www.jstor.org/stable/3810847. Last Accessed April 28 2020

Lucy Williamson, "Why is Spam a luxury food in South Korea?", *BBC News*, 13 September 2019, <https://www.bbc.com/news/world-asia-24140705> Last Accessed April 20, 2020.

Mol, Annemarie. "I Eat an Apple: On Theorizing Subjectivities." University of Twente, Enschede, The Netherland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57/sub.2008.2>

Nicholas K. Pedersen, "Detailed Discussion of European Animal Welfare Laws 2003 to Present: Explaining the Downturn." The Animal Legal and Historical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2009.

Overall, Christine. 1992. "What's Wrong with Prostitution? Evaluating Sex Work." *Signs*, Vol 17, No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05-724.

Perkins, Frances. "WOMEN'S WORK IN WARTIME." *Monthly Labor Review* 56, no. 4 (1943):661-65. Accessed April 28, 2020. www.jstor.org/stable/41817087.

Strathern, Marilyn, "Eating (and Feeding)", *Cambridge Anthropology* 30(2), 2012, University of Cambridge.

Susan Gubar. "Representing Pornography: Feminism, Criticism, and Depiction of Female Violation", *Critical Inquiry*, vol. 13, no. 4, 1987, pp.712-741. JSTOR, www.jstor.org/stable/1343526. Last Accessed on April 28, 2020.

Sutton, David E. *Remembrance of Repasts: An Anthropology of Food and Memory*. New York: Berg Publishing, 2001.

Taylor, Adam. 2016. "The forgotten story of tens of thousands of Koreans who died in Hiroshima." *Washington Post*. 25 May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6/05/25/the-forgotten-story-of-tens-of-thousands-of-koreans-who-died-in-hiroshima/> Last Accessed April 28 2020

Wankier, Alisa Marie. 2016. "Consuming Narratives: Food and Cannibalism in Early Modern British Imper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Weil, Karli. *Thinking Animals—Why Animal Studies now?*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2.

Abstract

The Act of Eating in Heo Su-gyeong's Poetry - through the
concept of 'Becoming Other'

Pemmaraju Sindhoor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most renowned poet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Heo Su-gyeong's poetry encompasses diverse themes and ideas. A poet who began her career during 1980s, her work is both politically charged and personal at once, drawing no distinction between the two. My thesis focuses on examining the act of eating that appears in Heo's poetry and how it captures her ideas about feminism, homeland, belonging and more. I attempt to do this through the concept of 'becoming other' which I develop from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s well-known concept of 'becoming', and Annemarie Mol's concept of 'transubstantiation.' Both of these concepts become the base of my concept of 'becoming other', a process, I argue, allows for multiple subjectivities and multiple ways of being to co-exist vis-a-vis the act of 'eating.'

I begin my thesis by first delineating the ways in which the 'Other' appears in Heo's poetry. I identify three main themes where the 'Other' is produced with relation to 'eating' and 'food' and these are: 'hunger', 'meat-eating' and 'cannibalism.' These three elements become a starting point for my argument whereby

I examine hunger with relation to the power it encapsulates in terms of its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1980s in Korea were charged with the workers' movements, and its influence can be seen even in Heo's poetry. She examines the plight of workers not only in the 1980s, but also goes back to the era of colonialism, where Korean workers were forced into slave labour. I examine the workers' movement and the working condition of Korean workers under Japanese rule, with special emphasis on 'eating' and 'food.' 'Hunger' becomes a keyword to understand the oppression that absence of eating can produce; and to delineate the process of 'becoming other' as it appears in Heo's poetry. I argue that it is the objectification of labour, of humans, under capitalism that allows for starvation to exist, and 'becoming other' becomes an avenue to overcome this objectification.

This allows me to move on to exploring the complexities involved in meat-eating. Heo shares a special relation with food and her criticism of meat-eating is not a complete disavowal of it. Her poetry criticizes meat-eating in terms anthropocentrism but it does not undervalue the cultural value that meat-eating practices may encapsulate. I take up the issue of anthropocentrism as the main vein of discussion, and scrutinize Heo's poetry through the lens of 'becoming.' I argue that Heo is calling for a dissolution of boundaries which separate the 'human' and the 'animal', or humans and the natural world; i.e., she is calling for becoming into those who have been Otherized throughout human history.

I also examine the concept of time which Heo uses as a technique to interrogate what constitutes 'humanity' and how

'becoming other' can subvert anthropocentric conceptualization of time. This lays down the framework for me to discuss cannibalistic imagery present in the poet's work. I focus on the idea of 'moving subjectivities' and argue that cannibalistic imagery becomes a way to not only subvert the aforementioned anthropocentrism but also to challenge ways of being. I argue that subjectivity acquires mobility and the ability to move between bodies (which are conceptualized to be permeable), thus, allowing for a flow of subjectivity prompted by the act of eating.

I then move on to discuss the figure of the 'Mother' vis-a-vis the concepts of 'feeding' and 'eating' as integral to the process of 'becoming other.' I do this by exploring the figure of the mother, and its association with nature, their shared role in 'feeding' other beings and sustaining life itself. I argue that feeding acts as a way of de-objectifying different life forms, and also works towards a new conception of time. This argument is carried forward when I show that the act of 'eating' permits the Mother to act as the harbinger of the end of the world, while also triggering the birth of a new world. I explain that Heo's search for a new timeline, and a new world is related to her ideas about community and belonging.

In the last chapter, I explore the theme of 'belonging' via three main ideas. First, language and food; second, a community of solitude; and lastly, a community of memories. I begin by examining the importance of 'language'—especially Korean language—for Heo and how it lends itself to ideas of community and belonging. I eventually argue that while Heo's Korean identity was integral to her, it could not be mistaken with ethnocentrism. In her work, she vehemently denies ethnocentrism, and any

form of authority which demands conformity. I argue that 'becoming other' is a way for her to express her desire for belonging without losing her own individual identity.

Heo is known for capturing 'solitude' and loneliness in her work, and it is here that she looks for a new way of belonging. This I call 'a community of solitude.' But her exploration for belonging does not stop upon the discovery of a community of solitude. I argue, that it is 'a community of memories' that Heo is searching for and what encompasses her thoughts about time, space, language, etc. Eating, here, becomes an important way to allow for the transfer and exchange of memories between humans, animals and nature, while also triggering the process of 'becoming other.' Thus, this thesis not only expounds on the importance of the act of eating in Heo Su-gyeong's poetry but also emphasizes how crucial the concept of 'becoming other' could become in understanding her poetry.

■ Keywords Heo Su-gyeong, becoming other, becoming, eating, anthropocentrism, community, memory, feeding, mother, language

■ Student Number : 2018-24958